

한국목간학회 학술발표회

- ❖ 일시 : 2022.4.1.(금) 13:20~18:00
-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
- ❖ 주최·주관 : 한국목간학회·한성백제박물관

일정

13:20~13:40	개회사	이성시(한국목간학회장)
	인사말	유병하(한성백제박물관장)
13:40~14:30	말갈 투항 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조재우(동국대학교)
14:30~15:20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15:20~15:40	휴식	
15:40~16:30	고대 『논어』 목간의 摘錄과 變形	김종희(경북대학교)
16:30~17:50	近江の渡来人と文字文化の受容	大橋信弥(成安造形大学)
17:50~18:00	폐회	

목차

말갈 투항 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조재우(동국대학교)	5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39
고대 『논어』 목간의 摘錄과 變形 김종희(경북대학교)	63
近江の渡来人と文字文化の受容 大橋信弥(成安造形大学)	93

말갈 투항 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조재우(동국대학교)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 「諾思計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

조재우(동국대학교)

〈목차〉

- I. 머리말-낙사계는 발해인일까
 - II. 「낙사계묘지」의 검토
 - III. 낙사계의 출신과 ‘부여말갈’
 - IV. 맺음말
-

I. 머리말 — 諾思計는 渤海人일까

최근 중국에서 출토·정리된 당대 묘지 자료의 수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¹⁾ 이를 활용한 연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료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당대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묘지의 사료적 가치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당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이민족 묘지의 경우 그동안 문헌자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당대 이민족 사회의 군상을 생생히 증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민사 연구의 일환으로 당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잇달아 보고된 당대 고구려인·백제인·신라인 묘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에서 당대 고구려인·백제인·신라인의 묘지로 분류되는 묘지는 총 44점(고구려 29점, 백제 11점, 신라 4점)²⁾ 정도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유민의 개념 및 범주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묘지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그 출신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다각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는데,³⁾ 이 글에서 분석할 「諾思計墓誌」 역시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2017년 氣賀澤保規가 정리한 당대 묘지 자료의 수량은 총 12,523점(誌 12,043점, 蓋 480점)인데(氣賀澤保規編, 『新編·唐代墓誌所在總合目録』, 明治大學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 2017),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출토된 당대 묘지 자료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전체 수량은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현재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에서 거론되는 당대 고구려인 묘지는 「高饒苗墓誌」(673), 「高提昔墓誌」(674), 「李他仁墓誌」(677), 「泉男生墓誌」(679), 「高玄墓誌」(691), 「高英淑墓誌」(694), 「高足西墓誌」(697), 「高牟墓誌」(699), 「高慈墓誌」(699), 「高質墓誌」(699), 「泉獻誠墓誌」(701), 「高乙德墓誌」(701), 「泉男產墓誌」(702), 「高延福墓誌」(724), 「高木盧墓誌」(730), 「李仁德墓誌」(733), 「高欽德墓誌」(733), 「泉岷墓誌」(733), 「王景曜墓誌」(735), 「李隱之墓誌」(739), 「豆善富墓誌」(741), 「高德墓誌」(742), 「劉元貞墓誌」(744), 「李懷墓誌」(745), 「高遠望墓誌」(745), 「邵公夫人高氏墓誌」(772), 「南單德墓誌」(776), 「高震墓誌」(779), 「似先義逸墓誌」(850) 29점, 백제인 묘지는 「禰寔進墓誌」(672), 「禰軍墓誌」(678), 「扶餘隆墓誌」(682), 「陳法子墓誌」(691), 「黑齒常之墓誌」(699), 「黑齒俊墓誌」(706), 「禰素士墓誌」(708), 「難元慶墓誌」(734), 「嗣號王妃扶餘氏墓誌」(738), 「禰仁秀墓誌」(750), 「李濟墓誌」(825) 11점, 신라인 묘지는 「郭公姬薛氏墓誌」(693), 「金日晟墓誌」(774), 「清河縣君金氏墓誌」(780), 「李瑯夫人京兆金氏墓誌」(864) 4점이다(이상 연대순).

3) 일례로 종래 당대 고구려인의 묘지로 알려진 「李仁德墓誌」의 경우, 그 근거는 묘지에 이인덕의 선조가 「樂浪望族」이었다는 것이 유일한데, “낙랑망족”만을 근거로 이인덕을 당대 고구려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2020).

사실 「낙사계묘지」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낙사계의 출신이 발해인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유일한 ‘당대 발해인’의 묘지로 평가되면서⁴⁾ 문헌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당대 발해인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써 주목되었던 것이다. 종래 낙사계의 출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 없이 막연히 ‘부여인’⁵⁾ 혹은 ‘백제인’⁶⁾으로 파악하기도 하였지만, 국내 학계에 「낙사계묘지」가 최초 소개되면서 그 출신이 ‘발해인’이라는 견해⁷⁾가 제기된 이후 관련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경계인으로서의 발해인’⁸⁾ 혹은 ‘재당 발해인’⁹⁾이라는 관점에서 낙사계를 분석하고 있다.¹⁰⁾

다만, 낙사계라는 인명이 말갈인의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 외에 「낙사계묘지」에서 그 출신을 추정할 만한 유일한 근거는 그가 당으로 투항하기 이전에 “부여부대수령”이었다는 것이 전부인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낙사계의 출신을 ‘부여인’, ‘백제인’, ‘발해인’으로 제각기 달리 파악한 것도 결국 ‘부여부’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좌우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낙사계의 출신을 발해인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낙사계묘지」의 ‘부여부’를 『신당서』 「발해전」에서 발해의 지방통치체제로 명시되어 있는 5경·15부·62주의 하나인 ‘부여부’¹¹⁾로 해석함으로써 낙사계가 발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낙사계가 발해인이라는 전제 아래 그의 투항 배경을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8세기 전반 당과 발해 사이의 관계에서 유추하여 발해 무왕 시기(719~737) 흑수말갈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당으로 망명한 대문예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

그러나 발해의 지방통치체제를 포함하여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발해왕 대이진이 파견한 사신의 내빙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당 문종 태화 7~9년(833~835) 유주부에서 발해에 파견한 장건장의 『발해국기』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¹³⁾ 『신당서』 「발해전」에서 확인되는 발해의 지방통치체제 역시 대략 9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4) 발해인의 묘지는 발해에서 제작된 「貞惠公主墓誌」, 「貞孝公主墓誌」 외에 「張行願墓誌」, 「張汝猷墓誌」 등 발해가 멸망한 이후인 금대 발해 유민들의 묘지가 일부 알려져 있을 뿐이고, 발해가 존속할 당시 입당한 ‘당대 발해인’의 묘지로 알려져 있는 것은 「諾思計墓誌」가 유일하다.

5) 李健超 增訂, 『增訂 唐兩京城坊考』(修訂版), 三秦出版社, 2006, 90쪽. 李健超는 묘지의 ‘부여부대수령’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낙사계를 ‘부여인’이라고 하였는데, 낙사계가 활동한 8세기 전반 무렵은 부여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낙사계가 부여인이라는 견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董延壽·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誌探索」(原刊: 『東北史地』, 2007-2), 趙振華,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陝西古籍出版社, 2009, 566쪽 및 569~570쪽. 趙振華가 낙사계를 ‘백제인’으로 판단한 까닭은 묘지의 ‘부여부’를 백제의 왕도인 부여와 동일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김영관, 「渤海人 諾思計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51, 2009, 152쪽). 그러나 백제의 왕도인 오늘날의 부여는 백제 시기엔 ‘泗沘’(혹은 ‘所夫里郡’)라고 불렸을 뿐 백제 멸망 이후인 신라 경덕왕 시기(742~765)에야 ‘扶餘郡’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낙사계가 백제인이라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7) 김영관,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7, 2009. 이러한 견해는 김영관, 「百濟遺民 禰憲進 墓誌 소개」, 『신라사학보』 10, 2007, 367쪽에서 이미 간략히 피력된 바 있다.

8) 이효형,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 52, 2018.

9) 한준수, 「在唐 渤海人의 삶과 시대 인식」,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10) 이외에 拜根興, 「入鄉隨俗: 墓誌所載入唐百濟遺民的生活軌迹 — 兼論百濟遺民遺迹」, 『陝西師範大學學報』 2009-4, 77쪽;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2010, 35쪽; 최진열, 「고구려의 고씨: 국호(고구려)의 약칭」, 『발해 국호 연구 — 당조가 인정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묵인과 부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299~300쪽 등에서도 모두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낙사계를 발해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11) 『新唐書』 卷219, 「渤海傳」, “… 至是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 領扶·仙二州”(中華書局, 6182쪽). 이하, 中國正史는 中華書局標點本 이용.

12) 김영관,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159~164쪽; 이효형,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8~11쪽; 한준수, 「在唐 渤海人의 삶과 시대 인식」, 158~167쪽.

13) 『新唐書』 卷58, 「藝文志」2, 1508쪽에는 張建章이 지은 『渤海國記』(3卷)가 확인된다. 종래 이를 근거로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은 대체로 장건장의 『발해국기』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김육불, 『신편 발해국지장편』 하(발해사연구회 역), 신서원, 2008(1934), 228~229쪽; 和田清, 「渤海國地理考」(原刊: 『東洋學報』 36-4, 1954), 『東亞史研究』 1(滿洲篇), 東洋文庫, 1955, 57~58쪽 등), 그런 가운데 1956년 北京에서 「張建章墓誌」가 발견되면서 그러한 추정이 실제로 증명되었다(徐自強, 「張建章墓誌」考, 『文獻』 1979-2 등). 즉, 「唐薊州刺史·兼御史大夫張府君(建章)墓誌銘」(氣賀澤 11669)에는 “… 星紀再周, 渤海國王大舜震遣司賓卿賀守謙來聘. 府選報復, 議先會主, 假瀛州司馬, 朱衣使行. 癸丑秋,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낙사계묘지」의 ‘부여부’가 9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신당서』 「발해전」의 ‘부여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발해의 지방통치체제가 『신당서』 「발해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비되기까지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발해의 건국 초창기에 해당하는 8세기 전반에 과연 발해의 ‘부여부’가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낙사계묘지」의 “부여부대수령”에 의거하여 낙사계를 발해인으로 파악한 후 낙사계의 투항 배경을 대문에 망명 사건과 연결시키는 기존의 해석은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낙사계묘지」의 새로운 판독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역주함으로써 「낙사계묘지」의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고, 기존 견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낙사계의 출신을 말갈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존 유일의 ‘당대 발해인’ 묘지로 평가되던 「낙사계묘지」의 사료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낙사계묘지」의 검토

「諾思計墓誌」는 투항한 이민족 수령으로서 대략 당 현종 시기(712~756)에 활동한 諾思計(盧庭賓, ?~748)의 묘지이다. 「낙사계묘지」는 중국 陝西省 西安에서 출토되어 현재 西安博物院(舊 小雁塔文物管理所)에 誌石만 소장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가로 44.5cm × 세로 45cm × 두께 10.5cm의 正方形이다.¹⁴⁾ 가로와 세로 모두 21행에 걸쳐 총 379자가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글자를 판독할 수 있지만 일부 글자의 경우 지석의 부식으로 인하여 10자 정도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낙사계묘지」는 1991년 출간된 『隋唐五代墓誌彙編』(陝西卷-4)에 탁본이 수록되면서 학계에 처음 알려졌는데,¹⁵⁾ 이후 1998년 『全唐文補遺』 5, 2000년 『全唐文新編』 22, 2001년 『唐代墓誌彙編續集』에 각기 수록되면서 그 전문이 판독되었다.¹⁶⁾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지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2007년 董延壽·趙振華가 洛陽·魯山·西安에서 출토된 당대 백제인 묘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扶餘隆, 黑齒常之, 黑齒俊, 難元慶과 더불어 諾思計의 묘지를 소개하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¹⁷⁾ 그러던 가운데 김영관이 2007년 11월 2일 西安博物院을 직접 방문하여 「낙사계묘지」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지문에 대한 판독안과 번역문을 제시하면서 국내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되었고,¹⁸⁾ 이후 2014년 『韓國金石文集成』 16, 2015년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2021년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자료편, 역주편) 등 한국 고대 금석문 관련 자료집이 발간되면서 「낙사계묘지」의 판독안과 번역문이 거듭 제시되었다.¹⁹⁾ 이하에서는 이상의 관련 연

方舟而東，海濤萬里。明年秋杪，達忽汗州，州即挹婁故地。彝震重禮留之，歲換而返。■王大會，以豐貨寶器名馬文華以饒之。九年仲秋月復命。凡所賡啓賦詩，盈溢絀帙。又著『渤海記』，備盡島夷風俗宮殿官品，當代傳之”(張寧 主編，『隋唐五代墓誌彙編』北京卷一-2，天津古籍出版社，1991，143~144쪽；周紹良 主編，『唐代墓誌彙編』下，上海古籍出版社，1992，2511쪽)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건장이 저술한 『발해기』에 ‘島夷’(즉 발해)의 風俗·宮殿·官品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당서』 「발해전」에 전하는 발해의 지방 통치체제 등에 관한 내용은 장건장의 『발해기』에 의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 董延壽·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志探索」, 566쪽; 김영관,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151~155쪽.

15) 王仁波 主編, 『隋唐五代墓誌匯編』陝西卷一-4, 天津古籍出版社, 1991, 9쪽. 이후 출간된 趙平 編輯, 『中國西北地區歷代石刻匯編』 3, 天津古籍出版社, 2000, 128쪽에도 탁본이 수록되었다.

16) 吳鋼 主編, 『全唐文補遺』 5, 三秦出版社, 1998, 378~379쪽; 周紹良 主編, 『全唐文新編』 22, 吉林文史出版社, 2000, 15223쪽; 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2001, 610쪽.

17) 董延壽·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志探索」, 『東北史地』 2007-2(이후 趙振華,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陝西古籍出版社, 2009에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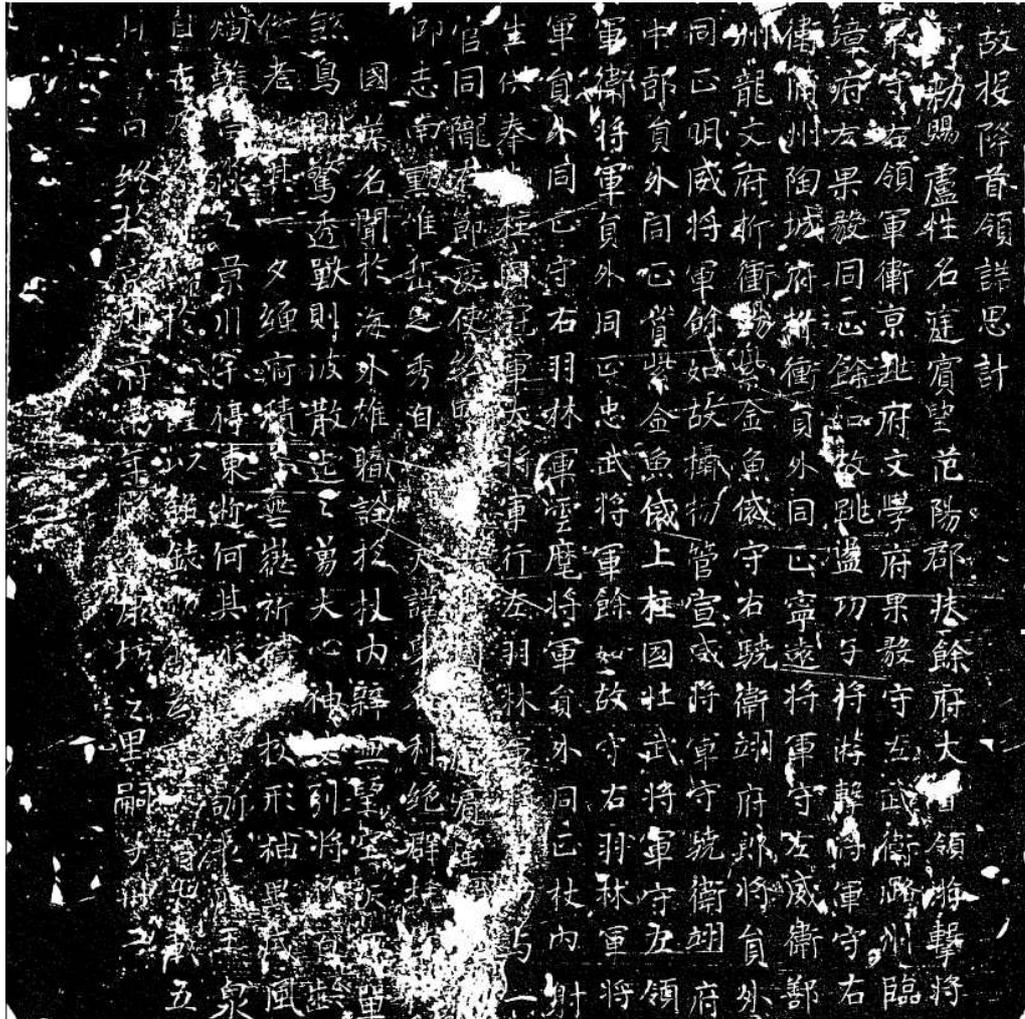
18) 김영관,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7, 2009.

19) 이우태, 『韓國金石文集成』 16(新羅 金文 및 渤海 金石文), 한국국학진흥원, 2014, 71~77쪽(解說篇), 70~76쪽(圖錄篇); 곽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역주,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

구들을 토대로 탁본에 의거하여 「낙사계묘지」의 새로운 판독안을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상세한 역주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낙사계묘지」의 판독

【「낙사계묘지」 탁본】 20)



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751~753쪽(권덕영 집필); 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565~575쪽(자료편), 682~693쪽(역주편).
 20) 趙平 編輯, 『中國西北地區歷代石刻匯編』 3, 天津古籍出版社, 2000, 128쪽.

【「낙사계묘지」 판독안】 2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月	自	燭	借*	煞		仰	官	生	軍	軍	中	同	州	衛	璋*	軍		故		1
			古*	難	老	鳥	國	志	同	供	貞	衛	郎	正	龍	蒲	府	守	勅	棧		2
		日	■	畱	「豈」	則	策	南	隴	奉	外	將	貞	明	文	州	左	右*	賜	降		3
		終	■	森	其	驚	名	勲	右	上	同	軍	外	威	府	陶	果	領	盧	首		4
		於	「皆」	、	一	透	聞	雄	節	柱	正	貞	同	將	折	城	毅	軍	性*	領		5
		京	「歸」	景	夕	獸	於	岳	度	國	守	外	正	軍	衝	府	同	衛	名	諾		6
		兆	於	川	纏	則	海	之	使	冠	右	同	賞	餘	賜	折	正	京	庭	思		7
		府		罕	痾*	波	外	秀	經	軍	羽	正	紫	如	紫	衝	餘	地	寘	計		8
		萬	謹	停	積	散	雄	自	略	大	林	忠	金	故	金	貞	如	府	望			9
		牟	以	東	善	迄	職		■	將	軍	武	魚	楯	魚	外	故	文	范			10
		縣	銘	逝	無	、*	詮		■	軍	雲	將	俄	物	俄	同	跳	學	陽			11
		「平」	鉢*	何	德*	勇	於	天	「上」	行	麾	軍	上	管	守	正	盪*	府	郡			12
		康	勒	其	祈	夫	杖	謹	「柱」	左	將	餘	柱	宣	右	寧	功	果	扶			13
		坊	銘*	永	禱	心	內	身	國	羽	軍	如	國	威	驍	遠	子	毅	餘			14
		之	為	■	無	神	辭	名	「盧」	林	貞	故	壯	將	衛	將	將	守	府			15
		里	「記」*	金	校	「必」*	無	利	庭	軍	外	守	武	軍	翊	軍	游	左	大			16
		嗣	天	駟*	形	引*	望	絕	賓	將	同	右	將	守	府	守	擊	武	首			17
		子	寶	長	神	將	空	群	望	軍	正	羽	軍	驍	郎	左	將	衛	領			18
		卅*	七	「瘞」	異	■	矢*	槌	「稱」	仍	杖	林	守	衛	將	威	軍	潞	游			19
		「」*	載	玉	減	百	不	■	■	与	內	軍	左	翊	貞	衛	守	州	擊			20
			五	泉	風	齡	單	■	■	一	射	將	領	府	外	鄩	右	臨	將			21

【釋文】

故投降首領諾思計」

□^[1]勅賜盧性,^[2] 名庭賓, 望范陽郡, 扶餘府大首領. 游擊將^[3]軍·守^[3]右^[4]領軍衛京兆府 文學府果毅. 守^[5]左武衛盪^[6]州 臨^[7]璋^[7]府左果毅同正, 餘如故. 跳盪^[8]功子將, 游擊^[9]將軍·守右^[9]衛蒲州 陶城府折衝員外同正. 寧遠將軍·守左威衛鄩^[10]州 龍文^[10]府折衝·賜紫金魚袋. 守右驍衛鄩^[11]府中郎將員外同正. 明威將軍, 餘如故. 攝物^[11]管·宣威將軍·守驍衛翊^[12]府中郎將員外同正. 賞紫金魚袋·上柱國. 壯武將軍·守左領^[12]軍衛將軍員外同正. 忠武將軍, 餘如故. 守右羽林軍將^[12]軍員外同正. 守^[12]右羽林軍·雲麾將軍·員外同正·杖內射^[13]生供奉·上柱國. 冠軍大將軍·行左羽林軍將軍, 仍与一^[14]官, 同隴右節度使經略^[14]·上柱國. 盧庭賓, 望稱^[15]■, 仰志南勲, 唯岳之秀, 自□□天謹身. 名利絕群, 挺^[16]■, □國, 英名聞於海外, 雄職詮於杖內. 築^[13]無望空, 矢^[14]不單^[14]煞, 鳥則驚透, 獸則波散. 迄、^[15]勇夫, 心神必^[16]別,^[1]

21) 이 글에서 제시한 판독안은 가능하면 탁본의 자형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 는 기존 판독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글자, ■는 마멸로 인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 「」는 추정할 글자, □는 새롭게 판독한 글자, 「」는 잘못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이다.

7] 將■百齡偕^[18]老, 豈其一夕纏痾.^[19] 積善無懲,^[20] 祈禱無校, 形神異滅, 風燭難留. 森、景^[21]川, 罕停東逝, 何其永■金斲,^[22] 長瘞玉泉. 自古^[23]■■, 皆歸於口, 謹以銘誌,^[24] 勒銘^[25]爲記.^[26] 天寶七載五月口日, 終於京兆府 萬年縣 平康坊之里. 嗣子卅^[27]二.^[28]

【釋文註】 22)

- [1] ‘公’(『補遺』, 趙振華). ‘勅’의 闕字이다.
- [2] ‘性’(『補遺』,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姓’(『新編』, 『續集』, 趙振華). ‘性’은 ‘姓’의 誤刻이다.
- [3] ‘守’(『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守’는 衍字 혹은 ‘行’의 誤刻이다.
- [4] ‘右’(『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권덕영). ‘左’(김영관, 이우태).
- [5] ‘守’(『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守’는 衍字 혹은 ‘行’의 誤刻이다.
- [6] ‘潞’(『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潞’는 ‘相’의 誤刻이다.
- [7] ‘璋’(『補遺』,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漳’(『新編』, 『續集』). ‘璋’은 ‘漳’의 誤刻이다.
- [8] ‘盪’(『補遺』, 『續集』,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蕩’(『新編』, 趙振華).
- [9] ‘擊’(『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擊’은 ‘騎’의 誤刻이다.
- [10] ‘文’(『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文’은 ‘支’의 誤刻이다.
- [11] ‘物’(『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物’은 ‘惣’의 誤刻이다.
- [12] ‘守’(『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守’는 衍字이다.
- [13] ‘辨’(『補遺』,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槃’로 판독한다.
- [14] ‘矢’(『補遺』,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天’(『新編』, 『續集』).
- [15] ‘迄’(『補遺』,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之’(『新編』, 『續集』). ‘迄’의 반복부호이다.
- [16] ‘必’(『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乂’(이우태).
- [17] ‘引’(『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권덕영). ‘列’(이우태). ‘別’로 판독한다.
- [18] ‘偕’(『補遺』,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皆’(『新編』).
- [19] ‘痾’(『新編』, 『續集』,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疴’(『補遺』, 趙振華).
- [20] ‘懲’(『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徵’(『補遺』).
- [21] ‘景’(『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권덕영). ‘黃’(김영관, 이우태).
- [22] ‘斲’(『補遺』, 趙振華, 권덕영). ‘歇’(『新編』, 『續集』, 김영관, 이우태).
- [23] ‘古’(『補遺』,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右’(『新編』, 『續集』).
- [24] ‘誌’(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誌’(『補遺』, 『新編』, 『續集』).
- [25] ‘鐫’(『補遺』). ‘金’(『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銘’으로 판독한다.
- [26] ‘記’(『補遺』, 김영관, 이우태, 권덕영). ‘託’(『新編』, 『續集』). ‘托’(趙振華).
- [27] ‘卅’(『補遺』, 『新編』, 『續集』, 趙振華, 김영관, 권덕영). ‘州’(이우태).
- [28] ‘立’(『補遺』, 趙振華). ‘二’(『新編』, 『續集』, 권덕영). ‘ㄱ’(김영관, 이우태).

22) 『補遺』: 『全唐文補遺』, 『新編』: 『全唐文新編』, 『續集』: 『唐代墓誌彙編續集』, 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志探索』, 김영관: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이우태: 『韓國金石文集』, 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단,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의 경우, 『낙사계묘지』의 집필자인 권덕영의 새로운 판독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였다.

2. 「낙사계묘지」의 역주

【譯文】

故 投降首領 諾思計^[1]

(황제계서) 칙서로 성과 이름을 내려준 盧庭賓은 (郡)望이 范陽郡으로,^[2] 扶餘府大首領^[3]이었다. ① 遊擊將軍·守右領軍衛京兆府文學府果毅^[4]에 임명되었다. 守左武衛潞州臨璋府左果毅同正^[5]에 임명되었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았다. 跳盪功^[6]을 (세운) 子將^[7]으로, 遊擊將軍·守右衛蒲州陶城府折衝員外同正^[8]으로 승진하였다. 寧遠將軍·守左威衛鄆州龍文府折衝^[9]·賜紫金魚袋^[10]로 승진하였다. 守右驍衛翊府郎將員外同正^[11]에 임명되었다. 明威將軍^[12]으로 승진하였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았다. 攝物管^[13]으로, 宣威將軍·守驍衛翊府中郎員外同正^[14]·賞紫金魚袋·上柱國^[15]으로 승진하였다. 壯武將軍·守左領軍衛將軍員外同正^[16]으로 승진하였다. 忠武將軍^[17]으로 승진하였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았다. 守右羽林軍將軍員外同正^[18]에 임명되었다. 守右羽林軍·雲麾將軍·員外同正^[19]·杖內射生供奉·上柱國으로 승진하였다. 冠軍大將軍^[20]·行左羽林軍將軍으로 승진하였고, 아울러 (아들에게) 1관이 수여되었으며 同隴右節度使經略■■■■^[21]·上柱國에 임명되었다. ② 노정빈은라 칭해지며 南勳에 뜻을 두었는데,^[22] 우뚝 솟은 산처럼 빼어났음에도 타고난 천성이 몸가짐을 조심하였다. 명망과 은총은 못사람들보다 뛰어났고 걸출함과는 나라에서하여, 海外에서는 아름다운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杖內에서는 중요한 직책에 발탁되었다.^[23] 창은 허공을 향하는 일이 없었고 화살은 하나만 죽이는 법이 없었으니,^[24] 새들은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고 짐승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③ 임종에 이르자 용감한 장부였음에도 의지와 정신이 결국 (육체와) 분리되었으니, 장차 백년을 해로하고자 하였음에도 어찌하여 하루저녁 만에 병이 들어버렸단 말인가. 선업을 쌓아도 (병을) 이겨내지 못하였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았으니,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고 쇠약해져^[25] 바람 앞의 촛불처럼 (이승에)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아득히 넓은 커다란 강^[26]은 쉽 없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찌하여 장기간 연단을 하였음에도 영원히 구천에 묻히게 되었던 말인가.^[27] 예로부터는 모두로 돌아가니, 삼가 명문을 등에 새겨 기록한다. ④ 천보 7재(748) 5월 ○일 京兆府 萬年縣 平康坊^[28]의 마을에서 돌아가셨다. 嗣子의 (나이) 32세였다.^[29] ⑤

【譯文註】

[1] 고 투항수령 낙사계[故投降首領諾思計]: 「諾思計墓誌」의 誌題이다. 여기서 “投降首領”이라는 표현을 통해 낙사계가 당조로 투항한 이민족 집단의 수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首領’이란 ‘머리와 목’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목숨’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였는데, 이후 머리와 목이 신체의 중심이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특정 집단의 지도자·통솔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수령’은 화자가 타자로 인식한 집단의 지도자·통솔자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의미의 확장·파생을 거치며 점차 ‘이민족 집단의 수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다만 당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족 집단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수령’ 외에도 ‘君長’·‘渠帥’·‘酋豪’ 등의 유사 용어들이 병용되었지만 대략 8세기 무렵부터 여러 유사 용어들 가운데 ‘수령’이 점차 이민족 집단의 수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화되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蕃望’ 규정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다.²³⁾ 여기서 말하는 소위 ‘蕃望’이란 내부한 이민족 수령을 비롯하여 質子로 파견된 宿衛子弟 및 朝貢使節 등의 ‘蕃客’에게 부여된 일종의 等位를 가리키는데, 당은 그 部落의 大小나 部衆의 多少, 혹은 본국에서의 지위나 신분 등을 참작하여 관품과 대응되는 번객의 等위를 제1등~제5등으로 나누어 대우하였다. 이러한 ‘번망’은 관직 수여 등을 비롯한 번객의 처우를 위한 기준으로 기능하였는데, 번망과 관품의 기본적인 대응 관계에 대

23) 古畑徹, 「唐代「首領」語義考 - 中國正史の用例を中心に」, 『東北大學東洋史論集』 11, 2007.

해서는 “무릇 朝貢·宴享·送迎에 관여하여 그 等位를 분별하고 그 職事를 담당한다. 무릇 酋渠首領이 朝見하는 경우 (鴻臚客)館에서 예로써 제공한다. [原註: 3품 이상은 제3등, 4품·5품은 제4등, 6품 이하는 제5등에 준한다. 그 관품이 없는 경우 大酋渠首領은 제4등, 小酋渠首領은 제5등에 준한다.]”²⁴⁾라는 규정이 확인된다.²⁵⁾ 이러한 번망 규정으로 볼 때 투항수령 낙사계는 후술하듯이 “扶餘府大首領”이었다고 하므로 번망 제4등의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낙사계의 출신에 대해서는 “諾思計”라는 인명의 특징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우선, 낙사계의 성씨로 추정되는 ‘諾’씨²⁶⁾의 경우 (唐) 林寶의 『元和姓纂』을 비롯한 소위 譜牒類 문헌들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성씨이기 때문에 중국계 성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낙씨 성을 가진 인명들인데, 현재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낙씨 성을 가진 인명으로는 현종 개원 12~13년(724~725) 당에 조공한 達莫婁大首領 ‘諾皆諾’와 黑水靺鞨 ‘諾箇蒙’ 정도가 확인된다.²⁷⁾ 여기서 達莫婁는 達末婁·大莫盧·大莫婁로도 불렸던 豆莫婁의 이칭으로서 北扶餘의 멸망 이후 ‘那河’(혹은 ‘他漏河’)를 건너 이주한 그 후예이고,²⁸⁾ 黑水靺鞨은 소위 ‘靺鞨 7部’의 하나로써 그 최북단인 ‘黑水’ 지역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거주하였던 말갈의 일파이다.²⁹⁾ 이어서 낙사계라는 이름에서 ‘一計(稽)’는 ‘一利(離 혹은 梨)’, ‘一蒙’ 등과 더불어 말갈인의 인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글자인데,³⁰⁾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 문제 개황 연간(581~600)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扶餘城의 서북쪽에서 부락을 이끌고 내부한 粟末靺鞨 厥稽部 渠長 ‘突地稽’(혹은 度地稽)가 있다.³¹⁾ 이러한 특징은 특히 8세기 전반 말해말갈을 비롯한 여타 말갈계부에서 당에 파견한 조공사절들의 인명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예컨대 渤海靺鞨의 경우 ‘味勃計’(722), ‘菸夫須計’(728), ‘公伯計’(737),³²⁾ 靺鞨諸部の 경우 聿棄計(736)를 비롯하여³³⁾ 鐵利靺鞨의 ‘可婁計’(722), 越喜靺鞨의 ‘勃施計’(723), 黑水靺鞨의 ‘倪屬利稽’(722, 730), ‘阿布利稽’(741) 등이 확

24) 『唐六典』卷18, 「大理寺·鴻臚寺」, 鴻臚寺·典客署條, “凡朝貢·宴享·送迎預焉, 皆辨其等位而供其職事. 凡酋渠首領朝見者, 則館而以禮供之. [原註: 三品已上準第三等, 四品·五品準第四等, 六品已下準第五等. 其無官品者, 大酋渠首領準第四等, 小酋渠首領準第五等.]”(中華書局, 506쪽). 『舊唐書』卷44, 「職官志」3, 鴻臚寺, 典客署條, 1885쪽; 『新唐書』卷48, 「百官志」3, 鴻臚寺, 典客署條, 1258쪽 略同.

25) 石見清裕, 「蕃望について」(原刊: 石見清裕, 「唐の蕃望について」, 福井重雅 編, 『東アジア史上の國際關係と文化交流 - 昭和61~62年度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 總合研究 (A) 研究成果報告書』, 早稻田大學, 1988; 石見清裕, 「關於唐朝的“蕃望”制度」, 中國唐史學會 編, 『中國唐史學會論文集』, 三秦出版社, 1991),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

26) “諾思計”라는 인명 전체가 음借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낙사계 이외에도 ‘諾’으로 시작되는 인명이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諾’을 성씨로 추정한다.

27)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현종 개원 12년(724) 2월’條, “丙辰(26), 黑水靺鞨大首領屋作箇來朝, 達莫婁大首領諾皆諾來朝, 並授折衝, 放還蕃”(鳳凰出版社, 11282쪽); 同書 同卷, ‘현종 개원 13년(725) 4월’條, “甲子(11), 渤海首領謁德, 黑水靺鞨諾箇蒙來朝, 並授果毅, 放還蕃”(11282쪽).

28) 『新唐書』卷220, 「流鬼傳」, “開元十一年, 又有達末婁·達妬二部首領朝貢. 達末婁自言北扶餘之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因居之, 或曰他漏河, 東北流入黑水. 達妬, 室韋種也. …東北距達末婁云”(6210쪽). 『魏書』卷100, 「豆莫婁傳」, 2222쪽(『北史』卷94, 「豆莫婁傳」, 3131쪽 略同) 참조.

29) 『新唐書』卷219, 「黑水靺鞨傳」, 6177~6179쪽. 『隋書』卷81, 「靺鞨傳」, 1821~1822쪽; 『舊唐書』卷199下, 「靺鞨傳」, 5358~5359쪽 참조.

30) 임상선, 「渤海有姓人과 姓氏」(原刊: 임상선, 「渤海 有姓人과 姓氏」, 『백산학보』 51, 1998), 『말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168~173쪽.

31) 『太平寰宇記』卷71, 河北道 20, ‘燕州’條, “隋『北蕃風俗記』云, ‘初, 開皇中, 粟末靺鞨與高麗戰不勝, 有厥稽部渠長突地稽者, 率忽使來部·窟突始部·悅稽蒙部·越羽部·步護賴部·破奚部·步步括利部, 凡八部, 勝兵數千人, 自扶餘城西北舉部落向關內附, 處之柳城, 乃燕都之北. …’”(中華書局, 1436~1437쪽).

32) ① ‘味勃計’.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현종 개원 10년(722) 11월’條, “辛未(4), 渤海遣使其大臣味勃計來朝, 并獻鷹, 授大將軍, 賜錦袍·金魚袋, 放還蕃”(11281쪽). 同書 卷971, 「外臣部·朝貢4」, 同年 同月條, 11238쪽 略同. ② ‘菸夫須計’. 同書 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16년(728) 9월’條, “壬寅(9), … 渤海靺鞨菸夫須計來朝, 授果毅, 放還蕃”(11284쪽). ③ ‘公伯計’. 同書 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25년(737) 4월’條, “丁未(3), 渤海遣其臣公伯計來獻鷹·鶻, 授將軍, 放還蕃”(11287쪽). 同書 卷971, 「外臣部·朝貢4」, ‘同年 同月’條, 11242쪽 略同.

33)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24년(736) 11월’條, “癸酉(?), 靺鞨首領聿棄計來朝, 授折衝, 賜帛五百疋, 放還蕃”(11287쪽).

인된다.³⁴⁾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낙사계라는 인명은 두막루 혹은 말갈의 인명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두막루는 부여의 후예를 자처한 세력이고 말갈(당시 읍루)은 부여의 멸망 이후 그 고지에 거주한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양자 모두 ‘부여’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볼 때 낙사계는 부여의 중심 지역이었던 ‘速木水’(즉, 第二松花江) 유역에 거주한 ‘粟末靺鞨’ 계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2] 황제께서 칙서로 성과 이름을 내려준 노정빈은 군망이 범양군으로[勅賜盧性, 名庭賓, 望范陽郡]: 낙사계가 당에 투항하자 현종이 范陽郡(당시 幽州)의 명족인 范陽 盧氏를 賜姓하고 ‘庭賓’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투항수령 낙사계가 (唐) 樊衡의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에 등장하는 “供奉·將軍 盧庭賓”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³⁵⁾

范陽 盧氏는 본래 姜姓에서 출자한 성씨로, 齊文公의 증손 姜倭가 盧 지역(즉, 濟北 盧縣)에서 食采하면서부터 盧氏라 하였다고 한다. 이후 秦의 博士 盧敖의 후손들이 涿水 가에서 가문을 이루어 마침내 范陽 涿人이 되었으며 後漢末 遠祖 盧植의 후손들이 西晉末에 이르러 ‘南祖’와 ‘北祖’로 갈라졌다가 그 후 北魏의 盧玄 및 그 아들 盧度世에 이르러 당시 사회에서 확고한 명망을 확보하면서 그 네 아들의 후손들이 이후 ‘四房 盧氏’를 형성하였다고 한다.³⁶⁾ 당대의 범양 노씨는 博陵 崔氏, 清河 崔氏, 趙郡 李氏, 滎陽 鄭氏 및 太原 王氏 등과 더불어 “山東郡姓”이라 불렀는데,³⁷⁾ 당시 國姓인 隴西 李氏를 능가할 정도로 최고의 명족으로 여겨졌다.³⁸⁾ 다만, 투항한 속말 말갈 수령이었던 낙사계의 군망이 범양군이었던 것은 투항 이후 현종으로부터 범양 노씨에 사성되었기 때문이지 본래의 범양 노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당에 내부한 이민족에게 사성한 사례는 낙사계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확인되는데, 예컨대 현종이 개원 16년(728) 黑水靺鞨에 설치한 黑水州都督府의 都督에게 ‘李獻誠’이라는 성명을 수여한 사례,³⁹⁾ 渤海靺鞨의 茹常이 幽州에 遷徙된 후 朔方列將으로 전공을 세워 ‘李嘉慶’이라는 성명을 수여받은 사례가 확인된다.⁴⁰⁾ 이때 흑수말갈의 이현성이나 발해말갈의 이가경(여상)이 사성된 이씨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의 국성인 농서 이씨인데,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낙사계가 범

34) ① 鐵利靺鞨의 ‘可婁計’.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10년(722) 10월’條, “己亥(1), 鐵利靺鞨(羯?)可婁計來朝, 授郎將, 放還蕃”(11281쪽). ② 越喜靺鞨의 ‘勃施計’.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11년(723) 11월’條, “甲戌(12), … 越喜靺鞨(羯?)勃施計·拂涅靺鞨朱施蒙·鐵利靺鞨倪處梨俱來朝, 並授郎將, 放還蕃”(11281~11282쪽). ③ — 1 黑水靺鞨의 ‘倪屬利稽’.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10년(722) 윤5월’條, “癸巳(23), 黑水酋長親(倪?)屬利稽來朝, 授勃州刺史, 放還蕃. 勃蕃中州也”(11281쪽); 『新唐書』卷219, 「黑水靺鞨傳」, “開元十年, 其酋倪屬利稽來朝, 玄宗即拜勃州刺史. …”(6178쪽) 및 同書 同卷, ‘개원 10년(722) 12월’條, “戊午(21), 黑水靺鞨大酋長倪屬利稽等十人來朝, 並授中郎將, 放還蕃”(11281쪽). 同書 同卷, 「外臣部·褒異2」, ‘개원 18년(730) 6월’條, “戊午(5), 黑水靺鞨大首領倪屬利稽等十人來朝, 並授中郎將, 放還蕃”(11285쪽). ③ — 2 黑水靺鞨의 ‘阿布利稽’. 『冊府元龜』卷975, 「外臣部·褒異2」, ‘개원 29년(741) 2월’條, “己巳(17), 渤海靺鞨遣其臣失阿利來賀正, 越喜靺鞨遣其部落烏舍利來賀正, 黑水靺鞨遣其臣阿布利稽來賀正, 皆授郎將, 放還蕃”(11288쪽). 同書 卷971, 「外臣部·朝貢4」, ‘同年 同月’條, 11242쪽 略同. 이외에도 1980년대 러시아 연해주 남부 파르티잔스크(Partizansk) 지구에 위치한 니콜라예프카(Nikolaevka) 성터에서 발견된 물고기 모양의 청동 부절(즉 ‘銅魚符’)에서도 “左驍衛將軍 / 聶利計”라고 하는 말갈인의 인명이 확인된다(예.뵈. 샤브르노프, 「연해주에서 출토된 발해의 청동제 符節」(송기호 역), 『한국고대사논총』 3, 가락국사적 개발연구원, 1992).

35) 『文苑英華』卷647, 露布1,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樊衡), 中華書局, 3331~3332쪽; 『全唐文』卷352,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樊衡), 中華書局, 3568~3571쪽.

36) 『新唐書』卷73上, 「宰相世系表」3上, ‘盧氏’條, 2884쪽.

37) 『新唐書』卷199, 儒林中, 「柳沖傳」, “後柳芳著論甚詳, 今刪其要, 著之左方. 芳之言曰: … 山東則爲‘郡姓’, 王·崔·盧·李·鄭爲大. … 今流俗獨以崔·盧·李·鄭爲四姓, 加太原王氏號五姓, 蓋不經也.”(5676~5678쪽).

38) 愛宕元, 「唐代范陽盧氏研究—婚姻關係を中心に」, 川勝義雄·礪波護 共編, 『中國貴族制社會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7.

39) 『舊唐書』卷199下, 「靺鞨傳」, “開元十三年,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續更以最大部落爲黑水府, 仍以其首領爲都督, 諸部刺史隸屬焉. 中國置長史, 就其部落監領之. 十六年, 其都督賜姓李氏, 名獻誠, 授雲麾將軍·兼黑水經略使, 仍以幽州都督爲其押使, 自此朝貢不絕”(5359쪽).

40) 『舊唐書』卷121, 「李懷光傳」, “李懷光, 渤海靺鞨人也. 本姓茹, 其先徙于幽州, 父常爲朔方列將, 以戰功賜姓氏, 更名嘉慶”(3491쪽). 『新唐書』卷224上, 叛臣上, 「李懷光傳」, 6375쪽 略同.

양 노씨에 사성되었던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낙사계는 어떠한 이유에서 농서 이씨가 아닌 범양 노씨에 사성된 것일까? 더욱이 범양 노씨와 더불어 당시 최고의 명족으로 여겨지던 여타의 산동군성 중에서도 왜 하필 범양 노씨에 사성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당대인의 열전이나 묘지에서 그 사람의 출신지로 표기되는 “○○○○人”이라는 것은 ‘郡望’(오늘날의 본관)을 적는 경우도 있지만, ‘籍貫’(오늘날의 본적지)를 적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군망과 적관의 관계와 관련하여 (唐)劉知幾(661~721)의 『史通』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지기는 『國史』를 수찬하면서 「李義琰傳」에 배당되어 이를 찬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유지기는 이의염의 가문이 魏州昌樂에서 거주한 지 이미 3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의염은 魏州昌樂人이다”(적관)라고 적었는데, 이에 당시 감수하던 자가 크게 웃으며 이는 사서의 체례를 심히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씨의 옛 군망에 따라 隴西成紀人(군망)으로 고쳤다고 한다.⁴¹⁾ 이 일화는 당대인들이 열전이나 묘지를 지으면서 그 출신지로 군망을 적기도 하지만 적관을 적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당대 열전과 묘지에 기재된 동일 인물의 출신지가 각각 군망과 적관으로 달리 기재된 사례가 무수히 확인된다.⁴²⁾ 이렇게 볼 때 투항한 이민족 수령으로서 본래 범양 노씨의 군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낙사계의 묘지에서 군망을 범양군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범양 노씨에 사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낙사계가 투항 이후 범양군(유주)을 적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고성에 따라 범양 노씨에 사성되어 묘지에 군망을 범양군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추정을 방증하는 것이 낙사계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樊衡의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인데, 여기서 낙사계는 幽州長史·幽州節度副大使 薛楚玉 휘하의 軍將으로 거란과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다. 더욱이 「낙사계묘지」에서 낙사계가 생전에 역임한 관력 가운데 확인되는 “子將(즉 子總管)”, “攝總管”은 사실상 낙사계의 實職으로서 당 현종 시기 변경 절도사 예하 軍鎮의 軍將에게 주어지던 幕職에 해당한다. 비록 「낙사계묘지」에는 낙사계가 역임한 자장과 섭총관이 어느 절도사 휘하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변형의 노포에서 낙사계가 유주절도사 휘하에서 참전하였던 사실에서 유추하면 유주절도사 휘하의 막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변형의 노포에는 “扶餘…東胡 雜種 君長의 무리” 25,000여 기병이 거란과의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의 ‘扶餘’는 낙사계를 지칭하기 때문에(후술) 이를 통해 낙사계가 ‘부여’ 출신의 일정 규모의 무리를 거느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기록은 이민족 집단의 수장인 부여부대수령 낙사계가 집단으로 당에 투항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는 낙사계와 마찬가지로 속말말갈 출신으로써 수당 왕조에 내부한 突地稽 집단이나 烏素固 부락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사계가 일정 규모의 집단을 거느리고 당에 투항하였다면, 그들 집단이 안치되었을 곳은 범양 노씨를 사성받은 낙사계가 생전에 유주절도사 휘하의 군장으로 활약한 유주(범양군) 외에 달리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낙사계와 그 집단은 유주에 거주하면서 蕃將과 蕃兵으로 활동하였다고 생각된다.

- [3] 부여부대수령[扶餘府大首領] : “扶餘府”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新唐書』 「渤海傳」에 전하는 발해의 지방통치체제인 5경·15부·62주의 하나인 ‘부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신당서』 「발해전」에 전하는 발해의 지방통치체제는 문종 태화 7~9년(833~835) 유주부에서 파견하여 발해를 방문하고 돌아온 장건장의 『발해국기』에 의거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대략 9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8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낙사계묘지」의 부여부가 9세기 전반 무렵 발해의 부여부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세기 중반 발해 문왕 시기(737~793)에 『신당서』 「발해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발해의 州가 확인되기 때문인데, 『續日本紀』에 보이는 발해 문왕이 일본에 파견한 견일본사 관련 기록 가운데

41) 『史通通釋』 卷5, 「邑里」, “時修國史, 予被配撰「李義琰傳」. 琰家於魏州昌樂, 已經三代, 因云「義琰, 魏州昌樂人也」 監修者大笑, 以爲深乖史體, 遂依李氏舊望, 改爲隴西成紀人. 既言不見從, 故有此設”(上海古籍出版社, 쪽).

42) 竹田龍兒, 「唐代士人の郡望について」, 『史學』 24-4, 1951.

“若忽州都督 胥要德”(739),⁴³⁾ “木底州刺史 揚承慶”(758),⁴⁴⁾ “玄菟州刺史 高南申”(759년)⁴⁵⁾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9세기 전반 발해의 지방통치체제는 일률적으로 ‘○○府’(2자), ‘○州’(1자)인 반면(예컨대, 扶餘府 및 그 예하의 扶州·仙州) 『속일본기』의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는 비록 세 사례에 불과하지만 모두 ‘○○州’(2자)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홀주’, ‘목저주’, ‘현토주’라는 지명은 명확히 이전 시기 고구려의 지명을 발해가 계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홀주’의 경우 불분명하지만⁴⁶⁾ ‘목저주’와 ‘현토주’는 분명 고구려의 木底城과 玄菟城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는 8세기 중반 발해 문왕 시기 전반까지 발해가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계승하였다가 이후 『신당서』 「발해전」의 5경·15부·62주 체제로 정비하였음을 시사한다. 그 시점과 관련하여 『속일본기』에는 776년 12월에 도일한 발해의 견일본사 史都蒙이 “弊擘 南海府 吐號浦”에서 출발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⁴⁷⁾ 이를 통해 발해는 문왕 치세 중반인 759~77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고구려에서 유래한 지방통치체제에서 5경·15부·62주 체제로 정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⁸⁾ 따라서 748년 사망한 낙사계가 활동한 8세기 전반의 ‘부여부’를 『신당서』 「발해전」의 ‘부여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낙사계묘지」에 보이는 ‘부여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상술한 것처럼 발해가 8세기 중반까지도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낙사계묘지」의 ‘부여부’ 역시 그 연원을 고구려의 ‘扶餘城’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현재 고구려 부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태여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 부여의 전기왕성 혹은 후기왕성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보지로는 부여의 전기왕성이 위치한 吉林이나 후기왕성으로 추정되는 農安, 遼源, 四平, 柳河, 長春, 榆樹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지역 모두 대체로 속말말갈이 거주하던 속말수 유역 인근 지역(즉, 第二松花江 및 그 지류인 伊通河, 그리고 東遼河 유역)⁴⁹⁾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부여성은 속말말갈을 통할하던 육살급 대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이는 최후의 순간까지 고구려에 저

43) 『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12월’ 條, “戊辰(10), 渤海使己珙蒙等拜朝, 上其王啓并方物. 其詞曰, 欽茂啓. … 今彼國使朝臣廣業等, 風潮失便, 漂落投此. 每加優賞, 欲待來春放廻, 使等貪前, 苦請乃年歸去. 訴詞至重, 隣義非輕, 因備行資, 卽爲發遣. 仍差若忽州都督胥要德等充使, 領廣業等令送彼國, 并附大虫皮·熊皮各七張, 豹皮六張, 人參三十斤, 蜜三斛進上, 至彼請檢領”(吉川弘文館, 156쪽).

44) 『續日本紀』 卷21, ‘淳仁天皇 天平寶字 2년(758) 9월’ 條, “丁亥(18), 小野朝臣田守等至自渤海, 々々大使·輔國大將軍·兼將軍·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開國公揚承慶已下廿三人, 隨田守來朝, 便於越前國安置”(256쪽).

45) 『續日本紀』 卷22, ‘淳仁天皇 天平寶字 3년(759) 10월’ 條, “辛亥(18), 迎藤原河清使判官內藏寸全成, 自渤海却廻, 海中遭風, 漂着對馬. 渤海使·輔國大將軍·兼將軍·玄菟州刺史·兼押衙官·開國公高南申相隨來朝”(266쪽).

46) ‘若忽州’와 관련하여 동일한 모음으로 받음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구려의 哥勿城(甘物主城?)과 동일한 지명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지만(李美子, 「渤海の遼東地域の領有問題をめぐって一 拂涅·越喜·鐵利等靺鞨の故地と關聯して」, 『史淵』 140, 2003, 163~164쪽),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若忽州’의 ‘忽’은 원래 고구려의 지명에서 일반적으로 ‘城’을 뜻하기 때문에(예컨대 安市城의 원래 이름은 安寸忽이라고 한다) ‘若忽州’의 연원은 미상이지만 이 역시 고구려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47) 『續日本紀』 卷34, ‘光仁天皇 寶龜 8년(777) 정월’ 條 “癸酉(20), 遣使問渤海使史都蒙等曰, ‘去寶龜四年, 烏須弗歸本蕃日, 太政官處分, 渤海入朝使, 自今以後, 宜依古例向大宰府, 不得取北路來. 而今違此約束, 其事如何?’ 對曰, ‘烏須弗來歸之日, 實承此旨. 由是, 都蒙等發自弊擘南海府吐號浦, 西指對馬嶋竹室之津, 而海中遭風, 着此禁境. 失約之罪 更無所避’(431쪽).

48) 濱田耕策, 「渤海國の京府州郡縣制の整備と首領の動向 - 新羅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 『백산학보』 52, 1999, 769~772쪽에서는 발해 五京制의 성립과정과 연동시켜 발해의 왕도가 舊國에서 顯州를 거쳐 上京으로 천도한 755년부터 다시 東京으로 천도한 790년 이전까지의 제1차 상경 시대에 고구려에서 유래한 지방통치체제에서 5경·15부·62주 체제로 정비되었다고 한다.

49) 日野開三郎, 「靺鞨七部の住域について」(原刊: 『史淵』 36·37, 1947),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東北アジア民族史 一), 三一書房, 1991, 28~38쪽.

50) 『資治通鑑』 卷201, ‘고종 총장 원년(668) 2월’ 條에는 “壬午(28), … 薛仁貴既破高麗於金山, 乘勝將三千人將攻扶餘城, 諸將以其兵少, 止之. 仁貴曰, ‘兵不在多, 顧用之何如耳.’ 遂爲前鋒以進, 與高麗戰, 大破之, 殺獲萬餘人, 遂拔扶餘城. 扶餘川中四十餘城皆望風請服”(中華書局, 6354쪽)라고 하여 668년 2월 설인귀가 부여성을 함락시키자 부여천 인근의 40여 성이 모두 항복하였다고 하는데(『舊唐書』 卷83, 「薛仁貴傳」, 2782쪽; 『冊府元龜』 卷986, 「外臣部·征討5」, ‘고종 건봉 3년(668) 2월’ 條, 11412쪽 略同), 이를 통해 부여성이 부여천 인근의 40여 諸城을 관할하던 거점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의 소위

항하였던 속말말갈 수령 돌지계가 고구려 부여성 서북쪽에서 부락을 이끌고 수에 내부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낙사계묘지」의 ‘부여부’를 고구려의 부여성에서 유래한다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낙사계묘지」에서는 부여‘성’이 아닌 부여‘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답을 위해서는 고구려의 멸망 이후 당이 고구려 고지에 시행한 기미지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주지하듯이 당은 고종 총장 원년(668) 9월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같은 해 12월 고구려의 왕도인 평壤城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여 그 고지를 9都督府, 42州, 100縣으로 편제하여 기미지배를 실시하였다. 당이 고구려 고지에 설치한 안동도호부 예하 기미부주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참작하여 설치한 것인데,⁵¹⁾ 현재 당이 안동도호부 예하의 기미부주로 최초 설치한 9도독부, 42주 중에서 그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구당서』 「지리지」의 新城州·遼城州·哥勿州·建安州 4도독부, 南蘇州·木底州·蓋牟州·代那州·倉巖州·磨米州·積利州·黎山州·延津州·安市州 10주에 불과하여⁵²⁾ 고구려의 부여성에도 기미부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고구려 시기의 육살급 대성으로서 속말말갈을 통할하던 부여성과 마찬가지로 두만강 유역의 白山靺鞨을 통할하던 柵城의 사례는 당이 부여성에도 기미부주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책성 역시 『구당서』 「지리지」의 안동도호부 관하 기미부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李他仁墓誌」의 “柵州都督·兼摠兵馬에 제수되어 12州 高麗를 관할하고 37部 靺鞨을 통할하였다”⁵³⁾라든가 「陽玄基墓誌」의 “총장 원년(668) 鹿陵府長上折衝에 제수되고 아울러 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에 임명되었다. 反首領 高定問 등을 주벌하여 定陽郡公·食邑二千戶에 봉해졌다”⁵⁴⁾는 기록에서 당이 고구려 멸망 이후 책성을 안동도호부 관하 기미도독부인 (東)柵州都督府로 편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책성과 그 성격이 유사한 부여성에도 기미도독부가 설치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부여성에 기미부주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안동도호부가 신

‘李勣奏報’에 보이는 압록강 이북 ‘未降城’ 및 ‘已降城’ 목록에는 北扶餘城州(즉, 扶餘城), 新城州, 遼東城州, 屋城州(즉, 烏骨城), 多伐嶽州 및 ‘國內州’ 등의 6성이 여타 성들과 달리 ‘州’로 기록되어 있는데(을유문화사, 281~282쪽), 이중 오골성주의 경우 육살이었음이 문헌기록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급 성은 모두 육살급 대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노태돈,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천」,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21~244쪽).

- 51) 고구려 멸망 당시 고구려에는 본래 5부, 176성, 69만 7천호가 있었다고 하는데(『舊唐書』 卷39, 「地理志」2, 河北道, 「安東都護府」條, 1526쪽), 안동도호부 예하 9도독부, 42주, 100현이 176성에 근접하다는 점에서 당의 기미부주는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를 고려하여 이를 재편한 것이라 이해된다(장병진, 「당의 고구려 고지(故地) 지배방식과 유민(遺民)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2016, 110~113쪽).
- 52) 『舊唐書』 卷39, 「地理志」2, 河北道, 「安東都護府」條, 1527쪽. 한편,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廝州, 河北道, 1128~1129쪽에는 『구당서』 「지리지」의 4도독부, 10주 외에 衛樂州·舍利州·居素州·越喜州·去旦州 5도독부와 諸北州·識利州·拂涅州·拜漢州 4주가 추가되어 총 9도독부, 14주(23부주)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지리지」의 4도독부, 10주(14부주)는 신성주·요성주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안동도호부가 신성에 있었던 677~698년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廝州, 河北道, 1128쪽에도 “高宗滅高麗, 置都督府九, 州四十二, 後所存州止十四”라고 한다), 『신당서』 「지리지」에서 추가된 5도독부, 4주 가운데 舍利州都督府·越喜州都督府 및 識(鐵?)利州·拂涅州 등은 越喜靺鞨, 鐵利靺鞨, 拂涅靺鞨과 같은 말갈 부락과 연관된 명칭이라는 점에서 개원 연간(713~741) 발해의 흥성으로 인하여 말갈제부가 그 압박을 받아 당에 의부하려고 조공하였을 때 그들에게 도독 또는 자사의 칭호를 부여하였던 것(일례로 개원 연간 흑수말갈의 수령에게 勃(利)州刺史, 黑水州都督을 제수한 사례가 확인된다)을 『신당서』 편찬자가 신성 시기의 안동도호부에 관한 기록과 결합하여 기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쓰다 소키치, 「安東都護府考」(정명준 역), 『고구려발해연구』 42, 2012, 286~290쪽). 따라서 애초에 당이 고구려 고지에 설치한 안동도호부 관하 9도독부, 42주 가운데 그 명칭이 확인되는 것은 『구당서』 「지리지」의 4도독부, 10주(14부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 53) 「大唐右領軍將軍·贈右驍衛大將軍李他仁墓誌銘」(氣賀澤 6520), “君諱他仁, 本遼東柵州人也, 後移貫雍州之萬年縣焉. …于時, 授公柵州都督·兼摠兵馬, 管一十二州高麗, 統卅七部靺鞨”(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278쪽 및 281쪽).
- 54) 「大周故左羽林衛將軍·上柱國·定陽郡開國公右北平陽君(玄基)墓誌銘」(氣賀澤 3600),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趙君平·趙文成 編, 『河洛墓刻拾零』 上,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173~174쪽; 吳綱 主編, 『全唐文補遺』 8, 三秦出版社, 2005, 330쪽).

성에 있었던 677~698년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는 『구당서』 「지리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여성이 어느 시점에 안동도호부 관하에서 이탈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고구려 멸망 직후인 총장 2년(669) 10월 고종이 涼州로 순행하려고 하자 詳形大夫 來公敏이 “근래 高麗가 비록 평정되었지만 扶餘는 아직 강경합니다”라는 이유로 만류한 사건,⁵⁵⁾ 함형 4년(673) 윤5월 이전에 燕山道總管 李謹行의 妻 劉氏가 伐奴城(代那州?)에서 高麗 및 靺鞨의 공격을 격퇴한 사건,⁵⁶⁾ 그리고 「李他仁墓誌」에서 “공이 다시 조서를 받들어 扶餘로 진격하여 거둬 渠魁를 베었다”⁵⁷⁾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부여성에서 반당 항쟁이 거둬졌었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⁸⁾ 이를 참조한다면 부여성은 고구려 멸망 직후 안동도호부 관하 기미도독부인 ‘扶餘州都督府’(扶餘府)로 편제되었지만 거둬진 반당 항쟁의 결과 안동도호부가 신성에 위치하였을 때인 677~698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안동도호부 관하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부여성 인근에 거주하던 속말말갈 역시 이때 당의 기미지배에서 벗어나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8세기 전반 부여성(부여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속말말갈의 수령 낙사계가 투항하자 「낙사계묘지」에서는 낙사계를 “扶餘府大首領”이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4] 유격장군·수우령군위경조부문학부과의[遊擊將軍·守右領軍衛京兆府文學府果毅]: “遊擊將軍”은 무산관, “守右領軍衛京兆府文學府果毅”는 직사관으로 京兆府에 위치한 右領軍衛 예하의 折衝府인 文學府의 果毅都尉이다. 무산관인 유격장군은 종5품하, 직사관인 과의도위는 절충부의 등급에 따라 종5품하(上府), 정6품상(中府), 종6품하(下府)에 해당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階卑官高’의 ‘守’를 칭할 수 없기 때문에⁵⁹⁾ 여기서의 ‘守’는 衍字 혹은 ‘行’의 誤刻이다. 아울러 “文學府”와 관련하여 (宋) 宋敏求(1019~1079)의 『長安志』에는 京兆府 興平縣(개원 연간의 金城縣) 동쪽 10리에 (秦) 章邯(?~前 205)이 축조한 文學城과 武學城이 서로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⁶⁰⁾ ‘문학부’는 아마도 이곳에 설치된 절충부로 추정된다.⁶¹⁾
- [5] 수좌무위노주임장부좌과의동정[守左武衛潞州臨漳府左果毅同正]: 潞州에 위치한 左武衛 예하의 折衝府인 臨漳府의 左果毅都尉(員外置同正員)이다. 단, “臨漳府”의 ‘漳’은 「禰素士墓誌銘」의 “臨漳府折衝”으로 볼 때⁶²⁾ ‘漳’의 誤刻으로 판단되며, “臨漳”이라는 지명 역시 潞州와 바로 인접한 相州의 領縣이기 때문에 ‘潞’ 역시 ‘相’의 誤刻으로 판단된다.⁶³⁾ ‘임장부’는 아마도 노·상주 경내를 흐르던 ‘漳水’ 인근에 설치된 절충부로 추정된다. 아울러 상술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守’도 衍字 혹은 ‘行’의 誤刻이다.
- 한편, “同正”은 ‘蕃官’의 주요 임용형식인 員外官의 일종으로, ‘員外置同正員’(혹은 ‘員外同正’)의

55) 『唐會要』 卷27, 「幸行」, “總章二年八月一日, 詔以十月幸涼州. … 詳刑大夫來公敏曰, ‘ … 近高麗雖平, 扶餘尚梗, 兼西道經略, 兵猶未停, 且隴右諸州, 人戶尤少, 供億驚駕, 備擬稍難. 臣聞在外, 實有竊議.’ 上曰, ‘卿等既有此言, 我止度隴, 存問父老, 蒐狩即還’ 竟下詔停西幸”(上海古籍出版社, 601~602쪽). 『冊府元龜』 卷549, 「諫諍部·褒賞」, ‘來公敏’條, 6289쪽 略同.

56) 『資治通鑑』 卷202, ‘고종 함형 4년(673) 윤5월’條,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眾皆奔新羅. 時謹行妻劉氏留伐奴城, 高麗引靺鞨攻之, 劉氏擐甲帥眾守城, 久之, 虜退. 上嘉其功, 封燕國夫人. 武力絕人, 爲眾夷所憚”(6371쪽).

57) 「大唐右領軍將軍·贈右驍衛大將軍李他仁墓誌銘」(氣賀澤 6520), “從英公入朝, 特蒙勞勉, 蒙授右戎衛將軍. 既而姜維構禍, 復擾成都, 穢穴挺妖, 俄翻穢境. 公又奉詔進討扶餘, 重翦渠魁, 更承冠帶, 凱還飲至, 帝有嘉焉, 遷授同正員右領軍將軍”(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278쪽 및 281쪽).

58)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城 圈域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59) 『通典』 卷19, 「職官」1, 歷代官制總序, “凡正官, 皆稱行·守, 其階高而官卑者稱行, 階卑而官高者稱守, 階官同者, 並無行·守字”(中華書局, 471쪽).

60) 『長安志』 卷14, 「縣」4, 興平, “文學城. 在縣東, 崇二丈五尺. 『十道志』曰, ‘今謂之故縣城.’ 武學城, 在縣東一十里, 崇二丈五尺. 與文學城相接, 二城並秦章邯築”(中華書局, 152쪽).

61) 張沛, 『唐折衝府彙考』, 三秦出版社, 2003, 48~49쪽.

62) 「大唐故雲麾將軍·左武衛將軍·上柱國·來遠郡開國公禰府君(素士)墓誌銘」, “又改龍原府左果毅·臨漳府折衝”(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368쪽 및 371쪽).

63) 張沛, 『唐折衝府彙考』, 200쪽.

약칭이다. ‘원외관’이란 정식 관원 편제에 규정된 정원 이외의 직사관을 가리키는데(정원 이내의 직사관은 ‘正員官’ 혹은 ‘正員’, ‘正官’이라고 불렀다), 고종 영희 6년(655) 원외치동정원의 형식으로 蔣孝璋을 尙藥奉御에 임명하면서 員外置와 員外置同正員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양자는 정원관에게 지급되던 직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전자의 경우 정원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봉록만 지급된 반면 후자의 경우 정원관과 동일한 봉록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⁶⁴⁾

[6] 도탕공[跳盪功] : ‘軍功’의 일종으로, 「軍功格(兵部格)」에서는 “무릇 전투에 나아가 적과 마주하여 교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先鋒이 뛰쳐나가 견고한 적진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돌파하여 적의 무리가 이로 인해 격파된 경우를 跳盪(功)이라 한다”⁶⁵⁾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跳盪功은 破賊陣이 1만인 미만이면 10인을 초과하여 敘(錄)할 수 없고 1만인 이상이면 1천 인마다 1인씩 추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先鋒第一功은 20인을 초과하여 敘(錄)할 수 없고, (先鋒)第二功은 40인을 초과하여 敘(錄)할 수 없다”⁶⁶⁾고 하여 일정한 인원 제한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도탕공에 대한 보상은 그 跳盪人의 資格에 따라 각기 차등이 있었는데, ‘上資’(見任、前資、常選)는 ‘加兩階’, ‘即優與處分’, ‘應入三品·五品, 不限官考’, ‘次資’(文·武散官、衛官、勳官五品已上)는 ‘即優與處分’, ‘下資’(五品子·孫、上柱國·柱國子、勳官六品已下、諸色有番考人)는 ‘優與處分’, ‘無資’(白丁、衛士、雜色人)는 ‘稍優與處分’의 보상을 받았다.⁶⁷⁾ 단, 도탕공에 대한 군공 보상의 일환인 ‘優與處分’을 통한 직사관의 수여는 원외관에 한정되었던 것⁶⁸⁾으로 판단된다.⁶⁹⁾

[7] 자장[子將] : 行軍·鎮軍·軍鎮 등의 裨將(小將)인 子總管의 통칭이다. 軍鎮의 경우 大使·副使 이하에 각각 5천 인마다 總管 1인, 1천 인마다 子總管(子將) 1인, 500인마다 押官 1인을 설치하였는데, 衝관은 折衝都尉, 자총관(자장)은 果毅都尉, 押관은 別將 및 鎮戍官 이상의 무관으로 충임하였다.⁷⁰⁾

[8] 유격장군·수우위포주도성부절충원외동정[遊擊將軍·守右衛蒲州陶城府折衝員外同正] : “遊擊將軍”은 무산관, “守右衛蒲州陶城府折衝員外同正”은 직사관으로 蒲州에 위치한 右衛 예하의 折衝府인 陶城府의 折衝都尉(員外置同正員)이다. 단, 묘지의 관력 기재 방식으로 볼 때 “遊擊將軍”(종5품하)의 ‘擊’은 “遊騎將軍”(종5품상)의 ‘騎’를 誤刻한 것으로 추정된다. 직사관인 折衝都위는 折衝부의 등급에 따라 정4품상(上府), 종4품하(中府), 정5품하(下府)에 해당한다. 아울러 “陶城府”는 『新唐書』 「地理志」에 기록된 포주 경내에 위치한 33곳의 折衝부 가운데 하나로서⁷¹⁾ 「高欽德墓誌

64) 『通典』 卷19, 「職官」1, 歷代官制總序, “員外官, 其初但云員外. 至永徽六年, 以蔣孝璋爲尙藥奉御, 員外特置, 仍同正員. 自是員外官復有同正員者, 其加同正員者, 唯不給職田耳, 其祿俸賜與正官同. 單言員外者, 則俸祿減正官之半”(472쪽).

65) 『李德裕文集校箋』 卷16, 論用兵4, 「請准兵部式依開元二年軍功格置跳盪及第一·第二功狀」, “『開元格』, ‘凡臨陣對寇, 矢石未交, 先鋒挺入, 陷堅突衆, 賊徒因而者爲跳盪’”(中華書局, 366~367쪽).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員外郎’條, 161쪽; 『新唐書』 卷46, 「百官志」1, 吏部, ‘司勳郎中·員外郎’條, 1189쪽 略同.

66) 『李德裕文集校箋』 卷16, 論用兵4, 「請准兵部式依開元二年軍功格置跳盪及第一·第二功狀」, “『開元格』, ‘跳盪功, 破賊陣不滿萬人, 所敘不得過十人, 若萬人以上, 每一千人, 聽加一人. 其先鋒第一功, 所敘不得過二十人. 第二功, 所敘不得過四十人’”(367쪽).

67)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員外郎’條, “凡酬功者, 見任、前資、常選爲上資, 文·武散官、衛官、勳官五品已上爲次資, 五品子·孫、上柱國·柱國子、勳官六品已下、諸色有番考人爲下資, 白丁、衛士、雜色人爲無資. 凡跳盪人, 上資加兩階, 即優與處分, 應入三品、五品, 不限官考. 次資即優與處分. 下資優與處分. 無資稍優與處分”(161쪽).

68) 『唐六典』 卷2, 「尙書吏部」, ‘吏部尙書·侍郎’條, “凡皇親及諸軍功, 兼注員外官”(28쪽).

69) 조재우, 「당대 군공규정과 수훈절차 - 勳告와 軍功公驗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2, 2020, 89~99쪽.

70)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郎中’條, “凡諸軍·鎮每五百人置押官一人, 一千人置子總管一人, 五千人置總管一人. … [原註: 副使·總管取折衝已上官充, 子將已上取果毅已上充.]”(159쪽) 및 同書 同卷, 「尙書兵部」, ‘兵部郎中’條의 原註, “五千人置總管一人, 以折衝充. 一千人置子將一人, 以果毅充. 五百人置押官一人, 以別將及鎮戍(戍?)官充”(158쪽). 『舊唐書』 卷43, 「職官志」2, ‘兵部郎中·員外郎’條, 1835쪽; 『新唐書』 卷49下, 「百官志」4下, 外官, ‘鎮·戍’條, 1320쪽 略同.

71) 『新唐書』 卷39, 「地理志」3, ‘河中府·河東郡’條, 999~1000쪽.

銘」에서도 확인되는데,⁷²⁾ (唐)李泰(620~652)의 『括地志』 등에 의하면 蒲州 河東縣 북쪽 30리 (혹은 40리) 지점의 황하 동안에 舜이 도읍한 ‘陶城’이 위치하였다고 한다.⁷³⁾ ‘도성부’는 아마도 이곳에 설치한 절충부로 추정된다.⁷⁴⁾

- [9] 영원장군·수좌위위선주용문부절충[寧遠將軍·守左威衛鄆州龍文府折衝]：“寧遠將軍”은 무산관, “守左威衛鄆州龍文府折衝”은 직사관으로 鄆州에 위치한 左威衛 예하의 折衝府인 龍文府의 折衝都尉이다. 단, 鄆州의 領縣으로 ‘龍支縣’이 확인되기 때문에 “龍文府”의 ‘文’은 ‘支’의 誤刻으로 판단된다. (唐)李吉甫(758~814)의 『元和郡縣圖志』에는 鄆州 龍支縣의 서남쪽에 위치한 ‘龍支谷’에서 현의 이름을 취하였다고 하는데,⁷⁵⁾ ‘용지부’는 아마도 이곳에 설치한 절충부로 추정된다. 무산관인 영원장군은 정5품하, 직사관인 절충도위는 절충부의 등급에 따라 정4품상(上府), 종4품하(中府), 정5품하(下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守’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부’의 등급은 上府 혹은 中府로 판단된다.
- [10]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황제가 紫衣와 金魚袋를 하사하여 그 착용과 패용을 허락하였다는 뜻으로, ‘賞紫金魚袋’ 혹은 ‘借紫金魚袋’라고도 한다. 백료의 ‘章服’은 관품에 따라 각기 차등이 있었는데, 3품 이상은 玉으로 장식한 紫衣, 4·5품은 金으로 장식한 朱衣(혹은 緋衣), 6·7품은 銀으로 장식한 綠衣, 8·9품은 鍮石으로 장식한 靑衣를 착용하였고, 流外官·庶人은 銅이나 鐵로 장식한 黃衣를 착용하였다.⁷⁶⁾ 또한 ‘魚袋’란 “(관인의) 貴賤을 밝히고 徵召에 응하는” 데 사용된 ‘隨身魚符’⁷⁷⁾를 담아 관복에 패용하던 주머니를 말하는데, 3품 이상은 金魚袋, 4품·5품은 銀魚袋를 패용하였다.⁷⁸⁾ 『唐會要』 「輿服·魚袋」에 인용된 (唐)蘇冕(734~805)의 『會要』에 의하면, 현종 개원 9년(921) 9월 14일 中書令 張嘉貞의 상주 이후 恩制로 緋衣·紫衣를 賞賜할 경우 例에 따라 魚袋를 겸하여 주었다고 한다.⁷⁹⁾ 이때 당시 낙사계는 본품이 정5품하의 무산관인 ‘영원장군’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紫衣를 착용하고 金魚袋를 패용할 수 없었지만, 황제의 恩賜로 허락되었다는 뜻에서 관함에 ‘賜紫金魚袋’를 병기한 것이다.
- [11] 수우효위익부낭장원외동정[守右驍衛翊府郎將員外同正]：직사관으로 南衙禁軍의 하나인 右驍衛 예하의 속관부인 翊府의 차관인 낭장(정5품상)이다. 좌·우효위의 익부낭장은 여타의 남아금군과 마찬가지로 장관인 익부중랑장과 더불어 校尉·旅帥·翊衛 등을 거느리고 숙위하면서 해당 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관장한다.⁸⁰⁾

72) 『唐右武衛將軍高府君(欽德)墓誌銘』(氣賀澤 5310), “伊先君身死王事, 鴻澤酬汲. 贈一子官, 解褐拜陶城府果毅”(陳長安 主編, 『隋唐五代墓誌彙編』 洛陽卷一 10, 天津古籍出版社, 1991, 69쪽;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 下, 1416쪽).

73) 『括地志輯校』 卷2, 蒲州, 河東縣, “陶城在蒲州河東縣北三十里, 即舜所都也, 南去歷山不遠, 或耕或陶, 所在則可, 何必定陶方得爲陶也? 舜之陶也? 斯或一焉. [輯校: 『史記』 「五帝本紀」 「陶河濱」 「正義」 引. 『通鑑地理通釋』 卷四舜都引 “或陶所在” 二十二字 “何必定陶” 四字]”(中華書局, 52쪽); 『元和郡縣圖志』 卷12, 「河東道」 1, 「河中府 河東縣」 條, “故陶城, 在縣北四十里. 『尚書大傳』 曰, “舜陶于河濱””(中華書局, 325쪽); 『資治通鑑』 卷231, 「德宗 貞元元年(785) 三月」 條의 胡三省註, “鄆州元曰: 陶城, 在蒲坂城西北, 即舜所都也. 舜陶河濱, 蓋即此地, 與歷山相近. 按唐河中府治河東縣. 河東, 古蒲坂也”(7452쪽).

74) 張沛, 『唐折衝府彙考』, 144~145쪽.

75) 『元和郡縣圖志』 卷39, 「隴右道」 上, 「鄆州 龍支縣」 條, “[後魏]廢帝二年改名龍支縣, 西南有龍支谷, 因取爲名”(993쪽).

76) 『唐六典』 卷4, 「尚書禮部」, 「禮部郎中·員外郎」 條, “凡百僚冠·笏·緞·幘·珂·珮各有差. 凡常服亦如之. [原註: 親王·三品已上·二王後服用紫, 飾以玉. 五品已上服用朱, 飾以金. 七品已上服用綠, 飾以銀. 九品已上服用青, 飾以鍮石. 流外·庶人服用黃, 飾以銅·鐵]”(118쪽). 『新唐書』 卷24, 「車服志」, 527쪽 略同.

77) 『唐六典』 卷8, 「門下省」, 「符寶郎」 條, “三曰隨身魚符, 所以明貴賤, 應徵召”(253쪽).

78) 『新唐書』 卷24, 「車服志」, “隨身魚符者, 以明貴賤, 應召命, 左二右一, 左者進內, 右者隨身. 皇太子以玉契召, 勘合乃赴. 親王以金, 庶官以銅, 皆題某位姓名. 官有貳者加左右, 皆盛以魚袋, 三品以上飾以金, 五品以上飾以銀. 刻姓名者, 去官納之, 不刻者傳佩相付”(525쪽).

79) 『唐會要』 卷31, 「輿服」 上, 魚袋, “蘇氏記曰: 自永徽以來, 正員官始佩魚, 其離任及致仕, 即去魚袋. 員外·判·試并檢校等官, 並不佩魚. 至開元九年九月十四日, 中書令張嘉貞奏曰, “致仕官及內外官五品已上檢校·判·試·判及內供奉官, 見占闕者, 聽準正員例, 許終身佩魚, 以爲榮寵. 以理去任, 亦許佩魚.” 自後恩制賞緋·紫, 例兼魚袋, 謂之章服”(677쪽).

- [12] 명위장군[明威將軍] : 종4품하의 무산관이다.
- [13] 섭물관[攝物管] : 『攝物管』의 ‘物’은 ‘總’·‘摠’·‘摠’ 등의 이체자인 ‘惣’의 誤刻이다. 여기서의 ‘物管’은 行軍·鎮軍·軍鎮 등의 軍將인 ‘總管’을 의미하는데, 상술하였듯이 軍鎮의 경우 大使·副使 예하에 5천 인마다 總管 1인을 설치하여 折衝都尉 이상의 무관으로 충임하였다. 한편, ‘攝’은 임시 대리의 뜻으로, 『唐律疏議』 「名例律」 ‘無官犯罪’ 條의 疏議에 인용된 「公式令」에는 “內外官이 勅令으로 他司의 사무를 임시 대리하는 것을 모두 ‘檢校’라고 하고, 만약 比司라면 곧 ‘攝判’이라고 한다”고 한다.⁸¹⁾
- [14] 선위장군·수효위익부중랑원외동정[宣威將軍·守驍衛翊府中郎員外同正] : “宣威將軍”은 무산관(종4품상), “守驍衛翊府中郎員外同正”은 직사관으로 南衙禁軍의 하나인 左驍衛 혹은 右驍衛 예하의 속관부인 翊府의 장관인 중랑장(정4품하)이다.
- [15] 상주국[上柱國] : 정2품 훈관이다.
- [16] 장무장군·수좌령군위장군원외동정[壯武將軍·守左領軍衛將軍員外同正] : “壯武將軍”은 무산관(정4품하), “守左領軍衛將軍員外同正”은 직사관으로 南衙禁軍의 하나인 左領軍衛의 차관인 장군(종3품)이다. 좌·우령군위의 장군은 여타의 남아금군과 마찬가지로 장관인 대장군과 더불어 궁정의 경비·호위에 관한 법령을 통령하고 의장을 감독하며 각 조의 직무를 총괄하는 일을 관장한다.⁸²⁾
- [17] 충무장군[忠武將軍] : 정4품상의 무산관이다.
- [18] 수우우림군장군원외동정[守右羽林軍將軍員外同正] : 직사관으로 北衙禁軍의 하나인 右羽林軍의 차관인 장군(종3품)이다. 좌·우우림군의 장군은 장관인 대장군과 더불어 北衙禁兵에 관한 법령을 통령하고 左·右廂 飛騎의 의장을 통섭하며 각 조의 직무를 통괄하는 일을 관장한다.⁸³⁾
- [19] 수우림군·운휘장군·원외동정[守右羽林軍·雲麾將軍·員外同正] : 雲麾將軍·守右羽林軍[將軍]員外同正의 誤刻이다. 또한 무산관인 운휘장군과 직사관인 수우림군장군 모두 종3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守’는 衍字이다.
- [20]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 정3품의 무산관이다.
- [21] 동농우절도사경략[同隴右節度使經略] : 隴右節度使 예하의 ‘同隴右節度使經略副使’로 추정된다. 『新唐書』 「百官志」에 의하면, 절도사 예하에는 副大使·知節度事·行軍司馬·副使·判官 등과 더불어 ‘同節度副使’ 10인을 두었고, 절도사가 ‘經略使’를 겸직하면 추가로 經略副使·經略判官 각 1인을 두었다고 한다.⁸⁴⁾ 농우절도사는 현종 개원 원년(712) 12월 鄜州都督 楊矩를 제수하면서부터 절도사의 칭호가 생겨났는데, 이후 개원 15년(727) 12월 張志亮를 제수하면서 經略·支度·營田等使를 겸직시키면서부터 定額이 되었다.⁸⁵⁾
- [22] 남훈에 뜻을 두었는데[仰志南勳] : ‘勳’은 ‘熏’·‘薰’과 통용된다. ‘南勳’, 즉 ‘南薰’은 ① 舜이 지었다는 악곡의 명칭으로, ‘南風’이라고도 한다. 『史記』 「樂書」에는 “옛날 舜이 다섯 현의 거문고를 만들어 南風을 노래하였다”고 하는데, (劉宋) 裴駰의 『史記集解』에서는 (曹魏) 王肅(195~256)을 인용하여 “南風은 백성의 양육을 노래한 시이다. 그 辭는 다음과 같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들의 괴로움을 풀어주기를’”이라고 주해하였다.⁸⁶⁾ 성군의 덕정으로 천하

80) 『唐六典』 卷24, 「諸衛」, ‘左·右驍衛’ 條, 620쪽.

81) 『唐律疏議』 卷2, 「名例律」2, ‘無官犯罪’ 條의 疏議, “依令, ‘內外官勅令攝他司事者, 皆爲檢校. 若比司, 即爲攝判.’”(中華書局, 43쪽).

82) 『唐六典』 卷24, 「諸衛」, ‘左·右領軍衛’ 條, 623쪽.

83) 『唐六典』 卷25, 「諸衛」, ‘左·右羽林軍’ 條, 643쪽.

84) 『新唐書』 卷39下, 「百官志」4下, 外官, ‘節度使’ 條, 1309쪽.

85) 『唐會要』 卷78, 「諸使」中, 節度使(每使管內軍附), “隴右節度使, 開元元年十二月, 鄜州都督(楊?)矩除隴右節度, 自此始有節度之號. 至十五年十二月, 除張志亮, 又兼經略·支度·營田等使, 已後爲定額”(1688쪽). 반면, 『新唐書』 卷67, 「方鎮表」4, ‘隴右’ 條에는 개원 5년(717) “置隴右節度, 亦曰隴西節度, 兼隴右道經略大使, 領秦·河·渭·鄜·蘭·臨·武·洮·岷·廓·疊·宕十二州, 治鄜州”(1863쪽)라고 한다.

86) 『史記』 卷24, 「樂書」, “昔者舜作五弦之琴, 以歌南風, [『集解』: … 王肅曰, ‘南風, 育養民之詩也. 其辭曰,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愠兮’.]”(1197쪽).

가 태평함을 비유한다. ② 당 장안성 흥경궁의 전각 명칭이다.⁸⁷⁾ 이후 궁궐의 범칭으로 전의되었는데, 일례로 (唐) 杜甫(712~770)의 〈조패 장군에게 드리는 단청 노래(丹青引贈曹將軍霸)〉에서는 “개원 연간 황제께서 늘 불러보시니, 은혜를 입어 누차 남훈전에 올랐네”라고 한다.⁸⁸⁾ 여기서 후자의 뜻으로 파악하여 낙사계가 황제의 은총을 입어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 [23] 장내에서는 중요한 직책에 발탁되었다[雄職詮於杖內] : ‘雄職’은 조정의 중요한 직책을 가리킨다. (宋) 洪邁(1123~1202)의 『容齋四筆』 「臺諫分職」에서는 御史中丞 溫造가 左補闕 李虞를 육보인 당대의 일화를 기술하며 御史臺 관원인 ‘臺官’과 더불어 ‘供奉官’을 ‘雄職’으로 표현하였다.⁸⁹⁾ 낙사계가 ‘杖內射生供奉’의 직위에 있었던 것과 연관된 표현으로 추정된다.
- [24] 창은 허공을 향하는 일이 없었고 화살은 하나만 죽이는 법이 없었으니[櫛無望空, 矢不單煞] : ‘櫛’은 ‘栝’, ‘柯’, ‘鉛’의 이체자로,⁹⁰⁾ ① 논밭을 갈 때 사용하던 농기구의 일종인 쟁기 혹은 보습, ② 낫 혹은 낫자루, ③ 병장기의 일종인 창을 의미하는데,⁹¹⁾ 여기서 ‘矢’와 대구를 이루며 ③ 창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낙사계의 무예를 칭송하는 수사적 표현이다.
- [25]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고 쇠약해져[形神異滅] : ‘形神’은 육체와 정신을 말한다. 『史記』 「太史公自序」의 ‘六家要指’에서는 도가에 대해 논하면서 “무릇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정신이요, (정신이) 의탁하는 바는 육체이다.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기진하고 육체를 너무 피로하게 하면 쇠약해지며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면 죽는다”라고 한다.⁹²⁾
- [26] 아득히 넓은 커다란 강[淼々景川] : ‘淼々’는 물이 끝없이 넓고 아득한 모양을 말한다. (唐) 王建(765~830)의 〈뱃사람의 노래(水夫謠)〉에서는 “역풍 불어 거슬러 오르는 물길 만곡만큼 무거운데, 다음 역은 까마득하고 강물은 끝도 없이 아득하구나”라고 한다.⁹³⁾ ‘景川’은 큰 강으로 해석한다.⁹⁴⁾
- [27] 어찌하여 장기간 연단을 ……하였음에도 영원히 구천에 묻히게 되었단 말인가[何其永■金斷, 長瘞玉泉] : ‘斷’은 ‘鼎’의 속자이다.⁹⁵⁾ ‘金斷’, 즉 ‘金鼎’은 도가에서 연금술로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던 쇠술 혹은 그렇게 조제한 연단을 말한다. (南朝) 江淹(444~505)의 〈별부(別賦)〉에는 “단약 만드는 부두막 지키며 세상사 돌아보지 않고 쇠술에서 연단하며 굳센 뜻을 지켰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唐) 李善(630~689)은 “鍊金鼎’은 연금술로 단약을 만드는 솥”이라고 주해하였다.⁹⁶⁾ 또한 ‘玉泉’은 구천, 황천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金鼎’과 ‘玉泉’은 대구를 이루는 어휘인데, (唐) 盧照隣의 〈명당의 배주부에게 곡하며(哭明堂裴主簿)〉에서는 “일전에 연단을 조제하더니 어찌하여 구천에 묻혀버렸는가”라고 하고,⁹⁷⁾ (唐) 李白(701~762)의 〈상산사호의 무덤을 지나며(過四皓墓)〉에서는 “옛날에 단약을 만들더니 언제 황천에 간혀버렸는가”라고 한다.⁹⁸⁾

87) 『唐六典』 卷7, 「尚書工部」, “興慶宮在皇城之東南, 東距外郭城東垣. … 宮之北曰躍龍門, 其內左曰芳苑門, 右曰麗苑門. 南走龍池, 曰瀛洲門, 門內曰南薰殿”(219쪽).

88) 『全唐詩』 卷220, 「丹青引贈曹將軍霸」(杜甫), “開元之中(一作年)常引見, 承恩數上南薰殿”(中華書局, 2322쪽).

89) 『容齋四筆』 卷14, 「臺諫分職」, “唐人朝制, 大率重諫官而薄御史, 中丞溫造道遇左補闕李虞, 恚不避, 捕從者答辱. 左拾遺舒元褒等建言, ‘故事, 供奉官惟宰相外無屈避, 造棄蔑典禮, 辱天子侍臣. 遺·補雖卑, 侍臣也, 中丞雖高, 法吏也. 侍臣見陵, 法吏自恣, 請得論罪.’ 乃詔臺官·供奉官共道路, 聽先後行, 相值則揖. 然則居此二雄職者, 在唐日了不相謀云”(801쪽).

90) 『正字通』 卷11, 「金部」, “鉛. 同栝. 『集韻』, ‘柯, 鎌柄也. 或作鉛·栝·櫛. 從義同’”(上海古籍出版社, 623쪽).

91) 『龍龕手鑑』 卷一上, 「金部」, “鉛, 音似, 鋌”(中華書局, 16쪽).

92)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喜生談, 談爲太史公. 太史公學天官於唐都, … 乃論六家之要指曰, ‘… 道家… 凡人所生者神也, 所託者形也. 神大用則竭, 形大勞則敝, 形神離則死. 死者不可復生, 離者不可復反, 故聖人重之. 由是觀之, 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 ’”(3287~3292쪽).

93) 『全唐詩』 卷298, 「水夫謠」(王建), “逆風上水萬斛重, 前驛迢迢後(一作波)淼淼”(3382쪽).

94) 『後漢書』 卷40下, 「班固傳」下, “信景鑠 [李賢注: 景, 大也]”(1363쪽).

95) 『龍龕手鑑』 卷一中, 「斤部」, 131쪽.

96) 『文選』 卷16, 「別賦」(江淹), “守丹竈而不顧, 鍊金鼎而方堅. [李善注: 鍊金鼎, 鍊金爲丹之鼎也.]”(中華書局, 238쪽).

97) 『全唐詩』 卷41, 「哭明堂裴主簿」(盧照隣), “始謂調金鼎, 如何掩玉泉. 黃公酒罈處, 青眼竹林前”(530쪽).

98) 『全唐詩』 卷181, 「過四皓墓」(李白), “荒涼千古跡, 蕪沒四墳連. 伊昔鍊金鼎, 何年閉玉泉”(1846쪽).

- [28] 경조부 만년현 평강방[京兆府萬年縣平康坊] : ‘平康坊’은 唐 長安城 朱雀門街의 동쪽 구역, 즉 街東의 중부에 위치한 방이다. 정확히 말하면 街東 第三街에서 북쪽으로부터 다섯 번째 행에 위치하고 있으며,⁹⁹⁾ 행정적으로는 京兆府 萬年縣 관할이었다.¹⁰⁰⁾ 동쪽으로는 ‘東市’와, 북쪽으로는 여관가가 밀집한 ‘崇仁坊’과 인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강방 내 동북부에는 대규모 유곽 지역인 ‘北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 → 평강방 → 송인방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당 중·후기 장안성 최대의 변화가를 형성한 곳이었다. 또한 고종 용삭 2년(662) 대명궁 건설, 현종 개원 2년(714) 흥경궁 건설 이후 장안의 정치 중심이 太極宮(西內) → 興慶宮(南內) → 大明宮(東內) 혹은 北內)으로 이동함에 따라 당 중·후기에는 이 ‘三大內’로 둘러싸인 가동 중·북부 지역으로의 관인 주거지 밀집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唐) 韋述(?~757)의 『兩京新記』에 의거하였다고 추정되는 (宋) 宋敏求(1019~1079)의 『長安志』에는 “동시 안에는 재화를 취급하는 동업상점가 220행이 있다. 사면에 점포가 들어서 있어 사방에서 들어온 진기한 물품들이 모두 집적된다. 만년현의 호구는 장안현보다 적다. 또한 공경 이하의 주거는 주작가동에 많은데, 저택은 공신이나 고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상인들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서시로 몰린다. … 이 외에도 번잡함은 동시가 서시보다 조금 못 미친다”¹⁰¹⁾고 하여 이미 8세기 전반부터 장안성 가동 중·북부 지역에 관인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전하고 있다.¹⁰²⁾ 낙사계가 평강방에서 사망하였던 것으로 볼 때 묘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저 역시 아마도 평강방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⁰³⁾ 이는 기본적으로 8세기 전반 이후 장안성 가동 중·북부를 중심으로 관인, 특히 고관들의 주거지가 집중 분포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29] 사자의 나이 32세였다[嗣子卅二] : 낙사계의 사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부분이다. 마지막 글자의 판독 여하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사자의 나이를 기재한 것으로 해석한다. 낙사계가 사망한 천보 7재(748) 5월 무렵에 이미 32세의 장성한 자식이 있었다면 그의 향년은 적어도 50대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산하면 낙사계는 대략 690년대 무렵에 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Ⅲ. 諾思計의 출신과 ‘扶餘靺鞨’

「낙사계묘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투항수령 낙사계는 이민족 집단의 수장이며 그 인명의 특징으로 볼 때 속말말갈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투항 이후 범양 노씨의 노정빈이라는 성명을 수여받았던 것으로 볼 때 투항 이후 유주(범양군)에 집단으로 안치되어 유주절도사 휘하의 번장과 번병으로 활약하였다는 점, 셋째 투항 이전 낙사계의 지위인 부여부대수령에서 부여부는 고구려의 육살급 대성으로서 속말말갈을 통할하던 부여성에서 연원한 것으로 고구려 멸망 이후 안동도호부 관하의 기미도독부로 편제된 부여주도독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고 부여부의 속말말갈은 이후 반당 항쟁을 거듭한 결과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에서 벗어나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추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한 상태에서 낙사계의 출신을 말갈사의 입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상술하였듯이, 낙사계는 고구려 부여성 인근에 거주한 속말말갈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 은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낙사계(노정빈)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문헌자료인 (唐) 樊衡의 「

99) 『唐兩京城坊考』 卷3, 「西京·外郭城」, 中華書局, 49~57쪽.

100) 『唐兩京城坊考』 卷2, 「西京·外郭城」, “萬年縣所領朱雀門街之東”(35쪽).

101) 『長安志』 卷8, 「唐京城」2, 「次南東市」條, “市內貨財二百二十行. 四面立邸, 四方珍奇, 皆所積集. 萬年縣戶口, 減于長安. 文(又?)公卿以下民(居?)止, 多在朱雀街東, 第宅所占動貴. 由是商賈所湊, 多歸西市. … 自此之外, 繁雜稍劣于西市矣”(118쪽).

102) 妹尾達彦, 「唐長安城の官人居住地」, 『東洋史研究』 55-2, 1996.

103) 李健超 增訂, 『增訂 唐兩京城坊考』(修訂版), 90쪽.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臣(즉, 幽州長史 薛楚玉)이 듣건대 …… 앞드려 생각건대 開元神武皇帝陛下(즉, 玄宗)께서 …… 신이 또한 侍御史 王審禮와 節度副使 烏知義 및 將士 등과 더불어 논의하였는데, 모두 그럴듯하여 의론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勅으로 신에게 토벌하여 쫓도록 하시니, 칙서에 준하여 당일 선포하자 三軍의 병사들이 떨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 ① - 1 節度副使·右羽林軍大將軍 烏知義가 바로 (安東)都護 裴旻에게 군대를 점검하고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松林에서 크게 사열하였습니다. 관내 용사가 1만 인이었고, …… 威神으로 독려하고 金鼓로 절제하니, ① - 2 이윽고 饒樂(都督)·歸義王 李詩, 衙官 可支, 刺史 伊覓暗燭祿 및 里水·扶餘·如者·達未盧·東胡 雜種 君長の 무리 가운데 한편으로 사람을 겨냥하고 다른 한편으로 말을 겨냥하면서 번개처럼 움직이고 곧은 소뿔처럼 공격할 수 있는 기병이 2만 5천여 기였습니다. …… 4월 23일 밤 하무를 물고 黃河(즉, 潢水)를 건너 동틀 무렵 松漠에 군대를 주둔시키자 漠庭(즉, 契丹의 牙庭)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격에 깜짝 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요동치는 듯하였습니다. 群兇들은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저하다가 스스로 기회를 놓쳐 버렸는데, 이에 三軍이 길게 가로로 늘어서 바람처럼 쓰러뜨리고 번개처럼 소탕하였습니다. ② - 1 烏知義는 都統으로 中權(즉, 中軍)을 주관하였으며, ② - 2 (安東都護) 裴旻이 3천 기를 거느리고 宣慰計會發兵馬使·內給事 薊思賢, 副使·內寺伯 李安達, 右領軍衛翊府郎將 李良玉, 軍前討擊副使·大將軍 鑰(鎧?)高 등과 더불어 先鋒이, ② - 3 中郎(將)·內供奉 李先壽가 馬步 5천을 거느리고 宣慰·內供奉·奚官局令 王尚客, 內供奉·中郎(將) 李延光, 長上折衝·內直 臣, 右驍衛左郎將 王抱一, 經略軍副使·左衛率府右郎將 李永定과 더불어 (左翼이), ② - 4 咸寧府軍(?) 李車蒙이 馬步 5천을 거느리고 宣慰使·內謁者監 劉元向, 供奉·長上折衝 康太和, 供奉·長上折衝 白延宗, 長上果毅 高處謀, 永寧府果毅 閻鼎臣, 副將 布折 등과 더불어 右翼이, ② - 5 中郎將 裴倩이 馬步 5천을 거느리고 攝副使·內供奉·左驍衛府郎將 抱忠, 英樂府折衝 李瓚 등과 더불어 [後]殿이 되었습니다. ② - 6 奚王 李詩는 內供奉·長上折衝·歸州刺史 韓仙松, 衙官 段志忠 등과 더불어 그 部屬을 통할하여 北郡의 虜掠을 관장하였으며, 長上折衝·兼儒州都督 烏承恩이 供奉·將軍 恩(?)盧延賓, 平盧軍攝副使·遂城縣(府?)折衝 桓善珍, 經略軍副使·政和府果毅 楊元亨, 軍前討擊副使·果毅 路順, 清夷軍子將·英樂府右果毅 樊懷璧 등과 더불어 사면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연기와 먼지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 삼가 戰將·攝副使·行軍虞候總管·檀州密雲府果毅都尉·賜紫金魚袋 車仙暉를 보내 露布를 받들어 아뢰게 하였으니, 그 노획한 首級과 器械는 별도로 기록하여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¹⁰⁴⁾

번형의 노포는 현종 개원 21년(733) 4월¹⁰⁵⁾ 幽州長史·幽州節度副大使 薛楚玉이 칙서를 받들어 節度副使 烏知義 및 安東都護 裴旻 등에게 명하여 거란의 衙官 可突于를 토벌하게 한 전투에서 승리한 전과를 현종에게 아뢰기 위해 작성된 공식 전승보고서이다. 인용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①은 당시 전투에 동원된 군대의 규모, ②는 당시 전투에 참전한 군대의 지휘 체계이다. 당시 전투에 동원된 군대는 節度副使 烏知義 및 安東都護 裴旻 등의 漢兵 1만 인과 饒樂(都督)·歸義王 李詩 등의

104) 『文苑英華』 卷647, 露布1,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樊衡), 3331~3332쪽. 『全唐文』 卷352,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樊衡), 3568~3571쪽.

105) 「爲幽州長史薛楚玉破契丹露布」(樊衡)의 시기에 대하여 岑仲勉은 몇 가지 고증을 바탕으로 설초옥의 후임으로 유주장사에 임명된 張守珪의 개원 22년(734) 거란과의 전투에 관한 기록이 와전된 것이라고 하였지만(岑仲勉, 『突厥集史』 上, 中華書局, 1958, 434~438쪽), 이 글에서는 速水大의 견해에 따라 개원 21년(733) 4월로 판단한다(速水大, 「開元22年の唐と契丹」, 『明大アヅア史論集』 18, 2014, 191~194쪽).

蕃兵 2만 5천여 기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원 20년(732) 信安王 李禕의 토벌로 인하여 그 부락 5천 帳을 거느리고 투항하면서 歸義王·歸義州都督에 임명된 奚의 酋長(饒樂都督) 李詩¹⁰⁶⁾의 번병 2만 5천여 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里水·扶餘·如者·違末盧·東胡 雜種 君長의 무리”이다. 이 구절은 『문원영화』에서는 “里水·扶餘·如者·違末盧·東胡雜種君長之群”, 『전당문』에서는 “里水·扶餘·者·違末盧·東胡雜種君長之郡”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부여와 동호 등의 단어로 볼 때 모두 특정 이 민족 족속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里水’는 黑水靺鞨, ‘如者’는 如者室韋,¹⁰⁷⁾ ‘違末盧’는 達末盧¹⁰⁸⁾가 잘못 전사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해 당시 突厥·渤海 등과 연합한 거란과의 전투에서 奚·黑水靺鞨·扶餘·如者室韋·達末盧·東胡 등의 민족이 당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전투에서 당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해·흑수말갈·여자실위·달말로 등은 여타 문헌에서 모두 당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부여와 동호는 당대에 이미 사라진 민족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동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당서』 「거란전」에서 “거란은 본래 동호의 종족이다”¹⁰⁹⁾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호의 후예인 거란을 동호로 칭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거란을 “山戎” 혹은 “林胡”로 칭한 사례¹¹⁰⁾나 ‘突厥’을 ‘匈奴’라 칭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할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中郎將·內供奉 李先壽가 이끈 좌익의 일원으로 참전한 “經略軍副使·左衛率府右郎將 李永定”이다.

공은 휘가 永定으로 隴西人이다. … 증조부 延은 황조의 本蕃大都督·兼赤山州刺史이다. 조부 大哥는 雲麾將軍·左鷹揚大將軍·兼玄州刺史이다. … 부친 仙禮는 寧遠將軍·玄州昌利府折衝이다. … 공은 즉 寧遠君의 장자이다. … 개원 5재(717) 부친의 寧遠將軍·右衛昌利府折衝을 습직하였다. … (개원) 21재(733) 節度使 薛超玉이 공을 차견하여 馬步를 거느리고 크게 쳐들어가게 하니, 浮級을 斬獲한 것이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忠武將軍·左衛率府中郎將에 制授되었고 아울러 백부의 靑山州刺史를 습직하였다.¹¹¹⁾

『이영정묘지』에서 그 증조부가 本蕃大都督이었다는 것에서 이영정의 출신이 이민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 증조부, 조부, 백부, 부친, 그리고 이영정 본인이 자사를 역임한 ‘赤山州’, ‘玄州’, ‘靑山州’ 등에서 볼 때 이영정은 거란 출신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적산주’, ‘현주’, ‘청산주’는 모두 거란의 부락으로 설치한 기미부주인데, 우선 ‘적산주’는 태종 정관 22년(648) 거란의 수령 窟哥가

106) 『舊唐書』 卷199下, 「奚傳」, “二十年, 信安王禕奉詔討叛奚, 奚酋長李詩·瑣高等以其部落五千帳來降, 詔封李詩為歸義王兼特進·左羽林軍大將軍同正, 仍充歸義州都督, 賜物十萬段, 移其部落於幽州界安置”(5356쪽). 『新唐書』 卷219, 「奚傳」, 6175쪽 略同.

107) 『舊唐書』 卷199下, 「室韋傳」, “室韋, 我唐有九部焉. 所謂嶺西室韋·山北室韋·黃頭室韋·大如者室韋·小如者室韋·婆蒿室韋·訥北室韋·駱駝室韋, 並在柳城郡之東北, 近者三千五百里, 遠者六千二百里”(5357쪽); 『新唐書』 卷219, 「室韋傳」, “分部凡二十餘. 曰嶺西部·山北部·黃頭部·彊部也·大如者部·小如者部·婆蒿部·訥北部·駱丹部, 悉處柳城東北, 近者三千, 遠六千里而贏”(6176쪽).

108) 『新唐書』 「流鬼傳」의 “達末婁”, 『冊府元龜』 「外臣部·褒異2」의 “達莫婁” 등이 보이는데, 모두 『魏書』 「豆莫婁傳」에 입전된 “豆莫婁”의 이칭이다. 그 밖에도 문헌자료에는 大莫盧, 大莫婁 등의 이칭이 확인되는데, 여기서의 違末盧는 마찬가지로 두막루의 이칭인 “達末盧”를 잘못 전사된 것이라 생각된다.

109) 『新唐書』 卷219下, 「契丹傳」, 6167쪽.

110) 개원 23년(735) 2월 契丹의 可突于를 제거한 幽州節度副大使 張守珪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건립된 「開元紀功德頌」의 “而東夏郡縣, 北隴山戎, 先是四十年, 侵軼數百里, 自茲氣奪, 數以病告”라든가 “昔我睿祖, 取句驪於拾遺, 今茲聖謀, 易林胡於反掌” 등에서 거란을 산융과 임호로 칭하고 있다. 조재우, 「唐開元二十三年(735)紀功德頌」, 이성재 편, 『고대 동아시아 석각자료 연구』 하, 동북아역사재단, 2018, 138~139쪽 및 144쪽.

111) 『唐故雲麾將軍·左威衛將軍·兼靑山州刺史·上柱國·隴西李公(永定)墓誌銘』, “公諱永定, 隴西人也. … 曾祖延, 皇朝本蕃大都督·兼赤山州刺史. 祖大哥, 雲麾將軍·左鷹揚大將軍·兼玄州刺史, … 父仙禮, 寧遠將軍·玄州昌利府折衝, … 公即寧遠君之長子也. … 以開元伍載, 襲父寧遠將軍·右衛昌利府折衝. … 貳拾壹載, 節度使薛超玉差公領馬步大入, 斬獲浮級, 不可勝書. 制授忠武將軍·左衛率府中郎將, 仍襲伯父靑山州刺史”(張寧 主編, 『隋唐五代墓誌彙編』 北京卷一, 194쪽; 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誌彙編續集』, 635~636쪽).

내속하면서 설치된 松漠都督府 예하 8기미주의 하나이고, ‘현주’는 정관 20년(646) 거란의 紇主 曲據 部落으로 설치된 기미주, ‘칭산주’는 예종 경운 원년(710) 현주를 분할하여 설치한 기미주이다.¹¹²⁾ 말하자면, 이영정 가문은 증조부 시기에 당에 내속한 후 4대에 걸쳐 기미주 장관을 습직한 ‘당대 거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형의 노포에 보이는 ‘동호’는 이영정 등 당에 내부한 거란인 집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호와 이영정의 대응관계에서 볼 때 부여 역시 당에 내부한 “공봉·장군 노정빈”, 즉 낙사계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의 공식 공문서인 노포에서 낙사계의 족속을 부여라고 명시한 것은 당시인들이 낙사계 집단을 부여라는 족속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술하였듯이 낙사계가 비록 부여부대수령이기는 하였지만, 부여성 지역에 거주한 속말말갈이었다는 점에서 낙사계 집단의 족속을 속말말갈이 아닌 부여로 인식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속말말갈과 관련한 문헌자료에 누차 ‘부여’와의 관련성이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하 관련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① - 1 隋의 『北蕃風俗記』에 이르길 “이전에 (수 문제) 개황 연간(581~600) 중 栗末靺鞨이 高麗와 싸워 이기지 못하자, 厥稽部 渠長 突地稽란 자가 忽使來部·窟突始部·悅稽蒙部·越羽部·步護賴部·破奚部·步步括利部 무릇 8부, 승병 수천 인을 거느리고 扶餘城 서북쪽에서 부락을 들어 關을 향해 내부하자 그들을 柳城에 거처시키니, 바로 燕郡의 북쪽이다.”라고 하였다.¹¹³⁾
- ① - 2 突(地)稽란 靺鞨의 渠長이다. 수 (양제) 대업 연간(605~618) 중 형 曷咄과 더불어 그 부락을 이끌고 營州에 내속하였다. 만돌이 죽자 대신 그 무리를 총괄하였는데, 遼西太守에 배수되고 扶餘侯에 봉해졌다.¹¹⁴⁾
- ② - 1 慎州. (고조) 무덕 연간(618~626) 초 설치하여 營州에 예속시켰는데, 涑沫靺鞨 烏素固部落를 거느렸다.¹¹⁵⁾
- ② - 2 黎州. (무척천) 재초 2년(690) 慎州를 분할하여 설치하였는데, 浮渝靺鞨 烏素固部落을 거처시키고 營州都督에 예속시켰다.¹¹⁶⁾

우선, ①은 수에 내부한 속말말갈 돌지계 집단에 관한 기록이다. ① - 1은 『太平寰宇記』에서 (隋) 『北蕃風俗記』¹¹⁷⁾를 인용한 것으로, 돌지계 집단의 내부 경위를 가장 상세히 전하는 기록이다. ① - 1에 의하면, 수 문제 개황 연간(581~600) 속말말갈의 궤계부 거장 돌지계가 고구려와의 군사적 충돌에서 패하여 휘하의 忽使來部·窟突始部·悅稽蒙部·越羽部·步護賴部·破奚部·步步括利部 등 8부의 승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수에 내속하자 문제가 유성군에 안치시켰다고 하는데, 이때 이 돌지계 집단의 출발지가 바로 고구려의 부여성 서북쪽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지계 집단은 6세기 말 무렵까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부여성 인근의 속말말갈 부락이었으나, 점차 증대되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본거지를 버리고 대규모 인원이 수에 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 2는 돌지계 집단이 내속한 후 수 양제 대업 연간(605~618) 돌지계가 遼西郡太守에 임명되고 扶餘

112)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鞨州, 1126~1127쪽. 조재우, 「唐 初期 東夷都護府의 설치와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33, 2014, 203~204쪽.

113) 『太平寰宇記』 卷71, 河北道 20, ‘燕州’條, 1436~1437쪽.

114)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朝貢3」, ‘고조 무덕 2년(619) 10월’條, “突稽者, 靺鞨之渠長也. 隋大業中, 與兄 曷咄, 率其部內屬於營州, 曷咄死代總其眾, 拜遼西太守, 封扶餘侯”(11227쪽).

115) 『舊唐書』 卷39, 「地理志」2, “慎州, 武德初置, 隸營州, 領涑沫靺鞨烏素固部落”(1522쪽).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鞨州, 1127쪽 略同.

116) 『舊唐書』 卷39, 「地理志」2, “黎州, 載初二年, 析慎州置, 處浮渝靺鞨烏素固部落, 隸營州都督”(1524쪽).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靺鞨州, 1127쪽 略同.

117) 『北蕃風俗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지만 『隋書』 卷33, 「經籍志」2, 史, 地理記, 986쪽에는 『北荒風俗記』(2卷), 『諸蕃風俗記』(2卷)의 서명이 확인된다.

侯에 봉해졌다는 기록인데,¹¹⁸⁾ 양제가 돌지계를 ‘부여후’에 봉한 것은 그 집단이 본래 부여성 지역에 거주하던 세력이었다는 점에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②는 당에 내부한 속말말갈 오소고 부락으로 설치한 영주도독부 예하 기미주에 관한 기록이다.¹¹⁹⁾ ②-1은 고조 무덕 연간(618~626) 초 오소고 부락으로 慎州를 설치하였다는 기록, ②-2는 무측천 재초 원년(690) 기존의 신주를 분할하여 새로이 黎州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런데 ②-1에서는 오소고 부락을 涑洙靺鞨이라고 하였던 데 반해 ②-2는 동일한 오소고 부락을 浮渝靺鞨이라고 하고 있다. 후자의 ‘浮渝靺鞨’에서 ‘浮渝’의 경우 ‘扶餘’의 다른 음차임이 분명하기 때문에¹²⁰⁾ 이때의 부여말갈은 곧 부여말갈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속말말갈에 관한 기록에서 ‘부여’와의 연관성이 거듭 확인되는데, 특히 속말말갈 오소고 부락을 부여말갈(부여말갈)로 표현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여말갈에 대하여 혹자는 부여말갈이 속말말갈의 이칭이거나 혹은 속말말갈 가운데 부여성 지역의 세력을 특별히 부여말갈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속말말갈의 전신이 바로 부여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¹⁾ 그러나 속말말갈에 부여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속말말갈 전체를 부여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¹²²⁾

그렇다면, 속말말갈 오소고 부락과 낙사계 집단은 왜 속말말갈이 아닌 부여말갈(부여말갈)=부여로 불리웠던 것일까? 주목되는 것은 부여말갈 혹은 부여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시기가 모두 고구려가 멸망한 후인 7세기 후반 이후라는 점인데, 혹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의 직간접적인 지배 혹은 영향력 아래 있었던 말갈제부에 미친 파장으로 인하여 기존 말갈제부가 재편되면서 속말말갈의 일부 세력이 새로이 부여말갈로 불리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말갈전」에 보이는 아래의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白山部는 평소 高麗에 부용하였는데, (당군이) 평양을 수복한 후 부락의 무리가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갔다. 汨咄·安居骨·號室等部 역시 因高麗가 격파된 후 분산되어 미약해짐에 따라 이후 들리지 않게 되었고, 비록 남겨진 사람이 있어도 모두 渤海의 編戶가 되었다.¹²³⁾

『구당서』 「말갈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수서』 「말갈전」에 등장하는 소위 ‘말갈7부’ 가운데 백산말갈, 백돌말갈, 안거골말갈, 호실말갈 등의 4부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외에 말갈7부 가운데 흑수말갈과 불열말갈은 8세기 전반 발해의 건국 이후로도 당에 빈번히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존속하였음이 확인된다. 속말말갈의 경우 고구려의 멸망 이후 속말말갈의 활동을 전하는 뚜렷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백산말갈, 백돌말갈, 안거골말갈, 호실말갈 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반면 고구려의 통할 아래 있던 속말말갈은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강제 사민 정책으로 인하여 영주 지역으로 천사되었다가 이후 거란 이진충의 반당 투쟁 과정에서 동쪽으로

118)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朝貢3」, ‘고조 무덕 2년(619) 10월’條에 돌지계의 형으로 등장하는 湄咄의 성격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郎, 「隋唐に歸屬せる粟末靺鞨人突地稽一黨 (附設 一唐に歸屬せる烏素固部)」(原刊: 『史淵』 45, 1950),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 295~300쪽.

119) 『舊唐書』 卷199下, 「室韋傳」, 5357쪽 및 『新唐書』 卷219, 「室韋傳」, 6176~6177쪽에는 실위의 최서단에 회홀과 접경하는 지역에 烏素固部落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俱輪泊의 서남쪽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俱輪泊은 지금의 중국 內蒙古自治區의 呼倫湖에 비정되기 때문에 이때의 烏素固部落은 속말말갈의 오소고 부락과는 별개의 세력으로 판단된다.

120) 『宋史』 卷491, 「渤海國傳」, 14130쪽에서도 발해의 ‘扶餘府’를 ‘浮渝府’로 표기한 사례가 확인된다.

121) 日野開三郎, 「靺鞨七部の住域について」,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 32~34쪽; 同, 「靺鞨七部の前信とその屬種」(原刊: 『史淵』 38·39, 1948), 111~113쪽; 同, 「粟末靺鞨の對外關係」(原刊: 『史淵』 41~44, 1949~1950), 221~233쪽.

122) 송기호, 「粟末靺鞨의 원류와 扶餘系 집단」,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23) 『舊唐書』 卷199下, 「靺鞨傳」, 5359쪽.

도주하여 발해를 건국한 발해말갈(대조영 집단)과 원래의 거주지에서 안동도호부의 지배 아래 있다가 반당 투쟁을 거듭하며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부여말갈(낙사계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것은 아닐까?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낙사계묘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래 발해인으로 여겨진 낙사계의 출신을 말갈사, 구체적으로 속말말갈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하 이 글의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투항 수령 낙사계는 이민족 집단의 수장으로 그 인명의 특징으로 볼 때 속말말갈 계통일 것이다.

둘째, 당에 투항한 이후 현종으로부터 범양 노씨에 사성된 것으로 볼 때 낙사계 집단은 범양군(유주)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유주절도사 휘하에서 번장과 번병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셋째, 부여부대수령의 부여부는 발해의 부여부가 아니라 고구려의 부여성에서 연원한 안동도호부 관하 기미도독부인 부여주도독부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고, 부여부의 속말말갈 집단은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반당 투쟁을 거듭하여 7세기 후반 무렵에는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넷째, 당대인들은 낙사계 집단의 족속을 부여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때의 부여는 곧 부여말갈을 뜻한다.

다섯째, 부여말갈은 발해말갈과 더불어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직간접적인 지배 아래 있었던 속말말갈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출현한 명칭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漢) 司馬遷 撰, (宋) 裴駟 集解, (唐) 司馬貞 索隱, (唐) 張守節 正義,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 (劉宋)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 (北齊) 魏收 撰, 『魏書』, 北京: 中華書局, 1974.
- (唐) 魏徵·令狐德棻 撰, 『隋書』, 北京: 中華書局, 1973.
- (唐) 李延壽 撰, 『北史』, 北京: 中華書局, 1974.
-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元) 脫脫 等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 (宋) 司馬光 編著, (元) 胡三省 音註,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56.
- (唐) 長孫無忌 等撰, 『唐律疏議』(劉俊文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3.
- (唐) 李林甫 等撰, 『唐六典』(陳仲夫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92.
- (唐) 杜佑 撰, 『通典』, 北京: 中華書局, 1988.
- (宋) 王溥 撰, 『唐會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 (唐) 李泰 等著, 『括地志輯校』(賀次君 輯校), 北京: 中華書局, 1980.
- (唐) 李吉甫 撰, 『元和郡縣圖志』(賀次君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3.
- (宋) 樂史 撰, 『太平寰宇記』(王文楚 等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7.
- (宋) 宋敏求 纂修, 『長安志』(中華書局編輯部 編, 『宋元方志叢刊』 1, 中華書局, 1990).
- (清) 徐松 撰, (清) 張穆 校補, 『唐兩京城坊考』(方巖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5.
- (宋) 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 (宋) 王欽若 等 編纂, 『冊府元龜』(周勛初 等 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清) 董誥 等編,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 (清)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梁) 蕭統 編, (唐) 李善 注, 『文選』, 北京: 中華書局, 1977.
- (唐) 劉知幾 撰, (清) 浦起龍 通釋, 『史通通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唐) 李德裕 撰, 『李德裕文集校箋』(傅璇琮·周建國 校箋), 北京: 中華書局, 2018.
- (宋) 洪邁 撰, 『容齋隨筆』(孔凡禮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05.
- (遼) 釋行均 著, 『龍龕手鑑』(叢書集成初編 1069), 北京: 中華書局, 1991.
- (明) 張自烈 撰, 『正字通』(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234~235, 經部·小學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日本) 菅野真道, 『續日本紀』(國史大系編修會 編, 新訂增補國史大系 2, 東京: 吉川弘文館, 1979).
- (高麗) 金富軾, 『三國史記』(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상·하, 서울: 을유문화사, 1996).

2. 자료집

- 이성제 편, 『고대 동아시아 석각자료 연구』 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이우태 편, 『韓國金石文集成』 16(新羅 金文 및 渤海 金石文),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4.
- 곽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역주,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권덕영,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 자료편, 역주편,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王仁波 主編, 『隋唐五代墓誌匯編』 陝西卷 — 4, 天津 : 天津古籍出版社, 1991.

張 寧 主編, 『隋唐五代墓誌彙編』 北京卷 — 1·2, 天津 : 天津古籍出版社, 1991.

陳長安 主編, 『隋唐五代墓誌彙編』 洛陽卷 — 10, 天津 : 天津古籍出版社, 1991.

吳 鋼 主編, 『全唐文補遺』 5·8, 西安 : 三秦出版社, 1998·2005.

周紹良 主編, 『全唐文新編』 22, 長春 : 吉林文史出版社, 2000.

_____ 主編, 『唐代墓誌彙編』 下,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92.

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1.

趙君平·趙文成 編, 『河洛墓刻拾零』 上, 北京 :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氣賀澤保規 編, 『新編 · 唐代墓誌所在綜合目錄』, 東京 : 明治大學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 2017.

2. 저서

김육불, 『신편 발해국지장편』 상·중·하(발해사연구회 역), 서울 : 신서원, 2008(1934).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서울 : 사계절, 1999.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서울 : 신서원, 1999.

최진열, 『발해 국호 연구 — 당조가 인정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목인과 부인』,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李健超 增訂, 『增訂 唐兩京城坊考』(修訂版), 西安 : 三秦出版社, 2006.

張 沛, 『唐折衝府彙考』, 西安 : 三秦出版社, 2003.

岑仲勉, 『突厥集史』 上, 北京 : 中華書局, 1958.

石見清裕,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東京 : 汲古書院, 1998.

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東北アジア民族史 — 中), 東京 : 三一書房, 1991.

3. 논문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사학연구』 97, 2010.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2020.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扶餘城 圈域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김영관,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신라사학보』 10, 2007.

_____, 「渤海人 諾思計 墓誌銘에 대한 고찰」, 『목간과 문자』 7, 2009.

송기호, 「粟末靺鞨의 원류와 扶餘系 집단」,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쓰다 소키치, 「安東都護府考」(정병준 역), 『고구려발해연구』 42, 2012.

에.뱌. 샤브꾸노프, 「연해주에서 출토된 발해의 청동제 符節」(송기호 역), 『한국고대사논총』 3,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이효형, 「동아시아 境界人으로서의 渤海人과 渤海遺民」, 『동아시아고대학』 52, 2018.

- 장병진, 「당의 고구려 고지(故地) 지배방식과 유민(遺民)의 대응」, 『역사와 현실』 101, 2016.
- 조재우, 「唐 初期 東夷都護府의 설치와 그 의미」, 『중국고중세사연구』 33, 2014.
- _____, 「당대 군공규정과 수훈절차 — 勳告와 軍功公驗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52, 2020.
- 한준수, 「在唐 渤海人の 삶과 시대 인식」, 『한국고대사탐구』 35, 2020.
- 董延壽·趙振華, 「洛陽·魯山·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志探索」, 趙振華, 『洛陽古代銘刻文獻研究』, 西安:三秦出版社, 2009(原刊:『東北史地』2007-2).
- 拜根興, 「入鄉隨俗:墓志所載入唐百濟遺民的生活軌迹 — 兼論百濟遺民遺迹」, 『陝西師範大學學報』 2009-4.
- 徐自強, 「《張建章墓志》考」, 『文獻』 1979-2.
- 李美子, 「渤海の遼東地域の領有問題をめぐって — 拂涅·越喜·鐵利等靺鞨の故地と關聯して」, 『史淵』 140, 2003.
- 妹尾達彦, 「唐長安城の官人居住地」, 『東洋史研究』 55-2, 1996.
- 愛宕元, 「唐代范陽盧氏研究 — 婚姻關係を中心に」, 川勝義雄·礪波護 共編, 『中國貴族制社會の研究』, 京都: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7.
- 和田清, 「渤海國地理考」, 『東亞史研究』 1(滿洲篇), 東京:東洋文庫, 1955.
- 竹田龍兒, 「唐代士人の郡望について」, 『史學』 24-4, 1951.
- 濱田耕策, 「渤海國の京府州郡縣制の整備と首領の動向 — 新羅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 『백산학보』 52, 1999.
- 速水大, 「開元22年の唐と契丹」, 『明大アヅア史論集』 18, 2014.
- 古畑徹, 「唐代「首領」語義考 — 中國正史の用例を中心に」, 『東北大學東洋史論集』 11, 2007.

토론문

권은주(동북아역사재단)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 「諾思計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은주(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출토 묘지명을 통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고질적인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고구려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백제, 신라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발해사와 연결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특히 ‘낙사계’는 부여 혹은 백제인으로 파악되다가, 발해인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발표자는 낙사계의 투항전 이력인 ‘부여부 대수령’만으로는 발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글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도 ‘낙사계’와 관련한 논문의 토론과 심사에서 ‘부여부 대수령’ 등 출자 표기와 관직 표현 방식 등에서 발해국의 부여부 지역 출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와 기본 시각을 같이 하여 이 글의 논지에 대한 반론은 크게 없다. 도리어 발표자가 매우 정치하게 낙사계 묘지를 분석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자가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부여부’의 실체 문제이다. 발표자는 부여부를 안동도호부 예하에 설치되었던 기미부로 보고 있다. 가능성은 있으나,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자는 반당 항쟁을 거듭하여 안동도호부의 기미지배에서 벗어나 자치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렇다면 돌지계 집안처럼 ‘부유(부여)말갈’, ‘부여귀종’으로 표시해도 무방할 것인데, 굳이 출자를 안동도호부의 기미부인 ‘부여부’로 표시하였을지 의문이다. 748년 사망 시점에서 발해 부여부에 가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2. 발표자가 본 바와 같이 토론자도 낙사계가 고구려 부여성 인근에 거주한 속말말갈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발해 건국 이후 투항했을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낙사계는 발표자가 추정한 것과 같이 690년대(빠르면 680년대) 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표자는 낙사계가 당에 투항한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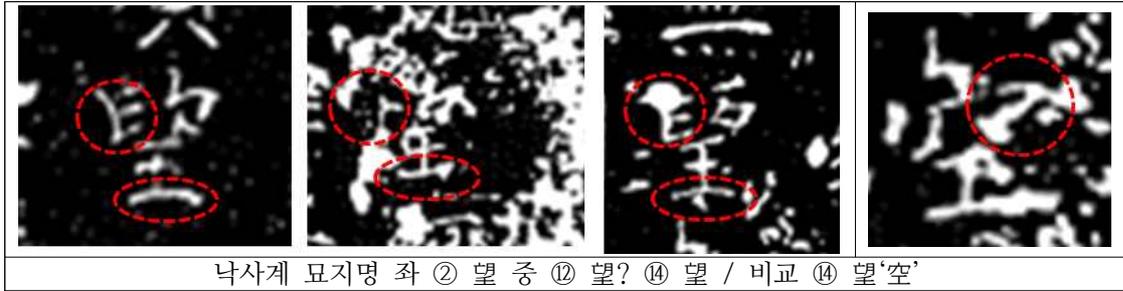
3. 발표자는 郡望 표시에 대해 현재 관직이 ‘范陽’인 경우로 이해했다.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 뒤 ‘부여부 대수령’을 낙사계의 지위로 이해하고 있다. ‘望范陽郡, 扶餘府 大首領’까지를 출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① 묘지명의 제목은 ‘투항수령’이다. ② 처음으로 기록된 ‘유격장군 수우령군위 경조부 문학부 과의’는 8세기 전반 대체로 투항 또는 내조하는 이민족 수령층이 받던 것이라서 대수령보다 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8쪽 『당육전』의 흥려시 전객서 조의 주석을 근거로 대수령인 제4등의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도 격이 떨어진다. 또한 『당육전』은 722년 편수가 시작되어 738~739년 완료, 현종에게 진상되었다. 낙사계가 변형의 노포에 등장하는 것은 733년(발표자 732년 활약 추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720년대에 당에 투항해야 한다. 당시 당은 수십년 동안 북방민족과 군사충돌을 하며 투항 변장에게 규정 이상의 우대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낙사계의 초기 신분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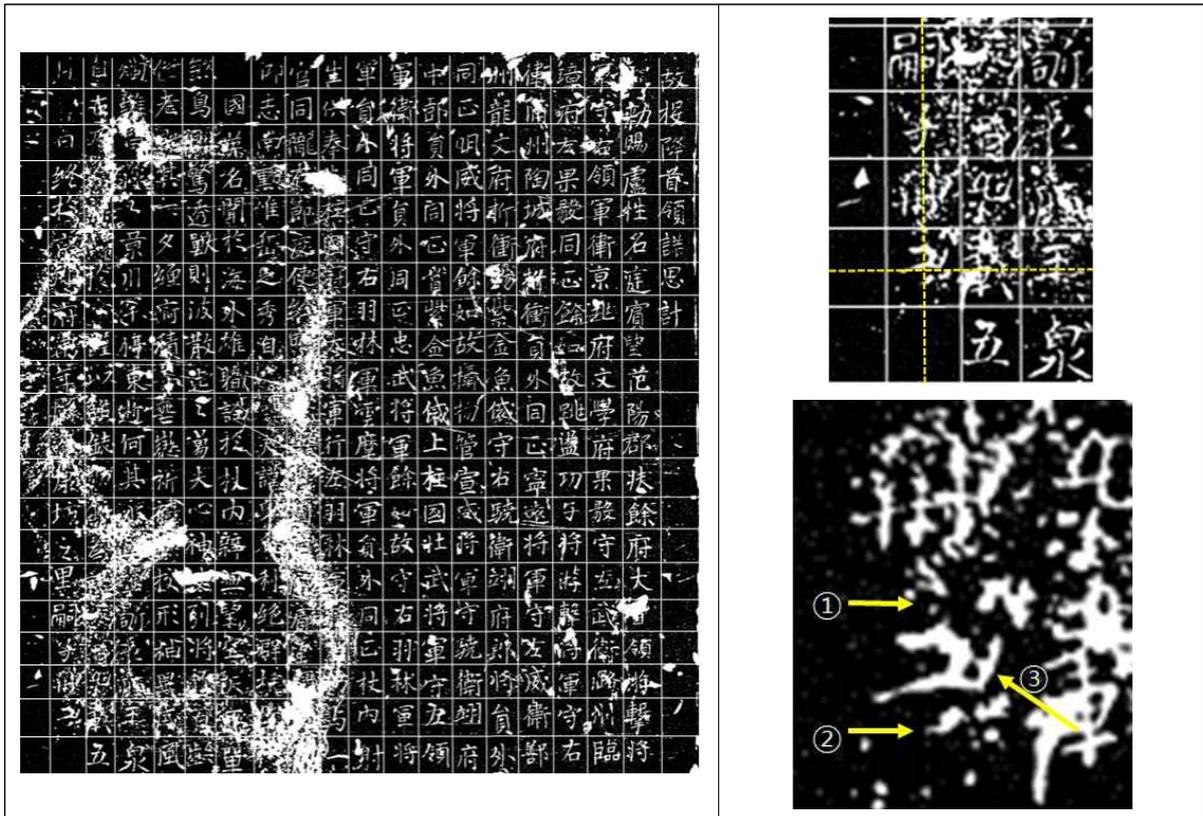
4. 더불어 (19쪽부터) ‘변형의 노포’에 ‘扶餘’ 등 잡종 군장 무리 기병 2만5천의 구절을 들어, 마치 낙사계가 속말말갈 세력을 독자적으로 거느렸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노포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민

죽 번명과 정식군대의 지휘관을 분리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5-1. 판독 문제이다. 12번째 줄 ‘盧庭賓望「稱」 ~’에서 ‘望’자로 해독한 글자는 같은 묘지명의 글자와 필체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아랫부분 ‘王’자의 마지막 획이고, 왼쪽 윗부분 ‘亡’도 ②와 ⑭의 사례와는 달리 밖으로 휘어진 모양이 아닌 거의 수직으로 보이며, 오른쪽으로 뺀 획도 중간만 확인되고 위아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른쪽의 ‘月’부분도 차이가 있다.(아래 비교 글자 참조) 얼핏보기에 ‘望’에 더 가까워 보인다. ⑭의 ‘望’이 다른 글자일 경우 그 다음 추정 글자인 ‘稱’이나 ‘稱范陽’은 틀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른 글자일 가능성이나 좀 더 판독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다.



5-2. 낙사계 묘지명은 글자의 행열을 대체로 잘 맞추어 새겼다. 그런데 마지막 ‘嗣子○○’의 해석에서 의문이 든다. (일반적인 묘지명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고 나이 몇 세였다. 어디에 장사를 지냈다. 예에 맞다’ 등으로 서술된다. 嗣子の 정보는 그 앞에 기술되기도 하고 뒤에 기술되기도 한다. 이 묘지명은 일반적인 형식에서 어긋나며, 마지막 권력이 농우절도사경략인데도 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마도 사망 시점에서는 권력에서 배제되거나 가세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첫 번째 ‘○’은 ‘州’보다는 확실히 ‘卅’, ‘卌’, ‘卍’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은 ‘立’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로 뺀 획의 모양으로 보아 ‘二’로 보기에 어려울 보인다. 화살표 ①②③을 획으로 볼 수 없을지? 발표자가 판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목간학회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6. 붙임(시간이 되면). 이 묘지명에 행수법의 오각(또는 衍: 무슨 의미인지?)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 참고로 무덕력에 행수겸 자 등 규칙을 규정하였으나, 고종 때 문란해졌고 정관령에 행수법을 정비했다고 함. 그러나 현종대에 가서도 원칙과 상관없이 겸첩은 어사대관 등 고위직 위상을 표시하였으나 사직과 외임관 등 공로 인정 용도로 많이 쓰이며 위상 격하. 검교도 군벌, 부마, 외국 군주에게(바이두 검색) ... 변경 지구 무덤 출토 허리띠 장식 연구 등을 보면, 직위 규정과 다른 양상 확인. 낙사계도의 사례도 고려 가능.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

최연식(동국대학교)

〈목차〉

머리말

1. 보림사 비로자나불 명문의 재검토
2.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명문의 재검토
3. 삼화사 노사나불 명문의 재검토

맺음말

머리말

신라 하대에는 이전에 없던 철불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들 철불은 신라 하대의 사회·문화·사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역사학과 미술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의 철불에 관한 자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철불의 출현 배경과 제작 주체, 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제한적으로 밖에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신라 하대 철불의 제작 배경과 제작 의도 등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는 철불 자체에 새겨져 있는 명문들이다. 현재 전남 장흥의 보림사 비로자나불과 경기도 철원의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강원도 삼척의 삼화사 노사나불 등 3점의 신라 철불에서¹⁾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명문에 대해서는 역사학계는 물론 미술사, 국어학, 서예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명문에 적지 않은 마멸과 훼손이 발생하여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3점의 명문 모두 온전하게 판독·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이 3점의 명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점차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문장의 전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일부 판독과 해석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의적이거나 무리한 의견들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라 하대 철불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신라하대 철불 명문의 판독과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문 자체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명문 문장에 대해 문법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및 사용된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 등도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해당 명문들은 불교 신자들에 의해 신앙 행위의 일환으로 조성된 철불의 조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불교 신앙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1) 삼화사 철불의 명문에서 불상의 존호를 ‘盧舍那佛’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보림사 철불과 도피안사 철불은 명문에서 불상의 尊號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림사보조선사탑비〉에서는 철불의 조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盧舍那佛을 조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보림사 철불이나 도피안사 철불도 조성 당시에 盧舍那佛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智拳印을 하고 있는 보림사와 도피안사의 철불을 비로자나불로 부르고 있고, 삼화사 철불은 처음 소개될 때부터 노사나불로 알려졌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학계의 관행에 따라 보림사 철불과 도피안사 철불은 비로자나불, 삼화사 철불은 노사나불로 부른다.

충분하지 못하여 글자들을 잘못 판독하거나 용어들을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해석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신라시대 철불들의 명문에 대해 검토하면서 기존 판독과 해석에는 적지 않은 위화감을 느끼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판독과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다행히 근래에 다양한 탁본 자료집과 금석문 사이트 등을 통하여, 그리고 가까운 연구자의 도움으로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보다 양질의 탁본과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판독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²⁾ 물론 완전히 마멸되어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적지 않아 명문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현재 읽을 수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신라시대 철불 명문 3점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보고하고자 한다. 판독과 해석에 있어서는 특히 불교의 용어와 개념에 주의하면서 명문 작자의 본래 의도를 가능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았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정을 기대해 본다.

1. 보림사 비로자나불 명문의 재검토

명문을 가지고 있는 3점의 철불 중 가장 먼저 조성된 보림사 비로자나불상의 명문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글자 대부분을 온전하게 읽을 수 있으며, 판독과 해석에도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마지막 부분의 몇 글자에 대한 판독과 해석에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보이고 있다. 현재 본 명문에 대한 일반적인 판독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³⁾

<기존 판독>

	VIII	VII	VI	V	IV	III	II	I
①	覺	廿	宗	七	大	情	後	當
②	勞	二	聞	日	中	王	一	成
③	困	日	奏	武	十	卽	千	佛
④	也	勅		州	二	位	八	時
⑤		下	情	長	年	第	百	釋
⑥		令		沙	戊	三	八	迦
⑦		卍	王	副	寅	年	年	如
⑧		躬	ㄴ	官	七	也	耳	來
⑨		作	八	金	月			入
⑩		不	月	遂	十		時	滅

<기존 해석>

當成佛時，釋迦如來入滅後一千八百八年耳。時情王卽位第三年也。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七日，武州長沙副官金遂宗聞奏，情王八月廿二日勅下令，卍躬作，不覺勞困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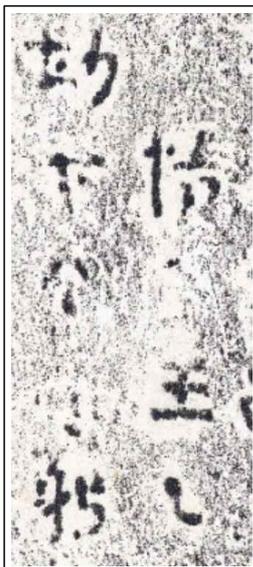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여래가 입멸한 후 1천 8백 8년이다. 이때는 정왕(情王, 현안왕)이 즉위

2) 명문의 판독에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기획전 도록인 『신라금석문탁본전』(2008년)과 한국국학진흥원·청명문화재단에서 간행한 『한국금석문집성(14)』(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금석문’)에 게시되어 있는 탁본 사진 등과 아울러 단국대 엄기표 교수가 제공한 명문들의 실물 및 탁본 사진을 이용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자료집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획, 편집한 연구자들과 엄기표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3) 판독과 해석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금석문)의 판독과 번역을 토대로 일부 보완하였다.

한 지 3년째(859) 되는 해이다. 대중(大中) 12년 무인년(858) 7월 17일에 무주(武州) 장사현(長沙縣)의 부관(副官) 김수종(金遂宗)이 아뢰니, 정왕이 8월 22일에 칙령을 내렸는데 ㉔ 몸소 만 들고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 판독과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VI-⑥과 ⑧, 그리고 VII-⑥·⑦·⑨의 다섯 글자에 관한 것이다. VI-⑥과 ⑧은 모두 ‘㉔’과 비슷한 형태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앞에 나온 글자와 같은 글자를 생략함을 표시하는 기호로 중문부(重文符) 혹은 첩자부(疊字符)라고 불린다. VI-⑥의 경우 탁본이나 사진에는 윗부분 일부만 나타나고 있어 일부 판독에서는 VI-④와 같이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빈칸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지만, 이곳은 내용상 글자를 새기지 않고 빈칸으로 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즉 VI-④는 바로 뒤에 나오는 ‘情王’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글자를 띄우는 공격(空隔)이지만, VI-⑥은 공격이 될 이유가 없다. 탁본이나 사진으로 볼 때 흐릿하지만 VI-⑧의 ‘㉔’ 앞부분과 동일한 모양이 보이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㉔’로 판독되어야 하는 곳이다.



VI·VII-④~⑧ 탁본

VI-⑥과 ⑧의 ‘㉔’는 앞의 글자와 같은 글자를 생략하는 기호이지만, 각기 바로 앞의 글자를 생략한다는 부호가 아니라 VI-⑥과 ⑧이 서로 연결되어 ‘情王’이라는 두 글자를 생략함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VI-⑤~⑧은 ‘情王情王’으로 읽히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중복될 때 한자와 중문부 혹은 첩자부를 한 글자씩 교차하여 표시하는 방식은 고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사용된 형식으로,⁴⁾ 신라와 고려시대의 필사 자료들에 종종 보이고 있다.⁵⁾

한편 VII-⑥과 ⑦은 기존에 ‘㉔’ 혹은 ‘遂宗’으로 판독되었는데, 모두 적절한 글자로 보기 힘들다. 글자의 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통하지 않는다. VII-⑥은 사진과 같이 위쪽 부분의 모습 일부가 확인되는데 ‘㉔’이나 ‘遂’의 상반부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VII-⑦은 마멸이 매우 심하여 어떤 글자인지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VII-⑥과 ⑦의 바로 앞에는 ‘勅下’ 즉 왕이 명령을 내려 무엇을 내려 주었다는 표현이 오고 있으므로, VII-⑥과 ⑦에는 내려준 대상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㉔’이나 ‘遂宗’은 그에 적합하지 않다. ‘遂宗’으로 읽은 경우에는 앞의 문장이 ‘勅下’에서 끝나고, VII-⑥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고 보아서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遂宗’으로 판독한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勅下’ 다음에 그 목적어가 오지 않으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VII-⑥과 ⑦, 혹은 적어도 VII-⑥은 ‘勅下’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글자가 와야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림사보조선사탑비>에는 당시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하면 VII-⑥과 ⑦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제(宣帝) 14년(859) 2월에 부수(副守) 김언경(金彦卿)이 삼가 제자의 예를 행하여 일찍이 문하의 빈객이 되었다. 녹봉(淸俸)을 덜고 사재(私財)를 내어 철 2천 5백근을 사서 노사나불(盧舍那佛) 1구를 주조하여 선사가 머무시는 사찰을 장엄하였다. (국왕은) 망수택(望水宅), 이남택(里南宅) 등에서 함께 금 1백 6십 분(分)과 조(租) 2천곡(斛)을 내어 장엄 공덕(功德)을 보충하게 하고, 사찰은 선교성(宣敎省)에 속하게 하였다.⁶⁾

4)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두 글자 이상의 단어가 중복될 때에 중국과 한국에서처럼 한자와 중문부 혹은 첩자부를 한 글자씩 교차하여 적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의 문헌을 필사한 경우에만 발견되고, 일반적으로는 일단 해당 단어를 한자로 적은 후 같은 수의 重文符 혹은 疊字符를 연속하여 적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도즈 아야노(道津綾乃), 2017, 「『華嚴經問答』のテキスト研究」, 『한국사상사학』 57, pp.348-351 참조)

5) 해인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발견된 신라 혹은 고려시대의 필사문서의 경우 ‘退根時不退果, 退果時定退根’을 ‘退根時不退果, 退果時定退根’으로 적고 있다. (최연식, 2014,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복장(腹藏) 백지목서사본의 기초적 검토」, 『한국사상사학』 48, p.19의 판독문 참조)

6) “宣帝十四年仲春, 副守金彦卿, 夙陳弟子之禮, 嘗爲入室之賓. 減淸俸, 出私財, 市鐵二千五百斤, 鑄盧舍那佛一

비문에 나오는 김언경(金彦卿)은 철불 명문의 김수종과 같은 인물로, 비문에서는 김언경(=김수종)이 철불을 조성하려 하자 국왕이 금과 곡식을 내어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비문에서는 이때 국왕 행위를 ‘敎下…’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철불 명문의 ‘勅下…’와 상응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불 명문의 ‘勅下…’ 다음에는 비문의 ‘敎下…’ 다음과 상응하는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비문에서 국왕이 금과 곡식을 내어 도와주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Ⅶ-⑥과 ⑦은 그에 대응하는 내용, 즉 도와준 물자에 관한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즉 내려준 물품의 종류와 양 등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현재 Ⅶ-⑥과 ⑦은 마멸이 심해 어떤 글자인지 읽기 어렵다. 글자의 흔적을 보면 Ⅶ-⑥은 ‘金’이나 ‘半’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八十’과 같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정확한 판독을 하기 어렵다. 일단은 국왕이 내려준 물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추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 판독은 보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Ⅶ-⑨의 글자는 기존에 辨과 作의 판독이 있었는데, 탁본 사진 왼쪽 부분의 모습으로 볼 때 ‘作’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Ⅶ-⑧·⑨는 ‘躬作’이 아니라 ‘躬辨’이 되며 의미도 ‘몸소 일하다’가 아니라 ‘몸소 마련하다’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Ⅶ-⑥·⑦을 국왕이 내려준 물건이나 도와준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躬辨’의 주체도 국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왕이 철불 조성 작업에 대해 듣고서 물자를 내려주어 비용을 ‘몸소 마련해주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Ⅶ-⑧·⑨를 ‘躬作’이 아니라 ‘躬辨’으로 읽게 되면 그 뒤의 ‘不覺勞困’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해석하였지만 불상 조성이라는 신성한 일의 경과에 대해 서술하면서 개인의 육체적 피곤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국내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많은 조상 명문들에도 이러한 표현은 보기 힘들다. 기존의 해석은 바로 앞의 단어를 ‘躬作’으로 판독한 것에 영향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조성 사업 전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곤란함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즉, 개인적 차원의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불상 조성 사업 전체와 관련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재정적 문제를 포함한 보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상 조성 명문의 표현으로서 보다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국왕이 물자를 내려 주어 비용을 몸소 마련해주었으므로 조성 작업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Ⅶ-⑨ 탁본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보림사 비로자나불상 명문에 대해 새로운 판독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 판독〉

	Ⅷ	Ⅶ	Ⅵ	Ⅴ	Ⅳ	Ⅲ	Ⅱ	Ⅰ
①	覺	廿	宗	七	大	情	後	當
②	勞	二	聞	日	中	王	一	成
③	困	日	奏	武	十	卽	千	佛
④	也	勅		州	二	位	八	時
⑤		下	情	長	年	第	百	釋
⑥		𠄎	ㄱ	沙	戊	三	八	迦
⑦		𠄎	王	副	寅	年	年	如
⑧		躬	ㄱ	官	七	也	耳	來
⑨		辨	八	金	月			入
⑩		不	月	遂	十		時	滅

軀、以莊禪師所居梵宇。敎下望水里南等宅，共出金一百六十分，租二千斛，助充裝飭功德，寺隸宣教省。”

〈수정 해석〉

當成佛時，釋迦如來入滅後一千八百八年耳。時情王卽位第三年也。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七日，武州長沙副官金遂宗聞奏情王，情王八月廿二日，勅下~~躬~~躬作，不覺勞困也。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여래가 입멸한 후 1천 8백 8년이다. 이때는 정왕(情王, 헌안왕)이 즉위한 지 3년째(859) 되는 해이다. 대중(大中) 12년 무인년(858) 7월17일에 무주(武州) 장사현(長沙縣)의 부관(副官) 김수종(金遂宗)이 정왕에게 아뢰자, 정왕이 8월 22일에 명령으로 … 내려 몸소 마련하였으므로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2.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명문의 재검토

보림사 비로자나불 명문과 달리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명문은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보이지 않는 글자가 적지 않고, 판독과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865년에 조성된 이 명문은 전체 8행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존경을 표시하는 공격(空隔)이나 개행(改行)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각 행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다. 제목을 적은 첫 행을 제외한 나머지 7행 중에서 Ⅱ·Ⅲ·Ⅵ의 3행은 19자, Ⅳ·Ⅴ의 2행은 18자, Ⅶ·Ⅷ의 2행은 20자를 적은 것으로 판독되고 있다. 얼핏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소박하고 어설픈 명문으로 생각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 명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보림사 비로자나불 명문 이상으로 세련된 문장에 사상적으로도 깊은 내용을 갖추고 있는 발전된 명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명문에 대한 일반적인 판독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⁷⁾

〈기존 판독〉

	VIII	VII	VI	V	IV	III	II	I
①	覓	鐵	唐	覺	來	千	夫	香
②	居	員	天	覺	來	光	釋	徒
③	士	郡	子	長	哲	皈	迦	佛
④	結	到	咸	昏	因	一	佛	銘
⑤	緣	彼	通	換	立	千	晦	文
⑥	一	岸	六	庸	願	八	影	
⑦	千	寺	年	鄙	之	百	歸	并
⑧	五	成	乙	志	唯	六	眞	序
⑨	百	佛	西	契	願	載	遷	
⑩	餘	之	正	眞	卑	耳	儀	
⑪	人	侍	月	源	姓	慨	越	
⑫	堅	士	日	恕	室	斯	世	
⑬	金	龍	新	以	遂	性	世	
⑭	石	龍	羅	色	槃	斯	世	
⑮	志	岳	國	莫	椎	彫	掩	
⑯	勤	堅	漢	朴	自	此	色	
⑰	不	清	州	擊	擊	金	不	

7) 판독과 해석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고대금석문)의 판독과 번역을 토대로 일부 보완하였다.

⑱	覺	于	北	見	☒	容	鏡	
⑲	勞	時	界	x	x	☒	三	
⑳	困	☒	x	x	x	x	x	

<기존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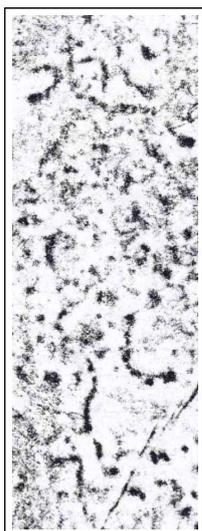
香徒佛銘文并序.

夫釋迦佛，晦影歸眞，遷儀越世，☒世掩色，不鏡三千光歸，一千八百六載耳。慨斯恠斯，彫此金容，☒☒來哲，因立願之。唯願卑姓室，遂榮惟自擊，☒☒覺長昏，換庸鄙志，契眞源，恕以色莫朴☒見。唐天子咸通六年乙酉正月日，新羅國漢州北界 鐵員郡到彼岸寺，成佛之侍士☒龍岳堅清。于時☒覓居士 結緣一千五百餘人，堅金石志，勤不覺勞困。

향도불(香徒佛)의 명문(銘文)과 서(序)

무릇 석가불이 그림자를 감추고 진여(眞如)로 돌아감에 거동을 옮겨 세간을 넘어가니, ... 부처님이 멸도(滅度)하여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지 않고 돌아가신 지 1천 8백 6년이다. 이를 슬퍼하고 기이하게 여겨 이 불상(金容)을 조각하고 ... 인하여 서원(誓願)을 세웠다. 오직 원컨대 비천한 사람들이 마침내 창과 방망이로 스스로를 쳐서 ☒☒ 오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변변치 못하고 비루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眞源)에 부합하여, 색(형상)으로 ... 하지 않음을 깨닫기 바란다. 당나라 천자(天子)의 함통(咸通) 6년 을유년(乙酉年, 865) 정월(正月) 모일에 신라국 한주(漢州) 북쪽 지방 철원군(鐵員郡) 도피안사에서 불상을 조성한 시사(侍士)는 이에 거사(居士)를 찾아 1천 5백여 인과 인연을 맺어 금석(金石)같이 뜻을 견고히 하며 부지런히 힘써 힘든 줄을 몰랐다.

이러한 기존의 판독에 대해서는 II-⑫⑬, III-③, IV-⑩⑪, V-⑯⑰, VII-⑪, VIII-②③ 등 많은 글자들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II-⑫⑬의 경우 명문 실물 및 탁본의 사진을 통해서는 글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世☒’으로 판독한 것은 해당 부분이 당 태종이 현장의 역경을 기념하여 찬술한 <대당삼장성교서(大唐三藏聖教序)>의 문장을 인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晦影歸眞，遷儀越世，☒世掩色，不鏡三千光’으로 판독된 본문 첫



II-⑪~⑭ 탁본

부분은 <대당삼장성교서>의 ‘晦影歸眞，遷儀越世，金容掩色，不鏡三千之光.’ 구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⁸⁾ 뒷부분의 ‘金容掩色，不鏡三千之光.’을 ‘☒世掩色，不鏡三千光’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 판독문의 ‘☒世掩色，不鏡三千光’ 부분은 대단히 어색한 문장이 된다. <대당삼장성교서>의 ‘晦影歸眞，遷儀越世，金容掩色，不鏡三千之光.’은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자[晦影歸眞，遷儀越世]，불상들도 얼굴을 가리고[金容掩色]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지 않게 되었다[不鏡三千之光]는 내용인데, ‘☒世掩色’은 얼굴을 가린 주체를 불상으로 볼 수 없어 전혀 다른 문장이 될 뿐 아니라 의미도 잘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판독은 내용에 의거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내용상 ‘掩色’ 앞의 ‘世’는 ‘掩色’과 연결되지 않고 앞의 구절과 연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구절이 <대당삼장성교서>의 문장을 인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世’는 앞의 ‘越’과 이어져 ‘越世’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경우 ‘越’과 ‘世’ 사이의 부분은 원래부터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실물이나 탁본의 사진을 보면 ‘越’과 ‘世’ 사이의 부분은 후대에 글자가 마멸된 것이 아니라

8) “昔者分形分跡之時，言未馳而成化。當常現常之世，人仰德而知遵。及乎晦影歸眞，遷儀越世，金容掩色，不鏡三千之光。麗像開圖，空端四八之相。”(『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大正藏 50책 256b)

불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제작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이 부분에 글자를 새길 수 없게 되자 원래 준비되었던 문장 중에서 ‘金容’의 두 글자를 생략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작상의 실수로 위치가 바뀌어 새겨졌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金容’의 경우 다음 행에도 같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생략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飯’로 판독된 Ⅲ-③은 초기의 판독에서는 ‘汎’으로 읽었고, 실제 탁본 사진으로도 汎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에도 이후의 판독에서 이 글자를 ‘飯’로 읽은 것은 내용상 경박하다는 뜻을 갖는 ‘汎’이 적절하지 않은 반면 비슷한 형태의 ‘飯(=歸)’가 내용상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글자 자체로 볼 때에 飯로 보기는 힘들고 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때 汎을 ‘대개, 무릇’ 등의 의미를 갖는 汎 혹은 凡의 통가자(通假字)로서 쓰였다고 보면 문장의 해석도 자연스럽게 된다. 즉 汎은 뒤의 글자들과 연결되어 ‘(부처님이 돌아가신지) 무릇 1천 8백 6년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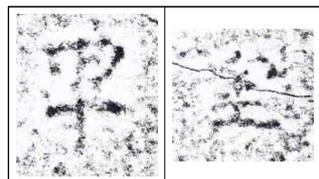


Ⅲ-③ 탁본

Ⅳ-⑩·⑫ 과 Ⅴ-⑯·⑰의 판독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Ⅳ-⑧부터 Ⅴ-⑱까지의 문장의 성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판독과 해석들에서는 이 부분을 일반 산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은 7언(言) 4구(句)의 운문, 즉 계송(偈頌) 혹은 명(銘)으로 되어 있다. 글의 제목이 ‘향도불명문병서(香徒佛銘文并序)’ 즉 ‘향도불(香徒佛)의 명문(銘文)과 서(序)’이므로 글 안에 명문(銘文) 즉 명(銘)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의 명문(銘文)은 고승비의 명(銘)과 마찬가지로 운문으로 된 계송을 의미한다. Ⅳ·Ⅴ의 2행이 다른 행들에 비해 글자 수가 적은 것도 이 행들이 운문의 계송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Ⅳ-⑧부터 Ⅴ-⑱까지는 7언 4구의 명(銘), 즉 계송이므로 28자(字)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판독에서는 모두 29자로 판독하고 있다. 이는 앞의 Ⅱ-⑫·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작 과정상에 모종의 이유로 글자를 새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판독되지 않는 글자로 여겨지고 있는 Ⅳ-⑱과 Ⅴ-①·⑰ 중 하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분을 4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명, 즉 계송은 각 구의 마지막 글자가 비슷한 운(韻)을 갖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운으로 여겨질 수 있는 글자는 槃昏源見 등의 글자이다. 이에 따라 계송 부분은 ‘唯願卑姓室 遂槃, 椎自擊 覺長昏, 換庸鄙志契眞源, 恕以色莫朴 見.’의 4구로 구분되게 된다. 현재의 판독에서는 두 번째 구는 8자가 되는데, 중간의 판독되지 않은 Ⅳ-⑱과 Ⅴ-① 중 하나는 실제로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부분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물 사진으로 볼 때 두 부분 모두 후대에 결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명문의 배치를 고려할 때 행의 첫 번째 부분인 Ⅴ-①보다는 행의 마지막 부분인 Ⅳ-⑱쪽이 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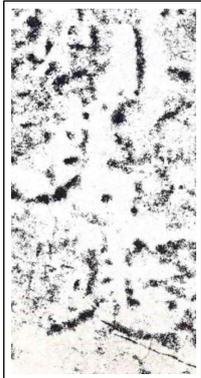
이와 같이 Ⅳ-⑧부터 Ⅴ-⑱까지는 계송 부분으로, 기존의 판독에 의하면 ‘唯願卑姓室 遂槃, 椎自擊 覺長昏, 換庸鄙志契眞源, 恕以色莫朴 見.’의 4구가 된다. 그런데 이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은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판독된 글자 중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구에서는 Ⅳ-⑩과 ⑫ 즉 卑와 室의 판독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Ⅳ-⑩은 탁본의 사진으로 볼 때 卑가 아닌 菓로 판독된다. 의미상으로도 菓姓은 불교 문헌에 빈번히 등장하는 菓性의 이표기(異表記)로서 불교의 계송에 사용되기 적합한 단어이다. Ⅳ-⑫는 탁본 사진으로 볼 때 室이 아닌 密로 판독된다. 바로 뒤의 글자인 遂가 동사인 점을 고려할 때에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될 수 있는 密이 室보다 적합하다. 이와 같이 Ⅳ-⑩과 ⑫를 수정하면 계송의 첫 번째 구절은 ‘唯願菓姓密 遂槃’이 되는데, 해석하면 ‘다만 바라노니, 과성(菓姓)이 그윽하게槃에 미치기를’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이때 과성(菓姓)은 불과(佛果)의 본질, 즉 불성(佛性)을 가리키고,槃은 나무로 된 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槃은 본래는 곡식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구절에 경쇠를 두드리는 방망이[椎]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돌로 만든 경쇠[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Ⅳ-⑩·⑫ 탁본

나무로 만든 악기, 즉 커다란 목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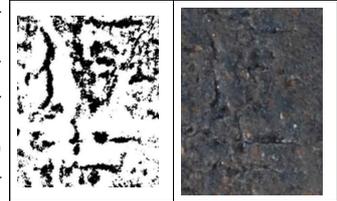
기존의 판독에 의하면 네 번째 구절도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V-⑩⑪을 기존과 다르게 판독할 필요가 있다. V-⑩의 경우 탁본의 모습으로는 기존의 판독과 같이 ‘朴’처럼 보이지만, 명문의 실물 사진에 의하면 V-⑩⑪은 철붙의 표면이 훼손된 부분이어서 탁본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특히 탁본에서 ‘卜’으로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훼손된 부분으로서 글자의 획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V-⑩은 왼쪽 부분이 ‘木’ 혹은 ‘扌’의 형태라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V-⑪은 기존에 판독되지 않은 글자인데, 탁본에 의하면 글자의 왼쪽 부분이 ‘方’과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V-⑩⑪은 탁본으로는 무슨 글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송 네 번째 구절의 전체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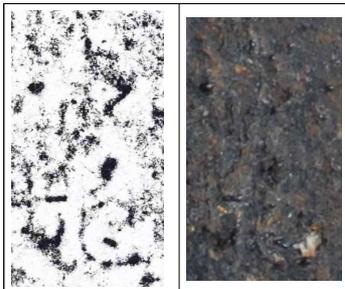
V-⑩~⑪ 탁본

보이지 않는 V-⑩⑪을 미상으로 두면 네 번째 구절은 ‘恕以色莫[?]見’이 되는데, 이는 ‘색(色)을 분명하게 깨달아서[恕以色] [?]전[?]見’ 하지 말라[莫[?]見]’는 의미로 추정된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色]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에 기초한 견해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과 현재 확인되는 V-⑩⑪의 왼쪽 부분을 고려하면 V-⑩⑪은 ‘執於’로 판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執’은 執의 이체자로서 ‘莫執於見’은 보이는 것 및 그에 기초한 견해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앞부분의 ‘색(色)을 분명하게 깨달아서[恕以色]’와도 잘 호응된다.

다음의 VII-⑩은 기존에 侍나 信 혹은 伯 등으로 판독되었는데, 실물 및 탁본 사진으로 볼 때 두 글자 모두 타당한 판독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侍나 信로 보기에는 오른쪽 아랫부분의 획이 단순하고,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획이 없어 伯으로 보기도 힘들다. 글자의 형태나 문장의 내용으로 볼 때 이 글자는 ‘化’로 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자를 化로 읽으면 아래의 글자와 연결되어 ‘化士’가 되는데, 화사(化士)는 불상 조성 등의 불사를 거행할 때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명문의 구성상 불사를 완성한 사실을 밝힌 바로 다음에 불사를 주도한 화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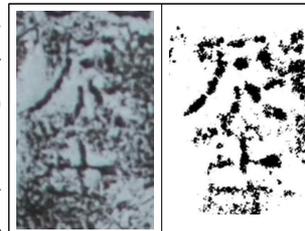
VII-⑩⑪ 탁본 및 실물 사진



VII-⑬⑭ 탁본 및 실물 사진

‘化士’ 다음에는 화사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첫 글자인 VII-⑬은 기존에도 판독되지 못하였고, 탁본 사진을 보아도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 없다. 실물 사진으로는 해당 부분이 특별히 마멸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래부터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혹 불상 조성을 주도한 화사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격(空隔)을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VIII-②③은 기존에 거사(居士)로 판독되었지만 두 글자 모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VIII-②는 탁본 사진으로 볼 때에 글자의 아랫부분이 居나 그 이체자인 屮의 아랫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辰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독된다. 아마도 이 글자를 居로 판독한 것은 다음의 VIII-③을 土로 읽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VIII-③은 앞의 VII-⑩와 비교해 볼 때 ‘土’로 보기 힘들고 ‘土’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VII-⑩은 두 개의 가로 획 중 위쪽 획이 길어 土이지만 VIII-③은 위쪽 획이 아래 획보다 짧으므로 土가 아니라 辰이 된다. 결국 VIII-②③은 거사(居士)가 아니라 진토(辰土)가 되는데, 辰이 동남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고려하면 동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III-②③ 탁본

글자가 완전히 훼손되어 읽을 수는 없지만 III-⑩와 IV-①의 경우는 문맥에 의거하여 어떤 글자들

이였을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IV-②③의 ‘來哲’은 후대의 현인을 의미하는데, 옛 문장을 검색해 보면 來哲 앞에는 그들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以俟’가 붙어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후대의 현인들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다.⁹⁾ 본 명문의 경우에도 Ⅲ-⑮부터 IV-③까지의 구절을 ‘이 불상[金容]을 조성하여 후대 현인(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해석하면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Ⅲ-⑩와 IV-①의 훼손된 글자를 ‘以俟’로 추정해 본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명문에 대해 새로운 판독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 판독〉

	VIII	VII	VI	V	IV	III	II	I
①	覓	鐵	唐	覺	來	千	夫	香
②	[辰]	員	天	覺	來	光	釋	徒
③	[土]	郡	子	長	哲	[伋]	迦	佛
④	結	到	咸	昏	因	一	佛	銘
⑤	緣	彼	通	換	立	千	晦	文
⑥	一	岸	六	庸	願	八	影	
⑦	千	寺	年	鄙	之	百	歸	并
⑧	五	成	乙	志	唯	六	眞	序
⑨	百	佛	西	契	願	載	遷	
⑩	餘	之	正	眞	[果]	耳	儀	
⑪	人	[化]	月	源	姓	慨	越	
⑫	[豎]	士	日	恕	[密]	斯	x	
⑬	金	[?]	新	以	遂	恠	x	
⑭	石	龍	羅	色	槃	斯	世	
⑮	志	岳	國	莫	椎	彫	掩	
⑯	勤	堅	漢	[執]	自	此	色	
⑰	不	淸	州	[於]	擊	金	不	
⑱	覺	于	北	見	x	容	鏡	
⑲	勞	時	界			三		
⑳	困	覺						

〈수정 해석〉

香徒佛銘文 并序

夫釋迦佛，晦影歸眞，遷儀越世掩色，不鏡三千光，[伋]一千八百六載耳。慨斯恠斯，彫此金容，[以俟]來哲，因立願之。唯願果姓[密]遂槃，椎自擊[覺]覺長昏，換庸鄙志契眞源，恕以色莫[執][於]見。唐天子咸通六年乙酉正月日，新羅國漢州北界 鐵員郡到彼岸寺，成佛之。[化]士[覺]龍岳堅淸，于時[覺]覓辰土，結緣一千五百餘人，堅金石志，勤不覺勞困。

향도불(香徒佛)에 대한 명문(銘文) 및 서(序)

무릇 석가불이 그림자를 감추고 진여(眞如)로 돌아가고 거동을 옮겨 세상을 떠나니 (불상[金容]

9) “元世 熙朝兩代事蹟，續承其後。庶見古今上下之道脈，連持世與出世之宗猷，踵接擬茲，續貂之尾。蓋不欲爲最後斷佛種之人，繪空摹影，以俟來哲，觀感興起，聯輝續燭，以無窮焉耳。”(『釋鑑稽古略續集』序，大正藏 제49책, 903b); “圓照等，才智短淺，思不延文。祇奉皇恩，俛仰恭命。今所譯者，約以類分，隨三藏文，相次附入。自惟以索繼組，以磔次金。疑則闕之，以俟來哲也。”(『貞元新定釋教目錄』序，大正藏 제55책, 771a);

도) 모습을 감춰 삼천대천세계에 빛을 비추지 않은 지 무릇 1천 8백 6년이 되었다. 이를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겨 이 불상[金容]을 조각하고서, 후대의 현인[來哲]을 기다리며, 이를 계기로 서원(誓願)을 세운다.

오직 바라나니, 과성(果姓)이 그윽하게 목탁에 미쳐 唯願果姓密遯槩
 방망이가 저절로 … 두들겨 오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椎自擊覺長昏
 비루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眞源)을 좇아 換庸鄙志契眞源
 색(色)을 밝게 깨달아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말기를. 以色莫執於見

당나라 천자의 함통(咸通) 6년 을유년(865, 경문왕 5) 정월(正月) 일(日)에 신라국 한주(漢州) 북계(北界)의 철원군(鐵員郡) 도피안사에서 불상을 이루었다. 화사(化士)인 용악(龍岳)의 견청(堅淸)이¹⁰⁾ 당시에 동남쪽 지역(辰土)에서 (후원자를) 찾아 1천 5백여 사람과 인연을 맺고 금석(金石)같이 뜻을 견고히 하여 힘썼으므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3. 삼화사 노사나불 명문의 재검토

앞의 두 철불과 달리 삼화사 노사나불은 그 제작시기가 명문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명문 중에 당시를 석가불 말법시대의 3백여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석가모니 열반 이후 1천 5백년이 지나서 말법시대가 시작된다고 여겨진 것을 고려하면 각기 석가 열반 이후 1천 8백 8년과 1천 8백 6년이라고 밝히고 있는 보림사 및 도피안사 비로자나불과 비슷한 시기 즉 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뒤에 살펴보듯 불상의 명문에서는 신라 하대에 활약했던 화엄종 승려 결언(決言)이 불상 조성의 중심인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의 생존 시기를 고려할 때 신라하대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불상의 명문은 1996년 사찰 중창 및 불상 보수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원문 판독과 해석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명문의 앞부분이 파손되고 읽기 어려운 글자들도 적지 않아 판독이 온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장도 순수 한문이 아니라 한국식 한문이어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명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때문에 판독의 경우에는 비교적 의견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큰 편이다. 그런데 기존의 판독과 해석 중에는 사용된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잘못 파악한 부분들이 적지 않고, 그러한 점들을 수정하는 것으로도 본 명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크게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명문의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탁본 자료는 처음 소개될 당시에 제공된 것뿐이어서 보다 체계적 검토를 시도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일단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판독과 해석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판독을 제시하고 재검토해 보기로 하자.¹¹⁾

<기존 판독>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①	𑖇	𑖇	𑖇	來	𑖇	[同]	𑖇	■	■	■
②	𑖇	一	切	下	那	氏	成	■	■	■
③	見	𑖇	劫	生	佛	僧	白	■	■	■
④	觀	成	出	彌	成	道	伯	■	■	■

10) 현재 판독되지 않는 글자로 파악한 VII-③이 본래 글자가 아닌 空隔이라면 이 부분은 ‘화사(化士)인 용악(龍岳)과 견청(堅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1) 판독은 황수영, 1997, 「삼화사의 신라철불좌상의 背刻銘記」, 『문화사학』 8, p.21을 토대로 일부 보완하였다.

⑤	作	發	現	勒	大	初	士	王	■	■
⑥	沙	心	佛	尊	志	等	釋	願	迦	■
⑦	彌	旦	每	此	由	上	氏	由	佛	國
⑧	金	越	此	處	盧	首	乘	決	末	人
⑨	解	父	處	華	舍	十	炬	盡	法	云
⑩	善	體	華	嚴	那	方	發	教	三	踈
⑪	行	虛	嚴	經	佛	旦	心	華	百	勒
⑫		母	大	說	大	越	旦	嚴	余	又
⑬		念	不	此	願	同	越	業	年	青
⑭		法	識	大	力	心	釋	決	成	丘
⑮		作	儀	因	由	同	氏	言	佛	時
⑯			經	緣	故	願	聽	大	時	云
⑰				由	當	盧	默	大	國	新

검토하려는 글자는 I-⑧, IV-④⑤, X-④⑩ 등의 글자이다. 먼저 I-⑧은 종래 ‘人’으로 판독되었



I-⑦~⑨ 탁본

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탁본 사진으로 볼 때 I-⑧을 人으로 읽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人의 왼쪽 획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른쪽 획도 人으로 보기에는 위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다. 본 명문의 글자들은 모두 가로에 비해 세로가 긴 세장한 모습인데, 현재 보이는 획이 人의 오른쪽 부분이라면 글자의 형태가 다른 글자들과 크게 차이나게 된다. 왼쪽은 결락되었지만 오른쪽 획의 모습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오히려 ‘八’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용상으로도 人보다는 八이 적당하다. 人으로 판독하면 뒤의 글자들과 이어져 ‘國人(國人)들이 소륵(疏勒)이라고 말하였다[國人云疎勒]’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다. 사실 이 부분은 현존하는 명문의 가장 앞부분인데, 기존의 해석에서도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갑자기 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서쪽에 있는 소륵(疏勒)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왜 소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I-⑧을 ‘八’로 판독하면 어느 정도 맥락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화엄경』 주석서에서 소륵국을 여덟 번째 나라로 이야기하는 문장들이 보이기 때문

이다.

“여덟 번째는 소륵국(疏勒國)인데, 갖추어 말하면 거로수달륵(佉路數怛勒)이다. 그 나라의 산의 이름인데, 산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을 삼았다. 혹은 악성국(惡性國)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라 사람들의 (성품으로) 이름을 삼은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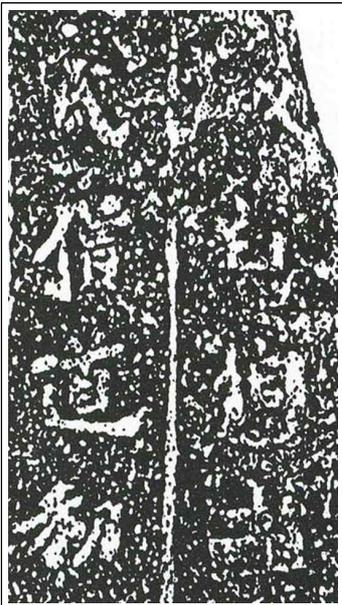
“『소(疏)에서 ‘여덟 번째는 소륵국(疏勒國)인데, 갖추어 말하면 거로수달륵(佉路數怛勒)이다’라고 하였는데, 『서역기』 제12권에서는 ‘총령(葱嶺)을 나오면 오쇄국(烏鞞國)인데, 이 나라 도성에서 서쪽으로 2백여 리를 가면 한 큰 산에 이른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산과 광야 5백 리를 가면 거사국(佉沙國)에 이른다. 옛날에 소륵(疏勒)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도성의 이름이다. 바른 이름은 갖추어 말하면 실리흘유다저(室利訖栗多底)이고, 소륵이라고 부른 것은 잘못된 것 같다.”¹³⁾

12) “八疏勒國。具云佉路數怛勒。是彼國山名。因山立號。或翻爲惡性。因國人以立名。” (『華嚴經疏』 권47, <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初>, 大正藏 제35책, 860c)
 13) “疏八疏勒國等具云佉路數怛勒者, 西域記第十二云, 出葱嶺其烏鞞國。此國城西二百餘里至一大山, 從此北行山嶺曠野五百餘里至佉沙國。舊云爲疏勒者, 乃稱其城號也。正音具云, 室利訖栗多底。疏勒之言, 猶爲訛也。” (『華嚴經隨疏演義鈔』 권77, <諸菩薩住處品第三十二>, 大正藏 제36책, 603b)

위의 인용문들은 당나라 화엄학승 징관(澄觀)이 지은 『화엄경소』와 그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한 『화엄경수소연의초』의 문장들인데, 여기에서 소륵국은 여덟 번째 나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측천무후 시기에 번역된 신역(新譯) 『화엄경』 중의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대보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언급하는 중에 나오는 소륵국이¹⁴⁾ 실제 현실의 나라나 도시 열 두 곳 중에서 여덟 번째라는 점에 주목하여 소륵국을 여덟 번째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삼화사 노사나불의 명문에는 『화엄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문의 작자는 『화엄경』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문에 나오는 소륵(疏勒)도 『화엄경』에 나오는 소륵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I-⑧을 ‘八’로 읽고서, 명문의 서두 부분을 ‘대보살들이 현재 머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는 소륵이라고 한다.’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청구(靑丘) 즉 우리나라가 언급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대보살이 머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려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음으로 IV-③④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IV-④⑤는 기존에 백사(伯士)로 판독되어 바로



IV·V-②~⑤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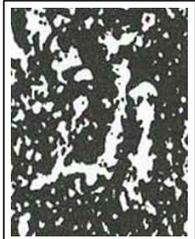
뒤에 나오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 탁본 사진을 보면 IV-④⑤는 ‘伯士’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IV-④의 경우 伯으로 보이는 부분 아래에 또 다른 획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伯으로 읽을 경우 IV-④는 다른 글자들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글자의 형태도 가로가 넓어 세로가 긴 다른 글자들과 위화감이 든다. 伯으로 보이는 부분 아래의 획은 心 혹은 ㄴ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伯의 아래에 心 혹은 ㄴ가 추가된 글자로는 ‘愿’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그 아래의 IV-⑤도 기존의 판독처럼 ‘士’로 읽기에는 글자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획이 너무 많아 보일 뿐 아니라 위의 가로 획 위로 솟든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 보인다. 글자의 형태나 획 등으로 볼 때 士보다는 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IV-④와 ⑤를 愿과 주로 고쳐 읽으면 IV-④⑤는 ‘愿主’라는 단어가 된다. 아마도 본 불상의 조성을 발원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IV-③은 기존에 ‘白’으로 판독되었고, 이에 대해 이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탁본의 사진에서도 白과 비슷하게 보인다. 하지만 글자를 자세히 보면 白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인다. 먼저 글자의 가장 위쪽에 좌상향하는 획이 보이는데, 이는 白에서는 볼 수 없는 획이다. 白이라면 우상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자의 크기가 다른 글자들에 비해 크게 작고, 위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탁본에 보이는 모습은 글자의 전체가 아니라 윗부분에 불과하고, 아래쪽에 마멸되어 탁본에 나타나지 않는 획들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글자의 폭도 다른 글자들에 비해 좁은데 오른쪽에도 획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모습에 아래쪽과 오른쪽에 획이 추가된 글자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앞뒤의 글자들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典의 가능성이 있다. 즉 위의 成 및 아래의 愿主와 합하여 ‘成典愿主’라는 직책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X-④는 기존에 勤으로 판독되어 왔다. 실제 탁본의 글자도 그와 비슷하게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 왼쪽 윗부분에 우상향의 획 하나만이 보이고 있어서 勤보다는 動에 가까운 글자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 탁본의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서 외형만으로는 어느 글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勤과 動 중에 어느 글자가 보다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X-④의 글자가 다음 글자인 ‘作’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부지런하다’라는 의미의 勤이 더 적절하다

14) “爾時心王菩薩摩訶薩，於衆會中，告諸菩薩言。佛子，……疏勒國有一住處，名牛頭山。從昔已來，諸菩薩衆，於中止住。”(『華嚴經』 권45, 大正藏 제10책, 241c). 東晉 시대에 번역된 舊譯 『화엄경』의 <보살주처품>에는 牛頭山이 邊夷國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앞의 글자인 見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勤보다는 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견근(見勤)이 깃는다’고 해석하여 X-④를 위의 글자인 見과 연결시키는 견해가 많은데,¹⁵⁾ 필자 역시 X-④를 위의 글자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처럼 X-④를 見과 연결시킨다면 이 글자는 勤으로 보는 것보다는 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견근(見勤)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기기 어렵지만 견동(見動)에는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현상세계는 것처럼 변화하지만 존재의 본성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현상세계의 변화와 움직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외부에서 주어진 감각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임을 보지 않는 것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¹⁶⁾



X-④ 탁본

이와 같이 이해하면 X-③~⑤는 ‘見動作’으로 판독될 수 있는데, 다만 견동(見動), 즉 움직임을 보는 것 혹은 움직임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피해야 하고 반대로 움직임을 보지 않고, 움직임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견동(見動)의 앞에는 이를 부정하는 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 판독되지 않는 X-①②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말라는 의미의 글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X-①~⑤는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서 일한다[見動作]’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X-③④의 ‘見動’은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는 힘들고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바로 앞의 IX-⑮에도 ‘作’이 나오고, 그 앞에 ‘염법(念法)·체허(體虛)’와 같은 말이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염법(念法)’과 ‘체허(體虛)’는 각기 ‘법을 생각한다’ ‘빔[虛]을 바탕[體]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들 역시 불교의 수행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作이 나오는 IX-⑨부터 X-⑤까지는 서로 연결되는 구절로서 ‘父體虛·母念法作, 見動作’으로 볼 수 있고, 의미는 ‘체허(體虛)하는 마음을 아버지로, 염법(念法)하는 마음을 어머니로 하여 일을 하고[作], 움직임을 보지 않으면서 일한다[見動作]’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X-⑩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글자는 기존에 ‘善’으로 판독되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탁본 사진에서도 善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글자는 사미(沙彌)의 이름 중 일부로 생각되는 글자인데, 사람의 이름, 특히 승려의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라는 점에서도 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글자를 자세히 보면 글자의 높이가 낮고 윗부분의 획이 적어서 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명문의 글자들이 세로가 긴 세장형임을 고려하면 이 글자는 善으로 보기 힘들고 그보다는 윗부분의 획수가 적은 비슷한 글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의 형태로 볼 때 X-⑩은 ‘苦’의 가능성이 있는데, 의미상으로도 苦가 善보다 적절하다. ‘해선(解善)’보다는 ‘해고(解苦)’가 승려의 이름으로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미(沙彌) 다음의 네 글자에 대해서는 두 글자씩 나누어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보려는 견해(金解와 善行)와 앞의 세 글자를 이름으로 보고 마지막의 ‘行’은 동사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 명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모두 깊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해 金해(金解)나 善행(善行)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金해/김해(金解)는 승려의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미의 이름 세 글자 중 첫 번째 글자는 성씨이므로, 나머지 두 글자가 이름이 되는데 해선(解善)에는 별다른 불교적 의미가 없지만 ‘고통에서 벗어난다’ 뜻의 ‘해고(解苦)’는 강한 불교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X-



X-④ 탁본

15) 박성종, 1997, 「삼화사 철불 명문에 대하여」, 『문화사학』 8, p.7; 김창호·한기문, 1999,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 『강좌미술사』 12, p.187.

16) “小乘觀身, 不淨破淨, 倒名見動. 大士觀身, 性空非垢非淨, 名爲不動.” (道掖集, 『淨名經集解關中疏』 卷上, 大正藏 제85책, 455b); “行者觀一念自生心, 心數起時, 反照觀察, 不見動轉, 根源終未來處去處, 故名覺意三昧也.” (灌頂, 『觀心論疏』 권3, 大正藏 제46책, 603c)

⑩은 품로 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 글자 행(行)은 불상 조성 작업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의미이거나 이 명문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추정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삼화사 노사나불상 명문에 대해 새로운 판독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정 판독>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①	☒	☒	[一]	來	[舍]	[同]	[德]	☒	☒	☒
②	☒	一	[切]	下	那	氏	成	☒	☒	☒
③	見	☒	劫	生	佛	僧	[典]	☒	☒	☒
④	[動]	成	出	彌	成	道	[愿]	☒	☒	☒
⑤	作	發	現	勒	大	初	[主]	王	☒	☒
⑥	沙	心	佛	尊	志	等	釋	願	迦	☒
⑦	彌	旦	每	此	由	上	氏	由	佛	國
⑧	金	越	此	處	盧	首	乘	決	末	[八]
⑨	解	父	處	華	舍	十	炬	盡	法	云
⑩	[苦]	體	華	嚴	那	方	發	教	三	疎
⑪	行	虛	嚴	經	佛	旦	心	華	百	勒
⑫	☒	母	大	說	大	越	旦	嚴	余	又
⑬	☒	念	不	此	願	同	越	業	年	青
⑭	☒	法	識	大	力	心	釋	決	成	丘
⑮	☒	作	儀	因	由	同	氏	言	佛	時
⑯	☒	☒	經	緣	故	願	聽	大	時	云
⑰	☒	☒	☒	由	當	盧	默	大	國	新

<해석>

☒☒☒☒☒☒國, 八云疎勒, 又青丘, 時云新☒☒☒☒, [釋]迦佛末法三百余年成佛. 時國☒☒☒☒王願由決盡, 教華嚴業決言大大[德]成[典][愿][主]. 釋氏乘炬, 發心旦越, 釋氏聽默, [同]氏僧道初亦上首, 十方旦越 同心同願.
 盧[舍]那佛成大志由, 盧舍那佛大願力由故, 當來下生彌勒尊, 此處華嚴經說. 此大因緣由, [一]切劫出現佛每, 此處華嚴大不識儀經[說]. 一[時]成, 發心旦越, 父體虛, 母念法作, ☒☒見[動]作. 沙彌 金解[苦]行.

[대보살이 머무르는] 나라들 중에 여덟 번째는 소륵(疎勒)이라고 한다. 또 청구(靑丘)가 있는데, 이때에 신☒(新[☒]) ……; 석가불의 말법(末法) 3백여 년에 부처를 이루었다. 이때 나라 …… 왕의 바람으로 인하여[由] 모두 해결하여[決盡] 화엄업(華嚴業) 결언(決言) 대대덕(大大[德])을 성전(成典)의 원주(願主)로 삼았다. 석씨(釋氏) 승려(乘炬)가 (불상을 이루려는) 발심단월(發心旦越)이 되고, 석씨(釋氏) 청묵(請默)과 같은 성씨인 승려[僧] 도초(道初) 등을 으뜸으로 하는十方의 단월들이 마음을 함께 하여 함께 발원하였다.

노사나불(盧舍那佛)을 이룬 큰 뜻으로 인하여[由], 노사나불의 대원력(大願力)으로 인하여[由], 그리하여 미래에 이 세상에 내려오실 미륵존(彌勒尊)께서 이곳에서 『화엄경』을 설법하시고, 이 큰 인연으로 인하여[由] 모든 겁(劫)에 출현하실 부처님들마다 이곳에서 『화엄대불식의경』 …… 이룬다. 마음을 낸 단월은 체허(體虛)를 아버지로 하고, 염법(念法)을 어머니로 하여 일하고, 움직임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일하였다. 사미(沙彌) 김해고(金解苦)가 실행한다[行].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하대 철불 3점의 명문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판독하고 해석해보았다. 기존과 다르게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림사 비로자나불상 명문에 대해서는 단어가 중복될 때에 본래 글자와 첩자부(疊字符)를 교대로 적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그동안 잘 판독되지 않았던 제7행의 ‘勅下’ 다음의 글자는 국왕이 내려준 물품에 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기존에 ‘躬作不覺勞困也’로 판독하여 ‘몸소 일하였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해석되었던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는 ‘躬辨不覺勞困也’로 읽고서 ‘(국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주어 (공사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다’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국왕의 불상 조성 사업에의 지원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보림사보조국사비>의 내용과도 부합된다.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명문에 대해서는 제4~5행 부분이 7언 4구의 명(銘), 즉 계송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해당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시사(侍士) 혹은 백사(伯士)로 판독된 부분과 거사(居士)로 판독된 부분을 각기 화사(化士)와 진토(辰土)로 새롭게 판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본 불상의 조성은 화사(化士)가 주도하여 진토(辰土) 즉 동남쪽 지역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본 명문의 구성과 불상 조성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삼화사 노사나불상 명문에 대해서는 제1행의 인(人)으로 판독된 글자를 팔(八)로 고쳐 읽어 명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소록(疏勒)이 거론된 이유를 드러냈고, 제4행의 ‘成白伯士’로 판독된 구절을 ‘成典愿主’로 읽어 명문에 언급된 결언(決言) 대대덕이 불상 조성에 담당할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제8행의 ‘見動作’을 ‘見動作’으로 새롭게 판독하고서 이 부분을 앞의 ‘父體虛母念法作’과 관련지어 해석하였고, ‘善’으로 판독된 글자를 ‘善’로 읽어 명문 마지막에 나오는 사미의 이름과 역할을 새롭게 설명하였다.

신라 하대 철불의 명문들은 신라말 사회 변화와 불교계의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명문의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양질의 탁본과 사진 자료들이 공개되어 명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에 애매하게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읽어보려 시도하였다. 특히 그동안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불교 용어와 개념들에 주의하면서 명문 작자의 본래 의도를 확인하려 노력해 보았다. 하지만 명문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적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이해에는 아직도 여전히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새롭게 판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라 하대 철불들의 명문에 담겨져 있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도피안사 비로자나불과 삼화사 노사나불의 명문에는 불상 조성 과정과 당시 불교인들의 신앙 내용에 대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적지 않았다. 새로운 판독과 해석이 신라 하대의 사회 변동과 불교, 그리고 철불의 출현과 확산 등의 주제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정병삼(숙명여자대학교)

“신라 하대 철불 명문의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정병삼(숙명여자대학교)

많은 금석문 자료는 당대의 의식과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일차적 사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만큼 제작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그 의의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근자에 ‘새로운’ 해석을 위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히려 자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려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발표는 자료의 바른 해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주제로서, 시점 또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토론자는 자료를 자의적이거나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이 발표는 특히 자료의 작성 배경이 되는 불교적 사유와 관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숙고한 끝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명문이 ‘향도불명문 병서’라는 명(銘)의 존재를 찾아내 정확한 이해를 제기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삼화사 철불 명문 또한 기존과 달리 불교적 관점을 저변에 두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성격을 찾아낸 점도 의의가 크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못지 않게 기존 자료의 충실한 해석 또한 신선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발표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한다.

토론자의 견해는 필자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판독과 해석에서 차이 나는 일부 부분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림사 비로자나불상 명문 해석¹⁾

1) 중문부(첩자부) ‘情王情王’으로 해석하여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2) VII-⑥·⑦·⑨ 판독 문제.

勅下 목적어- 국왕이 내려준 물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여 “명령으로 ... 내려 몸소 마련하였으므로”로 해석하였다.

토론자의 시점으로는 VII-⑥·⑦ 글자가 ‘令示’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VII-⑨ 글자를 辨으로 판독하면

‘勅下令示躬辨’으로 보게 된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勅下[]躬辨’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勞困을 ‘곤란함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다.



1) 문화재청 불교중앙박물관, 2020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p.21

2.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명문 해석2)

도입글에서 밝힌 것처럼, 銘文의 의의를 찾아낸 것은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세부 의견의 차이를 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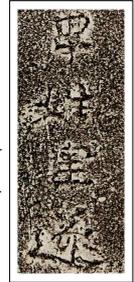
1) ‘遷儀越世掩色, 不鏡三千光’으로 판독했는데, ‘晦影歸眞, 遷儀越世, 掩色不鏡三千光, 仇一千八百六載耳.’로 보는 것이 구절 대비로 보아도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世’ 위에 분명 글자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다. 무슨 글자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글자가 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2) ‘[以俟]來哲’ 판독은 이견이 없다. 여러 전거를 대비시켜 찾아낸 의미가 크다.

3) ‘唯願果姓[密]遂榮’

銘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내어, 해석이 신선하고 의미가 크다. 그런데 판독상으로는 ‘果’보다는 ‘卑’가 적절해 보인다. ‘密’은 이 발표의 기본 관점이기도 한, 자료 내에서 글자의 형태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견지에서 보더라도 획수에 비해 크기가 작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필자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어, 대안 해석이 없는 토론자의 반론은 제시하지 못했다.



4) 愆以色莫[執][於]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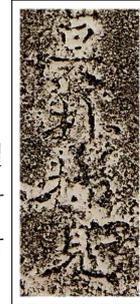
제시한 해석으로는 명문의 4구 중 3구는 4자+3자 구성인데, 이 구절만 3자+4자 구성이 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이 부분 또한 [執][於]의 대안 판독이 없어 문제 제기에 그친다.

5) ‘化士’

기존의 판독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흔히 제기된 판독문인 ‘伯士’보다는 ‘化士’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구절이 “철원군 도피안사의 불상을 만든” 다음 구절이므로, 처음부터 제작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제작 주체라 할 수 있는 화사가 등장하여 1500명의 결연인을 찾아 만들었다는 것이 순리이다.



6) 辰土 → 屮土

매우 창의적인 새 해석이지만, 탁본상으로 보면 ‘辰土’보다는 ‘屮土’의 판독이 맞다고 생각한다. ‘屮’의 아래 획이 완전해 보이지 않지만, ‘立’ 부분의 위 획은 분명해 보인다. ‘土’는 아래 오른쪽 획이 이어졌다면 ‘土’가 적절하겠지만, 오른쪽 끝 부분은 끊어져서, ‘土’로 판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 삼화사 노사나불3)

1) 八云疎勒

이 또한 매우 창의적인 해석이다. 필자의 깊은 불교학적 역량으로 해석해낸 새로운 관점이다. 토론

2) 문화재청·불교중앙박물관, 2018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p.25

3) 문화재청·불교중앙박물관, 2018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p.29

자도 이 관점에 동의한다.

『화엄경』의 이 구절은 菩薩住處品에서 먼저 八方과 海中을 들고, 이어 대해중과 비야리 마투라 간다라 등 실제 지역을 거명하는 중에 震旦國 다음에 등장하는 疏勒國이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특히 동쪽 靑州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징관의 견해를 숙지하고, 진단에 이은 소륙을 거명한 후 청구 곧 신라를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해석에 동의한다.



그런데 ‘八’은 판독상 ‘人’ 또는 ‘又’로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글자 체형을 얘기했는데, 이 글자는 세장한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좌우로 긴 형태이다. 다음 글자인 ‘云’도 같은 형태이다.

2) 又靑丘, 時云新

이때에 신(新) ……; → “이때는 신라라고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3) 成[典][愿][主] → 伯士

이 부분 또한 새로운 관점인데, 글자 판독으로는 아직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전의 판독이 맞다면, 기왕의 성전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는 의의가 있다. 국왕 발원을 불사에 대대적으로 불린 주요 승려가 성전으로 관여한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成典 문제는 단순한 해석이 어렵지만, 禪林院鐘(804)이나 蓮池寺鐘(833), 昌林寺 無垢淨塔願記(855)나 閔哀大王石塔記(863) 또는 皇龍寺刹柱本記(872) 등 조성 대상과 규모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성전 또는 성전 관련 자료들과의 비교 검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은 중요하다.



그러나 ‘典’자로 판독하기에는 현존하는 획 부분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

‘愿主’의 판독은, 필자의 지적과 같이 ‘伯’으로 보기에는 다른 글자에 비해 작고 아랫부분의 ‘心’으로 보이는 부분을 해석할 수 없지만, 글자 획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윗 부분은 ‘原’보다는 ‘伯’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主’의 판독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가로 세 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모양은 ‘土’가 가장 근사해 보이는데, 아래 획을 잘 살펴보면 ‘土’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IX-②

‘一’로 판독했는데, ‘三’이 더 가까워 보인다.

5) 見動의 해석 또한 탁월한 해석이다. 이런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이 놀랍다. 판독상 ‘動’은 여전히 ‘勤’으로 판독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해석의 제안에 공감한다. 다만 조성문은 ‘體虛’ ‘念法’과 함께 수준 높은 불교관을 보여주는데, 미륵불이 하생하여 화엄경을 설한다는 것은 교리적 근거가 미약하여 글 전체가 수준 높은 불교관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화엄을 증시하는 모임에서 미륵과 화엄경을 연계시켜 발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바람은 일반인들의 복합된 의식에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화엄경소의 소륙국, ‘體虛’ ‘念法’ ‘見動’을 언급하는 높은 수준에서 이를 착종 기술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여기서 언급한 華嚴大不識儀經이 어떤 성격의 경전인지, 不思議와 연관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6) 沙鉢金解苦

사미에 김씨 성을 부여한 것은 釋氏乘焔, 釋氏聽默 同氏僧道初 등과 견주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편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또 釋氏를 칭한 3인 중 마지막 道初만 僧道初라고 한 것은 다른 구별 의식 때문에 승을 모칭했는지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토론자의 의견은

沙鉢金解苦行 “사미 김해가 힘들여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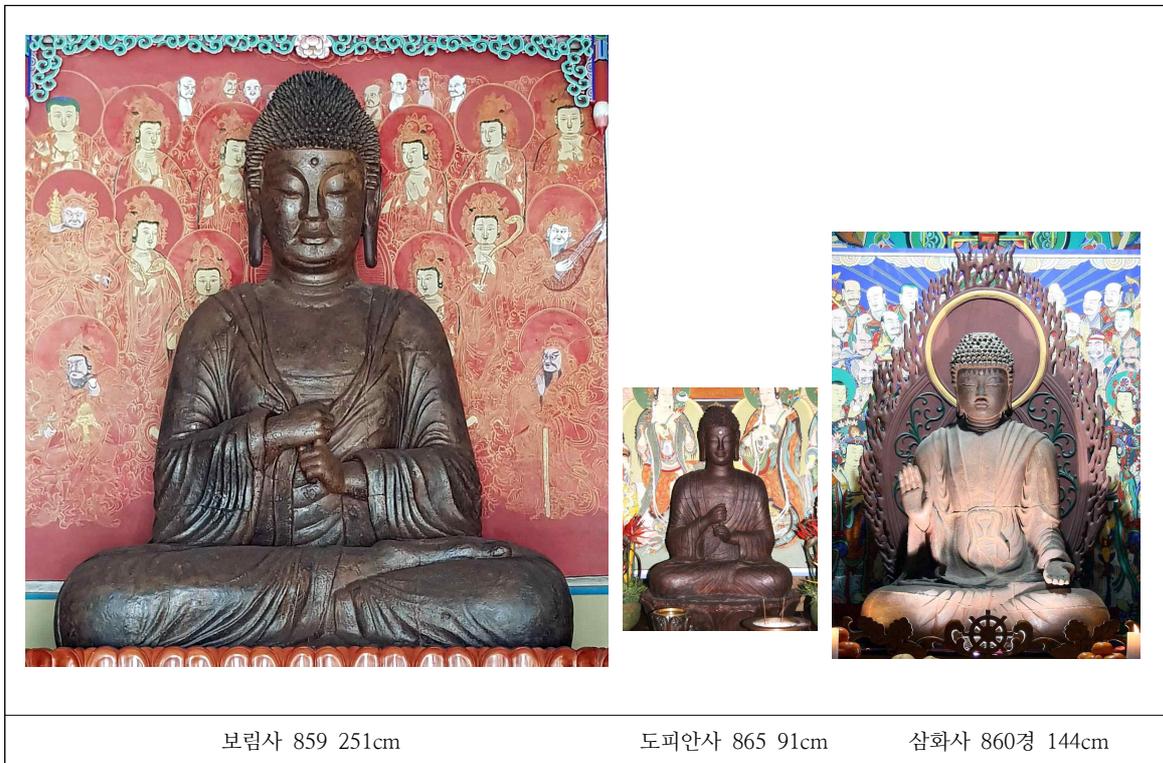
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4.

필자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토론자의 좋은 반론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

이 세 불상 명문은, 판독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상 조성이 갖는 의미 또한 크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세 불상 조성의 신앙 경향은 어떠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불상의 조성 주체의 배경-종파, 후원세력, 신앙, 크기와 형태 등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9세기 후반 불교문화의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보림사 불상과 도피안사 불상에서 기록한 불멸 연도가 다르다. 이로 인해 이들 기록 자료를 ‘부자연스럽게’ 해석한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들 불멸 연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보림사 불상과 도피안사 불상은 불멸 연도를, 삼화사 불상은 말법을 명기했다. 보림사와 삼화사 불상은 국왕이 관여한 사업이고, 도피안사는 승려로 추정되는 이가 1500 지역민과 함께 조성한 사업이다. 이런 조성 주체의 차이와, 이들이 생각했던 말세의식과의 연관성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고대 『논어』 목간의 摘錄과 變形

김종희(경북대학교)

古代 『論語』 木簡의 摘錄과 變形

-동아시아 삼국(韓·中·日) 『論語』 木簡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희(경북대학교 HK사업단)

〈목차〉

머리말

I. 簡牘시대 『論語』 木簡의 특징과 版本문제

II. 紙木병용기 『論語』 木簡의 다양한 변형

맺음말- 『論語』 木簡의 규격화와 텍스트의 권력화를 곁하여

머리말

오늘날과 같이 전자매체가 보편화되기 전, 지식은 주로 書寫를 매개로 전달되었다. 지식의 공유는 곧 생각의 공유를 의미하고, 여기에 기초한 비슷한 행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 이를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지식은 얼마든지 變容될 수 있다. 시간·공간의 특수성이 그 예로, 동일한 텍스트라도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그 활용방식이 달라진다. 시공간적 특성에 기초한 문화·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사재료 역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서사행위로 기록된 내용조차 시기별·지역별로 조금씩 달랐다면, 이를 통해 형성된 지식관념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만큼 특정 텍스트가 傳寫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고가 주목한 대상이 바로 『論語』 木簡¹⁾이다.

『論語』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록을 모아 만든 텍스트이며,²⁾ 비록 육경(六經)에 들지 못하지만 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³⁾ 그런 만큼 『論語』는 일찍부터 동아시아 삼국(한·중·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내륙뿐만 아니라 한반도, 일본열도 각지에서 출토되는 각종 論語類 목간자료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論語』에 대한 연구는 이미 그 수를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으며,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삼국(한·중·일)출토 論語簡에 관한 全論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⁴⁾

필자가 새삼스럽게 『論語』를 주목하게 된 것은 남창 해훈후 묘에서 나온 『論語』 木簡(海昏侯 『論語』 木簡)의 사진과 석문이 공개된 후⁵⁾, 서사매체로서 『論語』가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조망해

1) 협의적인 측면에서 木簡은 나무를 재질로 하는 簡형식의 서사도구를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나무이외 대나무(竹) 재질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도 簡뿐만 아니라 牘·觚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광의적인 의미로 木簡이라는 용어를 썼다. 즉 대표적인 서사매체로 이해한 것이다. 다만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질상 구분이 필요하면 ‘竹’(竹簡·竹牘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형태의 구분이 필요할 때는 ‘簡’이외 ‘牘’·‘觚’ 등을 써서 구체화할 것이다. 이러한 木簡 개념에 대해서는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2007, p.37을 참조한 것이다.

2) 『漢書』 「藝文志」 p.1717: “論語者, 孔子應答弟子時人及弟子相與言而接聞於夫子之語也.”(본고는 『漢書』, 中華書局, 1962를 底本으로 함).

3) 김학주, 『중국의 경전과 유학』, 명문당, 2003, p.46.

4) 예컨대 김경호·이영호 編,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에는 한·중·일 『論語』 木簡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 한·중·일 『論語』 木簡을 비교한 논문으로 김경호, 「출토 문헌 논어, 고대 동아시아사에서의 수용과 전개」와 윤재석, 「한국·중국·일본 출토 『논어』 목간의 비교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5) 戶內俊介, 「海昏侯墓出土木簡『論語』初探」, 『中國出土資料研究』 24, 2020.

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海昏侯『論語』木牘은 ‘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簡’보다 넓은 서사공간에 기록된 것이다. 木牘에『論語』가 기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즉 編綴簡으로 된『論語』를 당시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論語』木牘은 일종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木牘에는『論語』의 일부 구절을 摘錄했으며, 이렇게『論語』의 摘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簡牘도 흔치 않다. 海昏侯『論語』木牘은 외형과 서사 방식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論語』의 摘錄을 비롯해 외형상의 특이점을 비단 海昏侯『論語』木牘에만 한정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海昏侯『論語』木牘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일본의『論語』木簡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각 지역의『論語』木簡 내용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論語』의 摘錄과 변형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중국내륙의 海昏侯『論語』木牘 및 각종『論語』竹·木簡, 한반도의 평양 정백동『論語』竹簡, 김해 봉황동·인천 계양산성·부여 쌍북리『論語』木觚, 그리고 일본열도의 각종『論語』木簡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 차례대로 검토한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이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중국내륙·한반도 평양 출토『論語』竹·木簡은 前漢중기이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는 광의적 의미의 木簡이 주요 서사매체로 사용된 簡牘시대⁶⁾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論語』를 摘錄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태적 측면에서 木牘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海昏侯『論語』木牘 등 그 당시『論語』簡牘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前漢 중후기는 아직『論語』의 판본이 통합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海昏侯『論語』木牘은 판본과 관련해서도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고는 海昏侯『論語』木牘을 시작으로, 관련『論語』簡牘의 내용을 현행본과 비교·분석해가며 판본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摘錄의 의미와 변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발견되는『論語』木簡은 대략 5세기이후부터 8세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이 때는 紙木병용기로 木簡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論語』도 존재했을 것이다. 또한『論語』본문도 하나로 정형화되고 여기에 대한 注疏가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紙木병용기 한반도·일본에서『論語』를 摘錄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木簡의 형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摘錄 및 형태문제)는 결국『論語』木簡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고, 활용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역시 목간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일본열도『論語』木簡의 내용을 현행본⁷⁾과 비교하여 木簡의 용도를 추론한 후 논의를 확장해 갈 것이다.

I. 簡牘시대 『論語』木牘의 특징과 版本문제

1. 海昏侯『論語』木牘분석

海昏侯『論語』木牘은 『海昏簡牘初探』에서 사진 자료가 공개되었으며⁸⁾ 戶內俊介교수의 「海昏侯墓出土木牘『論語』初探」에서는 사진과 석문이 함께 공개되었다. 그 석문내용과 사진은 다음과 같다.⁹⁾

6) 簡牘은 광의적 의미의 木簡에서 형태를 강조한 용어이다.

7) 본고는 현행본으로 朱熹의 『論語集注』을 참조했다(底本으로 朱熹 註 성백효 譯註, 『論語集注』전통문화원 구회, 2010참조). 何晏 注·皇侃 義疏의 『論語集解義疏』는 『論語集注』와 『論語集解義疏』의 구절이 다른 경우 출처를 따로 기술하였다(底本으로 何晏 注·皇侃 義疏, 王雲五 主編, 『論語集解義疏』, 商務印書館, 1937을 참조).

8) 朱鳳瀚 主編, 『海昏侯簡牘初論』, 北京大學出版社, 2020, p.390.

9) 戶內俊介, 「海昏侯墓出土木牘『論語』初探」, 『中國出土資料研究』24, 2020. 국내에서도 김경호, 「전한시



海昏侯『論語』木牘

제1열	孔子曰, “衛公子楚善居室. 始曰 ‘苟合矣’. 少有曰 苟完矣. 富‘苟美’.” △子 [路扁(篇)]
제2열	孔子曰, 吾有知乎哉. 毋知. 有鄙夫問乎, 吾空_(空空)如也, 扣(叩)其兩端而竭. 子罕扁(篇)
제3열	孔子曰, 吾自衛反於魯, 然后(後)樂正, 邪(雅)頌各得其所. ●孔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 △子罕扁(篇)
제4열	[孔]子曰, “善人爲國百年, 亦可以勝殘去殺. 誠[哉是言]也.” ●知, 人其舍諸. 鳥. △子路扁(篇)
제5항	□□□季氏. 子曰, 先有司, 赦小(過)賢(過)

위 釋文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子路篇」·「子罕篇」의 구절을 摘錄했지만, 제3열에는 「雍也篇」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상기 『論語』木牘을 각 항별로 定州『論語』竹簡(정주본으로 약칭)¹⁰⁾ 및 현재 통용되는 『論語』(현행본으로 약칭)의 내용과 비교해 볼 것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論語』簡牘 중 정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부 缺簡이 있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論語』의 全文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海昏侯『論語』木牘과 정주본의 시대적 배경은 모두 宣帝시기로 시간 차도 크지 않다.¹¹⁾ 따라서 『論語』의 판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주본을 비롯하여 현행본의 내용과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海昏侯『論語』木牘의 1열 내용을 검토해 보자.

海昏侯『論語』木牘 제1열	孔子曰, “衛公子楚善居室. 始曰 ‘苟合矣’. 少有曰 苟完矣. 富‘苟美’.” △子 [路扁(篇)]
정주본	子謂衛公…… 曰: ‘苟合矣.’ 少有, (331)
현행본	子謂衛公子荆, “善居室. 始有, 曰: ‘苟合矣.’ 少有, 曰: ‘苟完矣.’ 富有, 曰: ‘苟美矣’” (「子路篇」)
현행본해석	孔자가 위나라 공자 “荆”에 대해 이르길, “집안을 잘 다스렸다. 처음 (재산이) 있기 시작하자, ‘진실로 (충분히) 모였다’고 말하였고, 약간 있게 되자 ‘진실로 갖추었다’라고 말했으며, 부유해지자 ‘진실로 훌륭하다’라고 말하였다”

※밀줄 필자강조

제1열을 보면 孔子의 말씀을 적을 때 “孔子”로 직접 언급하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제2,3열에서도 발견된다. 정주본과 현행본에서는 이 경우 “子”로 약칭하고 “孔子”로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서사자가 “子”로 약칭되지 않은 論語판본을 보고 摘錄했음을 암시한다. 해훈후 『論語』木牘 “衛公子楚”

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齊論』 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 2018, pp.505-506에서도 王剛, 「見的若干海昏「論語」簡試釋」, 『孔廟國子監論叢』, 2017을 인용하여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사진과 석문을 함께 비교하기 위해 戶內俊介의 글을 인용하였다.

10) 河北省文物研究所定州漢墓竹簡整理小組, 『定州漢墓竹簡-論語』, 文物出版社, 1997.

11) 海昏侯 묘에서는 宣帝 “元康四年六月”이란 명문이 보여 해훈후 묘의 하한 연대는 원강4년(B.C.62)이전으로 본다. 여기서 발견된 『論語』簡牘은 그 이전 작성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定州『論語』竹簡이 출토된 묘의 주인은 중산군 회왕 유수로 宣帝 五鳳3년(B.C.55)에 사망했다. 따라서 이 竹簡은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며, 결국 해훈후 『論語』簡牘과 定州『論語』竹簡은 모두 宣帝시기 작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김경호, 「前漢 海昏侯 劉賀 墓의 性格과 『論語』竹簡」, 『사림』 60, 2017, p.412).

와 현행본 “衛公子荊”의 차이도 눈에 띄는데, 이는 피휘문제를 떠올릴 수 있다.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¹²⁾에 근거하면 秦 莊襄王인 “楚”를 피휘하여 “荊”으로 바꿔야 할 것 같지만 위 木牘에서는 “楚”를 피휘하지 않았다. 현행본에서는 오히려 “荊”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戶內俊介 교수는 楚-荊의 차이를 피휘문제로 접근하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①公子 “荊”의 다른 이름이 “南楚”였고 이를 근거로 현행본의 주요근거인 魯論語와 다른 판본이었을 가능성, ②誤記일 가능성을 제시했다.¹³⁾ 본고는 公子“楚”로 기록한 다른 판본일 가능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피휘문제의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楚-荊의 피휘관계는 秦代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漢代 『論語』를 抄寫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邦-國처럼 漢代정황을 반영한 피휘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편 海昏侯 『論語』 木牘의 “始曰, ‘苟合矣’. 少有曰, 苟完矣. 富‘苟美’”는 현행본의 “始有, 曰: ‘苟合矣.’ 少有, 曰: ‘苟完矣.’ 富有, 曰: ‘苟美矣.’”에 대응된다. 이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현행본의 표현이 좀 더 정제되어 있다. 현행본은 “始有, 曰……少有, 曰……富有, 曰”로 표현방식이 일관되어 있지만, 海昏侯 『論語』 木牘은 “始曰…… 少有曰……富”로 일관되어 있지 않다. 정주본의 경우 해당 내용의 缺失이 많아 선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정주본의 “子謂衛公”부분이 현행본과 같은 반면, 海昏侯 『論語』 木牘과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이는 정주본이 海昏侯 『論語』 木牘보다 더욱 현행본에 가깝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다음 제2열을 보자.

海昏侯 『論語』 木牘 제2열	孔子曰, 吾有知乎哉. 毋知. 有鄙夫問乎, 吾空_(空空)如也, 扣(叩)其兩端而竭. 子罕扁(篇)
정주본	智□哉? 無智也. 有鄙夫問乎我, 空空如□ (219)
현행본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子罕篇」)
현행본 해석	孔子가 말씀하시길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비루한 자가 나에게 물었을 때, 텅비어 있는 듯해도 나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두 들추어 내어 모두 일러줄 것이다”

※밑줄 필자강조

海昏侯 『論語』 木牘 제2열의 구절도 정주본·현행본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내용구성은 같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海昏侯 논어목록간의 “毋知”는 정주본에서 “無智也”, 현행본에서는 “無知也”로 표현되었다. 海昏侯 『論語』 木牘과 정주본이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毋-無, 知-智이 혼용되었다가 無와 知로 통합되어 현행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¹⁴⁾

海昏侯 『論語』 木牘의 “有鄙夫問乎, 吾空_(空空)如也”도 정주본에서는 “有鄙夫問乎我, 空空如□”, 현행본에서는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라고 하여 乎-於, 吾-我的 차이가 보인다. 먼저 乎로 할 경우 “……乎, 我空空如”로 구두점을 찍어도 되고, “……乎我, 空空如”라고 하여 乎뒤에 我를 붙인 후 구두점을 찍어도 된다. 海昏侯 『論語』 木牘처럼 “我”가 아닌 “吾”로 쓴다면 “……乎, 吾空空如”가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현행본에서는 乎부분을 於로 표현했다. 이 경우는 “……於我, 空空如”로 “於”뒤에 “我”를 붙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於가 어미에 쓰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판본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乎”를 “於”로 바꿔 문장의 전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본의 “焉”도 『論語』 木牘 제2열 마지막에는 빠져있다. 이는 木牘의 서사자가 摘錄과정

12) 『漢書』卷1「高帝紀」p.58: “如淳曰: ‘荊亦楚也.’ 賈逵曰: ‘秦莊襄王名楚, 故改諱荊, 遂行於世.’”; 『史記』卷73「白起王翦列傳」, p.2338: “【集解】徐廣曰: ‘秦諱楚, 故云荊也.’”

13) 戶內俊介, 「海昏侯墓出土木牘 『論語』 初探」, 『中國出土資料研究』24, 2020, pp.36-39.

14) 선행연구에서는 毋·無를 부사와 동사적 용법으로 나눠 해석하기도 하고, 智가 知보다 더 오래된 용법으로 본다. 적어도 前漢중기에는 毋·無 및 智·知가 서로 혼용되어 동일상황을 지칭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智에서 知로 정합되어 가는 과정은 김경호, 「전한시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齊論』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107, 2018, pp.504-505참조.

에서 “焉”을 빠뜨렸을 가능성이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위해 현행본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海昏侯『論語』木牘 제3열의 내용을 보자.

海昏侯『論語』 木牘 제3열	孔子曰，吾自衛反於魯，然後(後)樂正，邪(雅)頌各得其所。●孔子曰，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民鮮/久。△子罕扁(篇)
정주본	……曰：“吾自衛反於魯，然□□正，雅頌各得〔其所〕。(229)(「子罕篇」)
현행본	子曰：吾自衛反魯，然後樂正，雅頌各得其所。(「子罕篇」) 子曰：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民鮮久矣。(「雍也篇」)
현행본 해석	孔子가 말씀하시길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되돌아온 뒤에야 음악이 바로 잡히어, 아(雅)와 송(頌)이 각각 제자리를 얻었다.” 孔子가 말씀하시길 “중용의 덕은 지극한 것이다. 사람들 중에 이를 지닌 이가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

※밑줄 필자강조

여기서는 篇題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海昏侯『論語』木牘 제3열에서는 현행본「子罕扁」과「雍也篇」에 해당하는 구절을 함께 적었다. 그런 후 제3열 마지막에 “子罕扁”이라 적어, 두 구절을「子罕篇」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사자가 편의상 한 편의 제목만 기입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海昏侯『論語』木牘의 底本이 각 편별 내용구성 측면에서 현행본과 달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정주본에서는「雍也篇」에 해당하는 현행본의 구절(“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民鮮久矣”)이 보이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해당 구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표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海昏侯『論語』木牘과 定州本에는 “吾自衛反於魯”로 되었지만, 현행본에는 “吾自衛反魯”라고 하여 “於”가 빠져있다. 『論語集解義疏』에는 “吾自衛反於魯”로 “於”가 있다.¹⁵⁾

이 경우는 아마 “於”가 빠더라도 의미가 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論語集解義疏』 이후 특정 시기에 “於”를 빼고 간략하게 표현한 것 같다. 海昏侯『論語』木牘의 “邪頌”은 정주본·현행본에서 모두 “雅頌”으로 표현했다. “邪”는 여기서 “우아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秦簡에서 邪가 “邪避(僻)”, 즉 간사하다는 의미로도 쓰인 용례가 있는 만큼,¹⁶⁾ 서사자가 잘못 썼거나 혹은 판본이 통합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雅로 바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 같다. 다음으로 『論語』木牘 제4열을 보자.

海昏侯『論語』 木牘 제4열	[孔]子曰，“善人爲國百年，亦可以勝殘去殺。誠[哉是言]也。”●知，人其舍諸。 烏。△子路扁(篇)
정주본	舉壘所知；壘所不知，人其舍□(323)(「子路篇」) 子曰：善人爲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誠哉是[言也](334)(「子路篇」)
현행본	舉爾所知。爾所不知，人其舍諸？(「子路篇」) 子曰：“善人爲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誠哉是言也。”(「子路篇」)
현행본 해석	네가 아는 바(아는 사람)를 등용하라. 네가 모르는 바에 대해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는가? 孔子가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이 나라를 백년간 다스리면, 잔학한 자를 이겨내고 사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옳다. 이 말은.

※밑줄 필자강조

15) 『論語集解義疏』卷5「子罕第九」, p.124.

16) 『睡虎地秦簡』「語書」：“今法律令已布，聞吏民犯法爲間私者不止，私好·鄉俗之心不變，自從令·丞以下智(知)而弗舉論，是即明避主之明法毆(也)，而養匿邪避(僻)之民(陳偉主編，『秦簡牘合集(壹)』，武漢大學出版社，2014, p.30). ※밑줄 필자강조.

海昏侯『論語』木牘 제4열의 두 구절은 현행본의 「子路篇」에 해당한다. 실제로 제4열 마지막에 “子路扁(篇)”이라고 하여 편제는 일치한다. 그러나 두 구절이 등장하는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 방식 측면에서 定州本·현행본과 약간 다르다. 즉 현행본(現『論語』)을 기준으로, “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가 먼저 나오고,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가 뒤에 등장하지만, 海昏侯『論語』木牘의 제4열은 거꾸로 되어있다. 定州本의 경우, 현행본의 구절 배치와 일치한다. 이는 海昏侯『論語』木牘의 底本이 定州本·현행본과 다르거나, 서사자가 摘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거꾸로 적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표현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定州本의 경우 일부 글자가 缺落된 것을 제외하면 현행본과 일치한다. 반면 海昏侯『論語』木牘 제4열의 두 번째 구절인 “●知, 人其舍諸. | 鳥”라고 하여, 현행본의 “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와 차이를 보인다. 즉 현행본의 “舉爾所知. 爾所不”부분이 海昏侯『論語』木牘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을 알려준다. 첫째 서사자가 참고한 『論語』底本에는 “舉爾所知. 爾所不”라는 구절이 없을 가능성, 둘째 서사자가 앞의 내용을 빼고 摘錄했을 가능성이다. 海昏侯『論語』木牘의 “知, 人其舍諸”는 “안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라며 해석상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두 번째 가능성 모두 신빙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서사자가 劉賀라는 가정하에, 왜 하필 이 구절을 적었는가에 있다. 이 문제는 후술하겠다.

한편 海昏侯『論語』木牘 제4열의 첫 번째 구절인 “[孔]子曰, 善人爲國百年, 亦可以勝殘去殺. 誠[哉是言]也”는 현행본의 “子曰: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에 해당한다. 우선 눈에 띄는 차이는 “國”과 “邦”인데, 海昏侯『論語』木牘에서는 “邦”대신 “國”으로 적고 현행본에서는 “邦”으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漢代의 피휘상황이 海昏侯『論語』木牘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¹⁷⁾ 定州『論語』竹簡에서는 “善人爲邦百年”이라 기록되어 “邦”을 그대로 적었다. 즉 “邦”을 피휘하지 않은 셈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데로 다른 계통의 판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定州『論語』竹簡의 전체 “邦”-“國”의 사용비율을 보면, 현행본에 비해 邦의 사용비율이 매우 낮다.¹⁸⁾ 따라서 定州『論語』竹簡은 海昏侯『論語』木牘의 底本과 다른 판본인 동시에, 漢代의 피휘상황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誠[哉是言]也”의 경우, “哉是言”부분이 흐릿하여 알아보기 어렵지만, 필획을 보았을 때 “哉是言”으로 석독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海昏侯『論語』木牘 제4열의 첫 번째 구절은 孔子의 표현방식, 國·邦의 차이 외에는 현행본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海昏侯『論語』 木牘 제5열	□□□季氏. 子曰, 先有司, 赦小 _過 (過) 賢 _才
정주본	……爲季氏□, 問正. 子……
현행본	仲弓爲季氏宰, 問政. 子曰: 先有司, 赦小過, 舉賢才. 「子路篇」
현행본 해석	仲弓이 季氏의 家宰가 되어 政事를 물었다. 孔子가 대답하길, 有司에게 먼저 시키고(혹은 술선수법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 주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라.

※밑줄 필자강조

海昏侯『論語』木牘 제5열의 내용도 정주본·현행본과 약간 다르다. 먼저 제5열의 경우 “季氏”뒤에 “子曰, 先有司…”로 이어지는 반면, 현행본에서는 季氏뒤에 “宰, 問政”이 추가되어 있다. 정주본도 季氏뒤에 “□, 問正”이 추가되어 있다. 제5열에서 季氏앞의 내용이 결락되어 관련 내용이 있을 가능성

17) 王剛, 「從定州簡本避諱問題看漢代〈論語〉的文本狀況——兼談海昏侯墓〈論語〉簡的價值」, 『許昌學院學報』2017-3참고.

18)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東洋史學研究』114, 2011, pp.37-38에 따르면, 定州『論語』竹簡에 “邦”은 1사례, “國”은 26사례가 등장하여 “國”의 사용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定州『論語』竹簡의 저본은 아마 漢初 劉邦이 집권했을 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적어도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밖에 현행본 “過”와 海昏侯『論語』木牘 “化”의 차이도 있는데 “化”를 “過”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주본에서는 해당 내용의 결락이 심하지만, “問正”과 “問政”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구조나 내용은 현행본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정주본-현행본보다 海昏侯『論語』木牘-현행본의 차이가 더 크다. 물론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주본에도 여러 通假字나 古文의 字形이 보이는 등 차이가 있지만¹⁹⁾ 전반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이 때문에 정주본을 魯論계통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²⁰⁾ 海昏侯『論語』木牘도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은 현행본과 비슷하다. 그러나 篇題 및 표현방식에서 정주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더 크다. 海昏侯『論語』木牘은 서사자가『論語』의 일부를 摘錄한 것이기 때문에, 구절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탃자가 생기거나 임의대로 문장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木牘에서 발견되는 현행본 사이의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海昏侯『論語』木牘이 海昏侯『論語』簡(현재 일부만 공개된 상태)을 참고해서 摘錄된 것이라면 海昏侯『論語』簡-현행본의 차이도, 정주본-현행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海昏侯『論語』簡이 齊論일 가능성²¹⁾, 魯論·齊論·古論으로 분류하기 전의 판본²²⁾일 가능성이다. 異見이 발생한 원인은 海昏侯『論語』簡의 일부 특징이『漢書』「藝文志」에 언급한 齊論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漢書』「藝文志」에는 齊論이 22편으로 「問王」·「知道」2편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陳侃理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海昏侯『論語』簡은 「智道」(「知道」)만 포함하고 「問玉」(「問王」) 편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漢書』「藝文志」에서 말한 齊論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齊論이 형성되는 중간단계로 이해한 것이다.²⁴⁾ 그렇다면 이러한 異見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우선『論語』는 前漢初에 이미 流傳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新語』나『新書』에는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論語』의 구절을 인용한 사례가 보인다.²⁵⁾ 이는 前漢初 陸賈와 賈誼등이『論語』를 학습했음을 시사한다.²⁶⁾ 비록 後漢 趙岐의 언급이기는 하지만, 文帝시기『論語』에 관한 博士를 두었다고 했다.²⁷⁾ 이러한 정황을 보면 前漢初에 조정을 비롯해 각 지역의 지식인들 사이에『論語』가 流傳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論語』는 구전²⁸⁾되거나 필사하는 형식으로 傳承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論語』를 抄寫하는 과정에서 通假字를 넣거나 오탃자가 생길 수 있고, 일부 篇만 抄寫하여 傳承될 수도 있다. 구전의 경우는 내용상 변형이 더욱 심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論語』판본이 流傳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論語』판본들이『漢書』「藝文志」

19) 박재복, 「출토문헌에 보이는『論語』고찰 - 定州 漢墓와 敦煌에서 발견된『論語』「述而」편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36, 2009, pp.144-155 및 p.159.
 20) 單承彬, 「定州漢墓竹簡本《論語》性質考辨」, 『孔子研究』 2002年第2期; 單承彬, 「定州漢墓竹簡本《論語》爲“魯論”考」, 『文史』 2001年 第3輯.
 21) 김경호, 「전한시기『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논어』의『齊論』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 2018, pp.502-509.
 22) 陳侃理, 「海昏竹書《論語》初探」, 『海昏侯簡牘初論』, 北京大學出版社, 2020, pp.160-161.
 23) 『漢書』卷30「藝文志」, p.1716: “齊二十二篇. 多問王·知道.”
 24) 陳侃理, 「海昏竹書《論語》初探」, 『海昏侯簡牘初論』, 北京大學出版社, 2020.
 25) 예컨대『新書』「容經·兵車之容」에서는 “故過猶不及, 有餘猶不足也”라고 하여, 『論語』「先進」의 “過猶不及”구절을 인용하였고, 『新書』「容經·兵車之容」의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도 『論語』「雍也」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新語』「道基」: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이라는 구절도 『論語』「季氏」편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 외에도『新書』·『新語』에는 누차 『論語』구절을 인용한 사례가 나온다.
 26) 王鐵, 「試論《論語》的結集與版本變遷諸問題」, 『孔子研究』 1989-1, p61.
 27) “漢興除秦虐禁, 開延道德. 孝文皇帝欲廣遊學之路, 論語孝經孟子爾雅, 皆置博士”(〔漢〕趙岐 注, 〔宋〕孫奭 疏, 『孟子注疏』, 上海古籍出版社, 1990, p.6의 「論語注疏題辭解」).
 28) 박재복, 「출토문헌에 보이는『論語』고찰 - 定州 漢墓와 敦煌에서 발견된『論語』「述而」편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36, 2009, p.156.

에 기록된 齊論 22편·魯論 20편의 고정된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듯이 魯論·齊論·古論으로 『論語』 판본을 명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 것은 武帝 시기 이후로 추정한다.²⁹⁾ 그 근거로 『漢書』 「藝文志」에서 魯論과 齊論을 전수한 사람을 기록했는데³⁰⁾ 이들이 모두 武帝시기 이후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전국에 流傳되는 여러 『論語』 판본을 三論(魯論·齊論·古論)의 특징에 맞게 정형화하거나 整合시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三論으로 命名하기 前後 모두 그러하다.

관련 사례로 『漢書』 「匡張孔馬傳」을 보면 成帝시기 張禹가 『論語章句』(이른바 『張侯論』)를 저술하여 바쳤을 당시, 儒者들이 강론한 『論語』의 “篇第”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篇第”는 篇章의 순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論語』의 “篇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결국 齊論이 魯論보다 2편 더 많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篇章의 순서도 달랐음을 암시한다. 成帝시기는 三論을 이미 파악한 후로 추정되지만 魯論·齊論 등의 여러 판본이 정형화되지 않았던 사정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武帝시기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論語』 판본을 조사하고, 비슷한 판본들끼리 모아 魯論과 齊論으로 大別(혹은 유형화·범주화)했다고 추측한다. 각각의 篇數에 대해서는 魯論·齊論으로 분류한 판본들의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여 기준으로 삼았거나, 혹은 특정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 魯論 20편·齊論 22편이라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 魯論과 齊論의 범위 내에는 세부 판본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자의 옛집에서 나온 古論의 특징까지 포함하여 『漢書』 「藝文志」에 魯論 20편·齊論 22편·古論 21편이라 기록했다. 그 외 齊說·魯夏侯說 등 여타 論語類 상황도 『漢書』 「藝文志」에 수록되었을 것이다.³²⁾

범주의 개념으로 魯論·齊論을 이해한다면, 魯論·齊論의 특징에 조금씩 맞지 않는 출토자료가 나오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출토자료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魯論·齊論이 아니라,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해 魯論類·齊論類(혹은 魯論계통·齊論계통)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그 분류기준으로 齊論에는 「문왕」 편·「지도」 편이 추가로 보이는 점, 張禹가 魯論을 전수받아 齊論의 좋은 점을 취합하여 張侯論(『論語章句』)을 만든 점, 여기에 鄭玄이 魯論의 篇章을 취하고 齊論·古論을 검토하여 注를 단 기록을 참고할 만 하다.³³⁾ 이는 魯論이 내용과 형식에서 齊論보다 지금의 『論語』에 훨씬 가까웠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본과 비교했을 때 「문왕」 편 또는 「지도」 편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篇數의 특이점이 보이는 경우, 구절이나 표현의 차이가 비교적 큰 경우, 그 판본은 齊論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海昏侯 『論語』 木牘은 아마도 같은 묘에서 발견된 海昏侯 『論語』 簡을 보고 적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海昏侯 『論語』 중에는 「智道」 편명이 나왔다.³⁴⁾ 그 내용도 앞서 언급했듯이 정주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그 밖에 王吉은 齊論의 전수자이자 전문가로 유명했고 昌邑國의 中尉를 역임하면서 昌邑王(즉 유하)에게 수차례 간언을 한 것으로 보여³⁵⁾, 유하와 王吉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29) 唐明貴, 『《論語》學的形成·發展與中衰:漢魏六朝隋唐《論語》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p.60.

30) 『漢書』 卷30 「藝文志」, p.1717: “漢興, 有齊·魯之說. 傳齊論者, 昌邑中尉王吉·少府宋畸·御史大夫貢禹·尚書令五鹿充宗·膠東庸生, 唯王陽名家. 傳魯論者, 常山都尉龔奮·長信少府夏侯勝·丞相韋賢·魯扶卿·前將軍蕭望之·安昌侯張禹, 皆名家. 張氏最後而行於世.”

31) 『漢書』 卷70 「匡張孔馬傳第五十一」, p.3352: “初, 禹爲師, 以上難數對己問經, 爲論語章句獻之. 始魯扶卿及夏侯勝·王陽·蕭望之·韋玄成皆說論語, 篇第或異.” ※밑줄 필자강조.

32) 『漢書』 卷30 「藝文志」, p.1717: “論語古二十一篇. 出孔子壁中, 兩子張. 齊二十二篇. 多問王·知道·魯二十篇, 傳十九篇. 齊說二十九篇. 魯夏侯說二十一篇. 魯安昌侯說二十一篇. 魯王駿說二十篇. 燕傳說三卷. 議奏十八篇. 石渠論. 孔子家語二十七卷. 孔子三朝七篇. 孔子徒人圖法二卷. 凡論語十二家, 二百二十九篇.”

33) 『論語集解義疏』 「論語集解敘」: “安昌侯張禹, 本受魯論, 兼講齊說, 善者從之, 號曰張侯論, 爲世所貴, 包氏·周氏章句出焉…(생략)…漢末大司農鄭玄就魯論篇章, 考之齊·古爲之注”(何晏 注·皇侃 義疏, 王雲五 主編, 『論語集解義疏』, 商務印書館, 1937, p.2)

34) 金경호, 「전한시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齊論』 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 2018, p.61에서 공개한 海昏侯 『論語』 簡 중 “孔子智道之易也 易易云者三日 子曰此道之美也 莫之御也 / 智道”를 참조한 것이다. 이 簡문의 출처는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南昌市博物館·南昌市新建區博物館, 「南昌市西漢海昏侯墓」, 『考古』 7, 2016, p.61.

수 있다. 나아가 왕길에 의해 齊論이 이 일대에 유행했다면 유하가 참고한 『論語』 판본도 齊論계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海昏侯 『論語』 木牘을 비롯해 그 저본까지도 齊論類에 가깝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海昏侯 『論語』 簡은 三論(魯論·齊論·古論)으로 명명하기 전 판본일 수도, 명명한 후의 판본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슷한 판본들을 魯論·齊論 등으로 분류해서 유형화했을 뿐, 인위적으로 三論에 맞게 다양한 판본을 정형화시킨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定州 『論語』 竹簡(정주본)은 현행본과 비교했을 때 일부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篇數도 일치한다. 물론 정주본이 魯論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魯論범주에 속한 魯論類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는 서사자가 木牘에 『論語』를 摘錄한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 海昏侯墓에서 발견된 만큼, 이 木牘의 서사자는 劉賀이거나 최소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자가 木牘에 『論語』 내용을 摘錄한 배경에는 아마 당사자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본고는 劉賀의 정치행적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보았다.

주지하듯이 昌邑王 劉賀는 昭帝사후 皇帝로 옹립되었으나 27일 만에 폐위당했다. 표면적으로는 음란하고 가무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폐위 이유이다.³⁶⁾ 그러나 海昏侯墓에서 유가 경서류 및 의서, 방술서 등 각종 서적이 나온 것을 보면 그의 식견이 낮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마 당시 권력자였던 霍光과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결과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³⁷⁾ 본고도 이 견해가 일리 있다고 보며, 만약 유하 본인 혹은 관련인이 『論語』 木牘을 적었다면 해당 『論語』 구절을 적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먼저 제1열의 『論語』 내용을 摘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해당 구절에서는 재산이 생기고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公子 “荊”이 “苟”를 써서 말한 것이 점이 주목된다. 『論語集解義疏』에서는 “苟”가 “苟且”이고 本意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³⁸⁾ 본고는 “苟”를 통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유하가 이 구절을 摘錄했다면, 아마도 황제 자리에 올랐다가 폐위된 자신의 상황에 개의치 않으려는 목적이 함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2열의 내용은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論語集註』에서 언급한 데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 구절인 것이다.³⁹⁾ 이 역시 유하의 事跡을 비춰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실제로 그는 정쟁에 휘말려 황제위에서 물러났으며, 그런 만큼 차후 처신에도 주의가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일종의 勸戒로서 상기 구절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3열의 첫 번째 내용은 공자가 오자 음악이 바로 잡혔음을 스스로 찬탄한 것이다. 이는 공자가 오기 전에는 이 지역의 음악이 바로 잡히지 않은 음란한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 뒤이은 제3열의 「옹야편」 구절도 中庸의 德을 찬탄하는 동시에, 中庸의 德을 가진 民이 희소함을 탄식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유하가 퇴위된 후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 혹은 그러한 세상을 아쉬워하는 심정에 관련 내용을 摘錄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유하가 소재한 창읍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적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4열은 위정자들이 올바른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인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을 시

35) 『漢書』卷72「王貢兩龔鮑傳」, pp.3058-3061: “王吉字子陽, 琅玕皋虞人也…(중략)…舉賢良為昌邑中尉, 而王好遊獵, 驅馳國中, 動作亡節, 吉上疏諫, 曰…(중략)…吉輒諫爭, 甚得輔弼之義, 雖不治民, 國中莫不敬重焉.”

36) 이는 霍光 및 여러 신하들이 황태후에게 상주한 글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다. 『漢書』卷68「霍光金日磾傳」, p.2944: “與從官官奴夜飲, 湛沔於酒…(생략)…荒淫迷惑, 失帝王禮誼, 亂漢制度.”

37) 김경호, 「前漢 海昏侯 劉賀 墓의 性格과 『論語』 竹簡」, 『사림』 60, 2017, pp.407-409.

38) 『論語集解義疏』卷7「子路第十三」 pp.179-180: “苟, 苟且也. 苟且非本意也. 于時人皆無而為有, 虛而為盈, 奢華過實. 子荊初有財帛, 不敢言己才力所招, 但云是苟且遇合而已.”

39) “程子曰: 聖人之教人, 俯就之若此, 猶恐衆人以爲高遠而不親也. 聖人之道, 必降而自卑, 不如此則人不親, 賢人之言, 則引而自高, 不如此則道不尊(朱熹 註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0, p.247)”

사한다. 아울러 善人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가를 기술하였다. 제5열의 내용도 스스로 본을 보이고 작은 과실을 용서하여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창읍왕으로서 올바르게 政事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창읍국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유하가 겪은 경험을 감안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조정에 대한 아쉬움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 이처럼 유하(혹은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勸誡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복잡한 心思도 함께 반영하여 『論語』의 구절을 摘錄한 것으로 추측했다. 물론 추측성이 강한 만큼 향후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論語』 판본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사자의 心思에 따라 인상깊은 구절을 적록한 사례를 볼 때, 『論語』가 가지는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같은 摘錄행위가 일반화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2. 다양한 『論語』 版本의 공존과 그 의미

海昏侯 『論語』 木牘을 통해 살펴본 版本의 다양함과 摘錄문제는 비슷한 시기 서북지역 출토 『論語』 木簡과 평양 정백동 『論語』 竹簡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前漢중후기~後漢초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다양한 표본자료가 있는 만큼, 상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懸泉置 『論語』 木簡⁴⁰⁾을 정주본 및 현행본과 비교해 보자.

순번	출처	懸泉置 『論語』 木簡 釋文·정주본·현행본 비교
①	懸泉置 『論語』 木簡	乎張也難與並而爲仁矣·曾子曰吾聞諸子人未有自致也者必也親喪乎·曾子曰吾聞諸子孟莊子之孝其他可能也其不改父之臣與父之 (「子張篇」)
	정주본	……父之臣與父之正也, 是〔難〕……(584)(「子張篇」)
	현행본	曾子曰:“堂堂(乎張也, 難與並爲仁矣.” 曾子曰:“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 曾子曰:“吾聞諸夫子: 孟莊子之孝也, 其他可能也; 其不改父之臣, 與父之政, 是難能也。(「子張篇」)
②	懸泉置 『論語』 木簡	□子張曰執德不弘 通道不篤焉能爲有焉能爲亡·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子張曰 (「子張篇」)
	정주본	……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曰何?” 對曰 (575)(「子張篇」)
	현행본	(子張曰: “執德不弘, 信道不篤, 焉能爲有? 焉能爲亡?”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子張篇」)
③	懸泉置 『論語』 木簡	·子張問曰士見危致命見德思義祭思 (「子張篇」)
	정주본	보이지 않음
	현행본	(子張曰: “士見危致命,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子張篇」)

※괄호내 굵은 글자는 현행본 내용 중 정주본과 현천치 『論語』 木簡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 필자 강조. 현행본과 簡文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위 표에서 분류한 懸泉置 『論語』 木簡은 현행본의 내용에 매우 근접하여 일부 어조사의 추가여부 및 표현만 차이가 있다. 예컨대 ①에서 현천치 『論語』 木簡은 “並而爲”라고 하여 현행본의 “並爲”보다 “而”가 추가되었고, 현행본의 “諸夫子”가 현천치 『論語』 木簡에서는 “諸子”로만 되어있다. ②에 따르면 현행본의 “信道”가 현천치 『論語』 木簡에서 “通道”로 표현되었다. ③을 보면 현행본의 “子張曰”이 현천치 『論語』 木簡에서 “子張問曰”로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세부적인 차이이며 현행본과 상당히 유사한 판본이 이미 그 일대에서 流傳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다음 사례를 보면

40) 懸泉漢簡 중 『論語』 木簡 추출은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p.60을 참조하였다.

같은 지역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論語』 판본만 流傳된 것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④	懸泉置 『論語』 木簡	之佻責惡衣謂之不肖善衣謂之不適士居固有不憂貧者乎孔子曰本子來
	현행본	해당내용 없음.

④의 현천치 『論語』 木簡 내용은 현행본에서 보이지 않는 구절이다. 더구나 “孔子曰”처럼 “子”로 약칭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본 중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④의 내용과 현행본의 차이가 큰 것을 보아 ④의 『論語』 底本이 ①②③의 『論語』와 다른 판본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천치 내에서도 서로 다른 『論語』 판본이 流傳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물론 같은 판본이 후대까지 流傳되며 ④내용이 생략되고 지금의 『論語』로 완성되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심지어 ④가 애초부터 『論語』의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論語類에 속한 다른 문헌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肩水金關漢簡의 『論語』 관련 木簡을 보면, 동일 지역에서 서로 다른 『論語』 판본이 流傳되고 있었다는 가정을 배재할 수 없다.

肩水金關漢簡의 『論語』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김경호 교수의 상세한 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3사례의 『論語』 관련 簡文 중 8사례는 현행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¹⁾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13사례의 論語簡의 특징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본에 보이는 5사례의 簡文을 중심으로 그 유사도를 분석해보자.

순번	簡번호 / 현행본 편	釋文과 현행본 내용비교
①	73EJT31:75	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
	현행본 「雍也」	“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
②	73EJT31:77	於齊冉子爲其母請
	현행본 「雍也」	子華使於齊，冉子爲其母請粟
③	73EJT15:20	子曰大伯其可
	현행본 「泰伯」	(子曰：“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
④	73EJT24:802	毋遠慮必有近憂
	현행본 「衛靈公」	子曰：“人(無遠慮，必有近憂)”
⑤	73EJT24:833	天何言哉四時行焉萬物生焉 年之喪其已久矣君子三
	현행본 「陽貨」	子曰：“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 “三(年之喪，期已久矣. 君子三)年不爲禮，禮必壞”

※ 괄호내 굵은 글자는 현행본 중 『論語』 木簡(肩水金關漢簡)에 해당하는 부분.

위 표에 따르면 ①~⑤의 簡文과 현행본의 해당내용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大伯”과 “泰伯”，“毋”와 “無”，“萬物”과 “百物”의 차이는 일종의 通假字로서 서로 치환할 수 있고 의미상의 차이도 거의 없다. ③에서는 공자의 말씀도 현행본처럼 “子曰”로 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견수금관한간 ①~⑤에 반영된 판본은 현행본과 거의 유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분류 방법에 따르면, 『論語』 簡 ①~⑤은 魯論類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일대에 魯論類만 유행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다음 현행본에 보이지 않는 ⑥~⑩의 내용을 보자.

41) 김경호, 「전한시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齊論』 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 2018, p.511. 견수금관한간에서 추출한 『논어』 관련 사례는 이 논문의 p.511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순번	簡번호	釋文
⑥	73EJT22:6	●孔子知道之易也易=云省三日子曰此道之美也☐
⑦	73EJT31:139	子曰自愛仁之至也自敬知之至也
⑧	73EJC:607	●子贛曰九變復貫知言之纂居而俟合憂心操念國之虐子曰念國者操_衡門之下
⑨	73EJT14:7	●子曰必富小人也貧小人也必貴小人也賤小人
⑩	73EJC:180	☐敬其父則子說敬其兄則弟說敬其君則☐
⑪	73EJT9:58	●子曰君子不假人君子樂☐☐
⑫	73EJT24:104	☐何以復見乎子贛爲之請子曰是☐
⑬	73EJH1:58	☐之方也思理自外可以知☐

※위 표는 김경호(2018), p.511의 내용임.

위 표에서 ⑥이 특히 주목된다. ⑥의 “●孔子知道之易也易=云省三日子曰此道之美也☐”는 현행본에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知道”라는 표현은 齊論의 「知道」편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는 ⑥을 齊論으로 보았다.⁴²⁾ 본고도 이 견해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簡文을 齊論의 전형적 형태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齊論에 가까운 판본 혹은 齊論類가 流傳되었다고 판단한다. ⑦~⑬도 현행본(現『論語』)에 보이지 않는 구절인 만큼, 齊論類이거나 魯論類로서 『論語』가 통합되는 과정 중 삭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⑥~⑬은 같은 지역이라도 서로 다른 판본이 流傳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魯論·齊論 등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論語』 판본을 命名하였다. 실제로는 같은 지역에서도 상이한 판본이 동시에 流傳되고 있었던 것이다.

평양 정백동 『論語』 죽간(평양본으로 약칭)도 前漢시기 『論語』 판본의 流傳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양본에서는 「선진」편과 「안연」편이 실려있다. 윤용구 교수는 평양본·정주본·현행본의 어구를 서로 비교해 수치로 나타낸 바 있다. 그 결과 평양본이 수치상으로는 현행본보다 정주본에 더 가깝지만, 평양본과 현행본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논증했다. 그래서 평양본을 魯論·齊論 등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⁴³⁾

필자도 평양본을 魯論이나 齊論으로 확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평양본에 보이는 한가지 특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평양본에서는 공자의 말씀을 대부분 “孔子曰”로 표현하여, 해당 구절에서 “子曰”로 표현한 현행본·정주본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평양본이 정주본보다 더 오래된 판본으로서 “孔子曰”을 “子曰”로 약칭하지 않았을 가능성, 둘째 평양본과 정주본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魯論類에 속하지만 세부 표현에서 서로 달랐을 가능성, 셋째 평양본이 齊論類에 속할 가능성이다. 海昏侯 『論語』 木牘이나 견수금관한간(⑥)에도 “子曰”이 아닌 “孔子曰”로 표현되어 있으며, 형식이나 내용상 齊論類에 가깝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평양본을 齊論類로 분류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므로, 평양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차후 보충이 더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판본이 유전되는 상황에 관하여 『張侯論』이 유행하며 다른 판본의 『論語』가 사라진 정황을 적은 『漢書』 「匡張孔馬傳」의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처음 張禹가 스승이 되었을 때, 皇上이 수 차례 경전의 뜻에 대해 묻기를 어려워하자, 『論語』

42) 김경호, 「전한시기 『논어(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 새로운 출토문헌 『논어』의 『齊論』 설과 관련하여」, 『역사와 현실』 107, 2018, p.510.

43) 윤용구, 「평양출토 『논어』 죽간의 기재방식과 이문표기」,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pp.201-203.

句』를 만들어 바꿨다. …(생략)… 張禹는 먼저 王陽에게 사사했고, 후에는 庸生이 따라 배웠는데, 적절한 것을 가려서 택한지라 마지막에는 출세하고 존귀해졌다. 여러 儒者들이 이것을 두고 말하길, “『論語』를 공부하려면 張禹의 글을 읽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張禹의 글을 공부하였고, 다른 學家는 점차 쇠퇴했다.⁴⁴⁾

본고에서는 張禹가 『論語章句』(『張侯論』)를 바친 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由是學者多從張氏, 餘家寢微”는 학자들이 張禹의 『論語』를 따르면서 다른 종류의 『論語』가 ‘점차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顏師古가 ‘寢微’에 대해 “寢, 漸也”⁴⁵⁾라고 언급한 것도 참조된다. 이는 사실상 국가에서 다양한 『論語』 판본의 流傳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張侯論』이 압도하게 된 것은 당시 학자, 즉 식자층에 의한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이지 국가적으로 강제된 결과가 아니다.

통일된 텍스트로 강제할 필요가 없었던 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論語』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할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前漢 중후기 유학을 익히기 위한 기본교재로서 『論語』를 학습했던 점은 분명하고, 내용이 길지 않은 만큼 개인적으로 암기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海昏侯 『論語』木牘의 사례처럼 일부만 摘錄하여 勸戒로 삼거나, 그 속에 자신의 心思를 반영할 만큼 『論語』가 다양하게 활용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관료임용이나 승진 등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前漢시기 같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論語』 판본이 流傳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별다른 통제가 없었다는 점은 아직 국가적 차원의 『論語』 교조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

이제 서사재료로서 『論語』木簡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海昏侯 『論語』木牘에는 서사자인 유하가 자신의 심정을 반영하여 『論語』의 일부구절을 적었다고 추론했다. 그렇다면 『論語』를 적록하는 행위가 海昏侯 『論語』木牘에만 한정될까? 서적으로서 『論語』의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定州 『論語』竹簡의 경우 전문을 포함하여 660매에 이르지만, 현전치 『論語』의 완질은 아마 137매 정도로 추론한 바 있다.⁴⁶⁾ 木簡의 길이와 글자 크기에 따라 매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全文이 많지 않은 양임에도 『論語』簡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 篇만 적은 編綴簡을 휴대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木牘의 경우도 다수를 편철하지 않는 이상 1·2매 정도의 木牘을 휴대하고 다니기 편리하다. 더구나 『論語』는 짧은 대화로 구성된 만큼 일부만 摘錄해서 보기에 적당하다. 앞서 본 海昏侯 『論語』木牘이 바로 그 예이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1매 혹은 몇 매 정도의 木牘에 『論語』내용을 摘錄해서 휴대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일부 내용만 摘錄해서 편철한 竹·木簡도 아마 존재했을 것이며, 심지어 1~2매의 竹·木簡에 중요 구절만 摘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서북지역에 발견되는 모든 『論語』簡들이 全文을 편철한 형식 중 일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평양본 『論語』簡도 전문을 작성한 후 일부 편만 매장했을 가능성과 애초부터 일부 편만 작성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簡牘시대에는 竹·木簡이 주요 서사매체였지만, 『論語』는 정형화된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簡牘시대인 前漢시기 編綴簡이 『論語』전문을 담은 底本으로서 일반적인 형태라면, 『論語』木牘은 형태적 측면의 變形과 활용적 측면의 應用을 보여준다. 일부 篇目만 簡으로 편철한 경우는 형태적 측면에서 변형이라 할 수 없지만, 활용적 측면의 應用이라 할 수 있다.

44) 『漢書』卷70 「匡張孔馬傳第五十一」, p.3352: “初, 禹爲師, 以上難數對己問經, 爲論語章句獻之. …(생략)…禹先事王陽, 後從庸生, 采獲所安, 最後出而尊貴. 諸儒爲之語曰: “欲爲論, 念張文.” 由是學者多從張氏, 餘家寢微.”

45) 상동

46)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53.

II. 紙木병용기 『論語』 木簡의 다양한 변형

1. 한반도 『論語』 木觚의 활용

앞서 前漢중후기 이후 중국내륙에서 『論語』가 流傳된 사정을 보면, 아직 본문이 정형화되지 않았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張侯論』이 유행하면서 異本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論語』본문의 내용도 정형화된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論語』 木簡 중 평양본을 제외하고 모두 『論語』판본이 정형화된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한강이남에서 발견되는 『論語』 木簡들은 木觚, 즉 다면목간형식으로 발견되어, 『論語』의 활용방식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여기서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論語』 木觚의 특징과 작성목적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김해 봉황동 『論語』 木觚와 인천 계양산성 『論語』 木觚를 살펴보자.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 木觚의 시대적 배경은 각각 6세기후반~7세기초와 4~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⁴⁷⁾

인천 계양산성 『論語』 木觚⁴⁸⁾

I	× 賤君子□若人□×
II	× 吾斯之未能信子□×
III	× □不知其仁也求也×
IV	× [· · · · · ·]×
V	× [· · · · · ·]子曰吾×

김해 봉황동 『論語』 木觚⁴⁹⁾

앞면	× 不欲人之加諸我吾亦欲无加諸人子×
좌측면	× □□([文也?])子謂子產有君子道四焉其×
뒷면	× 已□□□色舊令尹之政必以告新×
우측면	× 違之何如子曰清矣□仁□□曰未知×

계양산성과 봉황동에서 발견된 木觚는 모두 『論語』 「公治長」편을 기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부러진 형태로 발견되어 원래 길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문제가 되었다. 현재로서는 해당 木觚의 글자 간격 등을 고려하여 아마 1m가 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⁵⁰⁾ 본고에서는 木觚에 쓰여진 字句와 木觚길이를 근거로 사용 목적을 추적한다. 字句에서 계양산성의 내용은 현행본과 일치하고 있다. 봉황동 『論語』 木觚는 현행본과 비교해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어 이를 분석해 볼 만하다.

앞면	× 不欲人之加諸我吾亦欲无加諸人子×
정주본	……欲人之加諸□也, 吾亦欲毋加諸人. 子 [曰] : “賜, 非爾所 [及也.]”(91)
현행본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

※밑줄 필자강조. 현행본과 출토자료 사이 다른 글자에 해당.

47) 윤재석 編著, 『韓國木簡總覽』, 주류성, 2021, p.377; p.383.

48) 윤재석 編著, 『韓國木簡總覽』, 주류성, 2021, p.384.

49) 부산대학교 박물관, 『金海 鳳凰洞 低濕地遺蹟』, 2007, p.53.

50)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p.66-76.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교수는 125.4~146.3cm라고 추정하였다(「한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의 형태와 용도」, 『地下의 논어, 紙上の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209).

봉황동 『論語』木觚-현행본을 비교했을 때 “无”-“無”의 차이가 있지만, “无”가 이미 漢代부터 無를 뜻하는 것으로 쓰였던 만큼, 주목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 외 木觚의 앞면과 현행본·하안본을 비교해 보면, 현행본에 “我不欲人之加諸我”뒤에 “也”가 있지만 봉황동 『論語』木觚에는 빠져있다. 정주본에도 해당 구절 뒤에 “也”가 있다. 봉황동 『論語』木觚보다 훨씬 이전 시기의 판본에도 이미 “也”가 있었다는 점은 봉황동 『論語』木觚가 쓰여진 시기에 보편적으로 流傳된 『論語』 판본에도 “也”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봉황동 『論語』木觚에 “也”가 빠진 것은 서사자가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底本으로 삼은 『論語』 판본의 缺落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봉황동 『論語』木觚의 좌측면에도 보인다. 다음 표를 보자.

좌측면	×□□(〔文也?〕)子謂子產有君子道四焉其×
정주본	子曰：“有君子之道四焉〔其行己也恭，其事上也敬，其養民也〕”(94)
현행본	子謂子產，“有君子之道四焉。其行己也恭

※밑줄 필자강조. 현행본과 출토자료 사이 다른 글자에 해당.

봉황동 『論語』木觚의 좌측면 중 “有君子道四焉”이라고 한 구절에 대해, 현행본과 정주본에서는 “有君子之道四焉”이라고 하였다. 『論語』木觚에만 “之”가 빠진 셈인데, 이 역시 앞서 기술한 원인을 시사한다. 즉 당시 보편적으로 流傳된 『論語』 판본에는 “之”가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 木觚의 내용은 현행본과 모두 일치하며, “也”·“之”의 차이가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脫字현상은 봉황동 『論語』木觚가 교육용으로 활용되기에 다소 부적절했음을 암시한다. 타인을 교육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이 같은 脫字가 쉽게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봉황동 『論語』木觚는 예상 길이의 아주 일부만 발견된 만큼, 원래 길이에서는 탈자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봉황동 『論語』木觚는 개인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추정에 무게를 둔다.

다만 개인 학습용으로 보기도 애매하다. 학습용으로 쓰였다고 가정할 때, 왜 다른 편을 적은 木觚가 발견되지 않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論語』 구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 脫字현상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봉황동 『論語』木觚는 개인용으로 제작되었으되, 全文을 적어 구절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학습용은 아니었다고 본다. 계양산성 『論語』木觚의 경우는 脫字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상 길이 및 「公冶長」 일부만 발굴된 정황 등에서 봉황동 『論語』木觚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비슷한 용도로 쓰였다고 추측한다. 그렇다면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먼저 습자용⁵¹⁾을 들 수 있지만 다소 의문이 든다. 습자용 특유의 글자반복 현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하시모토 시게루 교수가 지적했듯이 습자용으로 보기에 길이가 너무 길고, 글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 있다. 이는 습자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⁵²⁾ 그 밖에 公冶長の 구절에 근거해 소경이나 군의 관아에 木觚를 내걸어 국토의 변경의식을 드러냈다고 설도 있다.⁵³⁾ 이 경우 『論語』木觚가 변경임을 상징화하는 용도로 쓰인 사례나 정황증거가 보이지 않으며, 경계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구절만 적어도 된다. 해당 목고에 「公冶長」의 내용이 모두 적혀있다고 볼 때, 그 篇章체가 가지는 전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제기된 釋奠祭로 사용되었다는 설⁵⁴⁾도 경청할 만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의문이 든다. 釋奠祭로 쓰였다면 공통적으로 「公冶長」의 내용이 쓰인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당시 한반도에서 釋奠祭가 거행되고 있었는지, 『論語』가 釋奠祭의 용도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⁵⁵⁾ 아울러 木觚에 보이는 탈자 현상을 고려할 때 의례절차의 독송용

51) 賈麗英, 「韓國木簡《論語》觚考論」,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3-4, 2020; 東野治之, 「近年出土の飛鳥京と韓國の木簡—上代語上代文學との関わりから」, 『日本古代史料學』, 岩波書店, 2005.

52) 橋本繁, 「한국 출토 『論語』 목간의 원형 복원과 용도」, 『목간과 문자』 26, 2021, pp.116-118.

53) 李成市 著, 山田章人 譯,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26, 2021, pp.23~24.

54) 橋本繁, 「시각목간(視覺木簡)의 정치성」 『문자와 고대한국(1)』, 주류성, 2019, pp.627-631.

으로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외 시각목간설에 대해서는 본고도 동의한다. 일찍이 富谷至교수는 장대한 觚·檄 등을 ‘시각목간(視覺木簡)’이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상징적인 함의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앞서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가 1m가 넘었다면, 이것이 가지는 시각적 효과는 분명하다. 아울러 당시 『論語』를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은 지배집단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論語』木觚를 사용한 자는 일정 지위 이상의 인물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일정지위 이상’이라는 의미는 곧 귀족이거나 官界에 속한 인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봉황동 『論語』木觚가 발견된 지역은 당시 加耶郡 혹은 金官小京과 관련있을 뿐만 아니라, 분성산의 山城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⁵⁷⁾ 계양산성도 主夫吐郡이 설치된 지역⁵⁸⁾으로서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군사기구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木觚를 사용한 자는 귀족으로서 官界에 속하고 군사관련 업무에 종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라시기 병부 등의 군사기구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논증한 연구⁵⁹⁾도 있는 만큼, 해당 『論語』木觚의 주인공이 가졌을 권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본고는 「公治長」편의 전반적인 내용구성에 주목했다. 주지하듯이 「公治長」편은 공자가 자신의 제자를 포함한 여러 인물(先代나 當代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⁶⁰⁾ 그렇기 때문에 「公治長」편을 통해 다양한 인간 유형을 엿볼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서사자가 일정 지위에 있으며 여러 인물을 상대해야 한다면, 「公治長」편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관료생활 가운데 자신에 대한 勸誡로 삼거나, 人事를 처리할 때 일종의 지침서로서 「公治長」편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脫字현상을 감안할 때 서사자가 주로 개인적 용도로 「公治長」편만 적은 木觚를 참고했으며, 木觚의 길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는 애초부터 일부 편만 摘錄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¹⁾ 저본이 종이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모든 편을 木觚로 작성해야 할 이유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마 서사자의 취향이나 필요성에 따라 일부 편만 摘錄한 후, 지침서로 활용하며 장대한 길이로 권위를 과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木觚를 근거로 『論語』木簡의 보편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물론 신라의 국학 및 독서삼품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7~8세기 『論語』의 숙지여부가 관리등급에 영향을 미쳤고,⁶²⁾ 그만큼 신라에서 『論語』가 교육용으로 폭넓게 활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지목병용기 한반도에서 『論語』木簡의 보편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출토사례로 백제 시기 쌍북리 『論語』木觚를 들 수 있다. 충남 부여 쌍북리 『論語』木觚의 제작 시기에 관해, ‘丁巳年’이 적힌 근처 다른 목간에 근거해 대략 657년 전후에 『論語』木觚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⁶³⁾ 아울러 쌍북리 『論語』木觚는 길이 28.0cm, 너비가 각각 1.8cm, 2.5cm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에,⁶⁴⁾ 앞서 본

55) 이 문제는 김성시 교수도 지적했다(李成市 著, 山田章人 譯,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논어 - 한반도 논어 목간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26, 2021, p.21)

56) 富穀至, 『文書行政の漢帝國-木簡·竹簡の時代』,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57) 주지하듯이 분성산에는 삼국시기에 축조된 성곽이 발견되어 군사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봉황동 유적지와 대략 2km가량 떨어져 있다. 金官小京에 관해서는 『三國史記』卷7 「新羅本記·文武王下」: “二十年春二月…(생략)…加耶郡置金官小京” 참조.

58) 윤재석 編著, 『韓國木簡總覽』, 주류성, 2021, p.377; p.381.

59) 정덕기, 「신라 중고기 병부의 人事權 掌握과 그 영향」, 『한국고대사탐구』 32, 2019참고.

60) 「公治長」편의 내용에 대해 “此篇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이라고 평한 『論語集註』를 참조할 만하다(朱熹 註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0, p.126).

61)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66에서도 木觚에는 아마 특정한 내용만 한정적으로 적었을 것이라 보았다.

62) 『三國史記』卷38 「雜志7·職官上」: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생략)…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氏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尚書·論語·孝經·文選教授之. 諸生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基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밑줄 필자강조.

63) 권인한, 「扶餘 雙北里 論語木簡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목간과 문자』 23, 2019, p.199.

64) 김성식·한지아,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21, 2018, pp.345-346.

木觚보다 짧다고 할 수 있다. 길이로 보았을 때는 앞서 본 『論語』木觚보다 휴대하기 편리하다.

I	「□子曰學而時習之·不亦悅
II	「有朋自遠方來·不亦樂□
III	「人不知·而不愠·不亦□
IV	「子乎·有子曰 其爲人也

중남 부여 쌍북리 『論語』木觚 석문⁶⁵⁾ 주요 내용은 『論語』 「學而」篇의 1장 및 2장 일부이며, 띄어쓰기의 구결방식이 발견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대부분 현행본의 구결방식과 일치하지만, Ⅲ면의 “人不知”와 “而不愠”사이를 띄어 쓴 부분이 달라 백제방식의 구결이 존재했을 가능성까지 제시되었다.⁶⁶⁾ 선행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비롯해 백제 왕경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마 교육용(혹은 학습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論語集解』의 注疏를 빼고 본문만 옮겨 적은 것으로 본 견해가 흥미롭다.⁶⁷⁾ 본고는 쌍북리 『論語』木觚를 포함해 교육용으로 제작된 『論語』木觚를 통하여, 『論語』에 반영된 추상적·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학습했다고 판단한다. 앞에서 본 木觚보다 짧은 길이로 휴대 가능한 점이 이유로 되고, 특유의 구결방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論語』를 끊어서 학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백제 습자간도 본고의 추측을 뒷받침한다. 나주 북암리에서는 7세기 전후로 추정되는 木簡자료가 나왔으며, 그 중 “道”와 “德”을 수차례 적은 습자간이 발견된 것이다.⁶⁸⁾ 이를 두고 『道德經』과의 연관성⁶⁹⁾도 제기되었지만, “道”와 “德”은 『論語』를 포함한 유가류 문헌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글자를 연습했다는 것은 당시 식자층이 儒家나 道家에서 중시하는 추상적 개념에 관심 가졌음을 시사한다. 孔子나 老子라는 인물 자체보다 관련 서적에 반영된 도덕적 가치에 주목한 모습은 후술할 일본의 『論語』木簡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발견되는 『論語』木簡을 종합하면, 모두 木觚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論語』木簡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木簡들 중 木觚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윤선태 교수는 한국 고대 木觚를 중심으로 특유의 ‘다면목간문화’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⁷⁰⁾ 이는 지목병용기라는 시대상황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윤재석 교수가 언급한 데로 6~7세기 중국 내륙의 서사매체가 대부분 종이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木觚가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상황을 한반도에서 출토된 木觚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다.⁷¹⁾

종이로 된 『論語』완질을 底本으로 삼았다면, 이 『論語』木觚는 또 다른 서사매체에 쓰여진 일종의 변형이다. 또한 前漢시기 『論語』편철간 및 『論語』木牘과 모습을 달리하는 변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木簡이 제1의 서사 재료로 기능하지 않은 지목병용기의 일반적 사정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木觚에 『論語』의 일부 내용을 摘錄하여 권위를 과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해 한반도 『論語』木觚는 지목병용기에 보이는 보편적 현상과 한반도 목간문화의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본열도 『論語』木簡의 활용방식과 의미

일본열도에서는 현재까지 폭넓은 지역에서 『論語』木簡이 발견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34점이 나왔는데 나라(奈良)에서 24점, 효고(兵庫)·도쿠시마(徳島) 등 여섯 지역에서 10점이 나왔다. 이는 그만큼 『論語』가 보편화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⁷²⁾ 이처럼 일본에서 발견되는 『論

65) 김성식·한지아,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21, 2018, pp.346-347.

66) 권인한, 「扶餘 雙北里 論語木簡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목간과 문자』 23, 2019, pp.204-205.

67) 橋本繁, 「한국 출토 『論語』 목간의 원형 복원과 용도」, 『목간과 문자』 26, 2021, pp.120-121.

68) 김성범, 「나주 북암리 유적 출토 목간의 판독과 의미」, 『진단학보』 109, 2010참조. 석문은 해당논문의 pp.69-70참조.

69) 윤재석 編著, 『韓國木簡總覽』, 주류성, 2021, pp.183-184.

70) 윤선태, 「한국 多面木簡의 발굴 현황과 용도」, 『목간과 문화』 23, 2019.12, pp.73-81.

71)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66.

72) 정동준, 「동아시아의 典籍交流와 『論語』 목간」, 『목간과 문자』 24, 2020, pp.46-47; 橋本繁, 『韓國古

語』簡에 대해 습서용 혹은 학습용 정도로 보통 이해한다. 본고도 여기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論語』를 습자한 정황과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論語』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서사매체로서 木簡의 의미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論語』 판본과 관련해서는 효고현(兵庫縣) 시바유적(柴遺跡)에서 발견된 『論語』簡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시바유적 (柴遺跡) ⁷³⁾	×悅乎 有朋自×	시바유적의 『論語』簡은 「學而」篇을 썼으며, 그 내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띄어쓰기의 구결방식이 확인된다. 아울러 현행본의 “說乎”가 아닌 “悅乎”가 쓰였다. 이 방식은 앞서 백제 쌍북리 『論語』木觚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권인한 교수는 상기 특징과 더불어 하카자 유적(袴狹遺跡)에서 발견된 木簡 중 “論語序何晏集解”라는 기록 및 「公治長」篇에 근거하여, 아마 何晏의 『論語集解』(何晏本으로 약칭)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⁷⁴⁾ 사실 鄭玄注의 『論語』나 皇侃의 『論語義疏』의 존재를 감안하면 何晏本만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⁷⁵⁾ 다만 “何晏集解”와 관련된 출토자료가 있는 만큼, 이 판본이 유행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子乎 有子×	

앞서 백제 쌍북리 『論語』木觚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권인한 교수는 상기 특징과 더불어 하카자 유적(袴狹遺跡)에서 발견된 木簡 중 “論語序何晏集解”라는 기록 및 「公治長」篇에 근거하여, 아마 何晏의 『論語集解』(何晏本으로 약칭)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⁷⁴⁾ 사실 鄭玄注의 『論語』나 皇侃의 『論語義疏』의 존재를 감안하면 何晏本만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⁷⁵⁾ 다만 “何晏集解”와 관련된 출토자료가 있는 만큼, 이 판본이 유행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何晏本이 유행했다면 集解를 포함한 『論語』의 전체 내용은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何晏本의 내용을 모두 옮겨적는다고 가정할 때 종이에 비해 木簡이 훨씬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출토된 『論語』簡들이 7~8세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⁷⁶⁾ 종이가 널리 쓰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何晏本의 全文은 종이 등의 다른 서사매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의 木簡은 『論語』全文을 전달하는 매체체로 기능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바유적의 서사자는 底本에 적힌 구결 방식대로 일부 내용만 木簡에 옮겨 적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底本の 기재방식이나 서사자의 성향에 따라 구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적을 수도 있다. 예컨대 효고현(兵庫縣) 후카에키타마치 유적(深江北町遺跡)에서 발견된 『論語』簡은 “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⁷⁷⁾로, 구결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

『論語』저본을 따로 두고, 일부 내용을 木簡에 옮겨적는 경우는 개인적 勸戒나 學習 등의 교육과 습자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습자는 일상의 문자활동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다음 나라현(奈良縣)의 헤이조쿠 유적과 이시가미 유적에서 발견된 『論語』 관련 簡을 보자.

平城京左京二条二坊五坪 二条大路濠狀遺構(北) ⁷⁸⁾	· □□□□□□ □□□□□□□□[則?] 又曰猶吾大夫崔子也□有有有有有 人道財財財長長長長長可可及不及 武 章 章 婦 婦 婦 不 章婦道章婦長路章 章 章 婦 婦 婦 婦 所 □ 有 道 · 婦 婦□ 事 事 大大大天天天大大天天天天天天天有道章事 飛 □□□□□□者 有有 有
이시가미 유적 (石神遺跡) ⁷⁹⁾	· 乎 有朋自遠方來 □ · 「大大大大□□□[大?] 」 (좌측면)

위 사례는 각각 『論語』 「公治長」편과 「學而」篇의 일부 내용을 적고 습자를 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大, 天, 長, 財, 有 등의 글자가 유독 많이 쓰였는데, 그 중 “有”字를 제외하면 大, 天, 長 등의 글자는 「公治長」과 「學而」篇에서 1~2차례 정도만 등장하고 “財”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論語』구결과 관련도 없다. 이는 다른 글자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論語』의 일부 내용을 적었

代木簡の研究』, 2014, 吉川弘文館.
 73)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中)』, 주류성, 2022, p.332.
 74) 권인한, 「扶餘 雙北里 論語木簡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목간과 문자』 23, 2019, pp.202-204;pp.207-210.
 75) 정동준, 「동아시아의 典籍交流와 『論語』 목간」, 『목간과 문자』 24, 2020, pp.51-52.
 76) 三上喜孝 著, 오택현 譯, 「古代 日本 論語 木簡의 特質-한반도 출토 論語 木簡과의 比較를 통해서-」, 『목간과 문자』 25, 2020, pp.174-175.
 77) 해당 簡의 내용은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en/MK036044000106)를 참조.
 78) 해당 簡의 내용은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6AFFJD29000181)를 참조.
 79)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下)』, 주류성, 2022, p.338.

음을 보여준다. 일상 문자생활에서 『論語』가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木簡은 여러 글자를 연습하기 위해 사용된 매체로 기능했다.

그 밖에 봉황동과 계양산성의 『論語』木觚처럼 장대한 길이의 木觚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7세기로 추정⁸⁰⁾되는 도쿠시마현(德島縣) 간논지유적(觀音寺遺跡)의 『論語』木簡을 보자.

간논지유적(觀音寺遺跡) 출토 『論語』木觚 ⁸¹⁾	·□□依□〔還?〕乎□止□(耳?)所中□□□(表面) ·□□□□乎(裏面) ·子曰○學而習時不孤□乎□自朋遠方來亦時樂乎人不□(知?)亦不愠(左側面) ·[]用作必□□□□□〔兵?〕□人[]□□□〔刀?〕(右側面)
현행본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

※간논지유적의 굵은 글씨가 『論語』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추정.

도쿠시마현 간논지 유적의 『論語』木簡은 바깥쪽·안쪽·좌측면·우측면 사면으로 구성된 木觚에 해당한다. 그 크기도 65cm에 이른다.⁸²⁾ 그래서 형태만 보면 간논지 『論語』木觚는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다. 먼저 觀音寺 『論語』木觚 가운데 “□□依□〔還〕乎□止□(耳?)所中□□□”나 “·[]用作必□□□□□〔兵?〕□人[]□□□〔刀?〕” 등의 내용은 『論語』와 전혀 관련 없다. 이는 木觚가 습서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論語』이외 다양한 내용이 담겼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논지 『論語』木觚가 봉황동·계양산성의 『論語』木觚처럼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행본과 비교했을 때, 간논지 유적 『論語』木觚에 오탈자가 발견된 점도 참고해야 한다.⁸³⁾ 먼저 간논지 유적 『論語』木觚의 “學而習時不孤□乎□”부분은 현행본의 “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 해당하여 현행본 기준으로 “時習”의 위치가 바뀐 “習時”로 되어 있고, “不亦”이 “不孤”로 되어 있다. 이 『論語』簡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뜻도 잘 통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木觚의 “自朋遠方來亦時樂乎人不□亦愠”은 현행본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人不知而不愠”에 해당한다. 현행본의 “有朋自遠方來”가 『論語』木觚에서는 “自朋遠方來”로 표현되어 있어, “有”가 없고 “自”가 앞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해석이 다소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현행본의 “人不知而不愠”부분도 간논지 『論語』木觚에서는 “人不知亦不愠”으로 표현되어, “而不愠”과 “亦不愠”이 다르지만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현행본과 간논지 유적 『論語』木觚의 상이함은 근본적인 底本の 차이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사자가 다른 『論語』底本을 베껴 습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글자를 잘못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論語』를 베껴적는 경우, 정확히 적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간논지 유적 『論語』木觚가 개인적 용도로 쓰인 점, 장대한 길이자체로 시각적 효과를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와 유사하다. 그러나 간논지 유적 『論語』木觚는 습서용으로 쓰인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일상의 문자활동에서 『論語』가 스며들며, 『論語』와 행정업무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열도에 발견되는 『論語』木簡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앞서 본 간논지 유적은 阿波國府 및 阿波國의 정무를 수행한 國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⁸⁴⁾ 효고현(兵庫縣) 시바유적(柴遺跡)경우도 驛家운

80)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下)』, 주류성, 2022, p.439에 따르면 “己丑年”이라 적힌 簡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시대적으로 보아 持統 3년(689년)으로 판단한다.

81)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下)』, 주류성, 2022, p.440.

82)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MK020208000004)에 따르면 세로65.3cm, 가로 2.9cm, 두께 1.9cm로 파악하고 있다.

83) 오탈자 현상에 대해서는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78에서 지적했으며, 이 때문에 해당 簡을 『論語』 텍스트의 일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용을 위한 부찰목간을 비롯해 官衙성격의 가진 유물이 출토되어, 官衙관련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다.⁸⁵⁾ 深江北町도 주변에 官道가 발견되어 驛家が 존재했고 아마 國府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⁸⁶⁾ 효고현 하카자 유적은 상기 특징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하카자 유적 (袴狹遺跡)9次a =舊8次 ⁸⁷⁾	· 「『子謂公治長可妻』 · 「右爲鐺符搜求□
하카자 유적(袴狹遺跡) 9次 ⁸⁸⁾	入日下部國□□□ [] 靜成女 □□日大□□□□□ □□部酒繼 入□□水中知 □□□ [] 当女 入安万呂□□当女 入 [] 「 □□ -□□ 論語序河晏集□」

三上喜孝 교수는 첫 번째 하카자 유적 “右爲鐺符搜求□”의 “鐺符”를 과역면제와 관련된 문구로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카자 유적 “大□”를 大帳으로 판독한 후 이 역시 고쿠후(國府)가 작성한 과역 집계장부로 보았다. 아울러 이 같은 목간에 논어관련 내

용이 있다는 것은 행정관리들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論語』를 습서한 증거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⁸⁹⁾ 여기서 행정문서가 다수 발견된 만큼 이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쩌서 일상 업무 가운데 『論語』를 습서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는가이다.

과역과 『論語』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아마 근무 중 혹은 근무 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효용이 다한 행정문건에 『論語』를 습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관청내에 『論語』 底本이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로, 일상 업무에서 『論語』의 습서행위가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일정부분 강제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簡을 살펴보자.

平城宮宮域東南隅地区 ⁹⁰⁾	□□□□\青青秦秦謹謹申 · 謹論語諫[言+牛]計課訓謂諛誰\□□□
---------------------------	---------------------------------------

먼저 두 번째 항의 “謹論語諫[言+牛]計課訓謂諛誰” 경우, 의미가 정확히 통하지는 않으며 실제 計課항목에 『論語』가 활용된 증거로 보기도 불분명하다. 다만 計課과정에서 논어를 언급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첫 번째 항의 “青青秦秦謹謹申”은 상급관에게 보내는 표현양식을 연습한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위 木簡의 내용은 공무 중에 직·간접적으로나마 『論語』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호족 혹은 관료들은 타율적으로라도 『論語』를 학습해야 했을 것이다.

상급기관에서 『論語』의 학습을 인위적으로 요구한 결과는 『論語』내 각 篇의 출현빈도를 통해서도 일정부분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論語』 簡 중 「學而」 篇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으로 「公治長」 篇이 등장한다. 이 점을 근거로 율령국가로 지배 논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論語』를 지방까지 확산시켰고, 「學而」 篇이 『論語』의 첫 번째 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유용했다고 본다.⁹¹⁾ 이러한 설명은 바꿔말해, 상급관에서 「學而」 篇의 학습을 요구한 결과가 「學而」 篇의 잦은 출현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學而」 篇과 「公治長」 篇의 내용상 특징에

84)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下)』, 주류성, 2022, pp.439-440.

85)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中)』, 주류성, 2022, p.332.

86) 三上喜孝 著, 오택현 譯, 「古代 日本 論語 木簡의 特質-한반도 출토 論語 木簡과의 비교를 통해서-」, 『목간과 문자』 25, 2020, p.179.

87)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中)』, 주류성, 2022, p.314.

88) 해당 簡의 내용은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MK022249000011>)를 참조.

89) 三上喜孝, 「일본 고대 지방사회의 『논어』 수용」, 『지상의 논어, 지하의 논어』, 2012, p.232.

90) 해당 簡의 내용은 「木簡庫」(<https://mokkanko.nabunken.go.jp/ja/6AAICJ59001091>)참조.

91) 三上喜孝 著, 오택현 譯, 「古代 日本 論語 木簡의 特質-한반도 출토 論語 木簡과의 비교를 통해서-」, 『목간과 문자』 25, 2020, pp.181-182.

주목하여 보충 견해를 내보고자 한다.

먼저 「學而」篇의 내용을 보면 부모-자식, 형-아우, 군주-신하, 제자-스승 및 친구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들을 기술하였다. 중요한 점은 지켜야 할 도리로 지목된 대상이 대부분 연소자이거나 자식·아우·신하·제자라는 사실이다. 즉 도리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아랫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자 및 친구 관계에 관한 구절도 있고, 군주가 해야 할 도리에 관한 것도 1 구절이 있다.⁹²⁾ 그러나 출현 빈도에서 아랫사람에게 논의가 집중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수신(修身)의 덕목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상급관 입장에서는 「學而」篇이 가지는 순서상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고려하여 하급관에게 지침으로 삼도록 요구할 만하다. 지방 관료사회까지 『論語』를 보급함으로써 상하집단을 통합시키는 도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公治長」篇이 「學而」篇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사실도 官界에서 『論語』가 지침서로 참고된 사정을 반영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公治長」篇에는 인물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인물을 상대하는 지방호족이나 관료들의 사이에 주의를 끌었을 것이다. 관료사회에서 『論語』를 받아들일 때 타율성에 경도된 나머지 상급기관에 보여주기 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論語』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 주목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論語』의 습서(습자포함) 및 학습은 지방의 지배 관료집단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論語』가 종교시설까지 확산되어 木簡에 습자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다.

토다이지(東大寺) 출토 『論語』 관련 木簡 ⁹³⁾	아스카이케 유적(飛鳥池遺跡) 출토 『논어』 관련 木簡 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大之寺僧志尺文寺得□ [促?]× <li style="text-align: center;">尊 · 作心信作心 第 為 □ 為是□是 ○ 論語序一『寺』□ 第 信心 哥第 為為為為為羽[] 	<ul style="list-style-type: none"> ·觀世音經卷 ·支為□[照?] 支照而為 (좌측면) ·子曰學□□是是

출토된 위치를 감안하면 서사자는 토다이지(東大寺)의 승려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목간에는 “東大之寺僧志”라고 하여 승려들의 일지나 僧籍처럼 보이는 문서명이 적혀있다. 뒷면에는 “作心信作心”이라고 하여 信心과 관련된 어구와 “為” 등 글자를 습자하는 가운데,⁹⁵⁾ “論語序一”이 등장한다. 이는 승려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論語』를 보았음을 시사한다. 그 밖에 “觀世音經卷”으로 적은 木簡에도 『論語』 관련 내용이 쓰인 것을 보면 종교적 차원에서 유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이나 도덕적 가치의 차원에서 받아들였음을 암시한다. 아마 사찰내에 다른 서사매체로 쓰여진 『論語』 底本이 비치되어 있었고, 승려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별다른 이질감 없이 『論語』의 내용을 습서했을 것이다.

상기 木簡을 두고 유·불교가 지배층 사이에 퍼져 국가 지배이념으로서 혼연되었다는 주장⁹⁶⁾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사원내 『論語』의 습서 행위도 지배집단에 의한 타율적 학습행위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관료로서 행정업무 중에 이루어지는 『論語』 학습은 일정부분 타율성을 전제하지만, 당시 도래승이나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論語』를 전래했다는 지적⁹⁷⁾을 통해 종교집단이 『論語』의 어떤 점

92) 子曰 “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朱熹 註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0, p.34).

93) 釋文은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中)』, 주류성, 2022, pp.690-691.

94) 釋文은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下)』, 주류성, 2022, p.290참조.

95) 윤재석 編著, 『日本木簡總覽(中)』, 주류성, 2022, p.691. 為를 為로 표현한 것은 『木簡庫』 및 『日本木簡總覽(中)』의 釋文에 의거한 것이다.

96) 三上喜孝 著, 오택현 譯, 「古代 日本 論語 木簡의 特質-한반도 출토 論語 木簡과의 比較를 통해서-」, 『목간과 문자』 25, 2020, pp.183-184.

97) 김경호, 「출토문헌 논어,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수용과 전개」,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p.48.

에 주목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당시 ‘孔子’라는 특정 인물을 숭배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등의 종교집단도 자연히 『論語』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미 언급했듯이 『論語』는孔子와 그 제자의 어록으로,孔子라는 인물을 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일본에 『論語』가 전래된 초기에는 인물보다 그 내용에 좀 더 주목했기 때문에, 『論語』를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의 외연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論語』에 반영된 도덕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관료집단의 上下관계를 결속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집단에게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論語』木簡의 형태 차원에서 보면 일부 木觚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短冊形 木簡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한반도에서 발견되는 『論語』木簡과 모습을 달리하는 일종의 변형으로, 일본의 木簡문화에 기초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木簡에 『論語』全文을 기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으며, 단일 서사매체(예컨대 1매의 短冊形 木簡이나 木觚)에 상이한 활동이 함께 기입된 점이 특징이다. 지목병용기의 시대적 흐름 속에 습서·습자용으로 『論語』의 일부 구절만 摘錄한 것이다. 이는 木簡이 종이에 밀려 보조 서사매체로 되었기 때문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반면 『論語』만을 기록하기 위하여 木簡이 제작된 예가 매우 적기 때문에 『論語』木簡의 규격화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이처럼 『論語』를 둘러싼 도덕적 가치와 각 집단의 이해관계, 지목병용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 서로 결합해 특유의 木簡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맺음말 - 『論語』木簡의 규격화와 텍스트의 권력화를 겸하여

본고는 簡牘시대 海昏侯 『論語』木牘을 시작으로 『論語』木簡의 流傳 상황과 판본문제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목병용기 한반도·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論語』木簡의 내용과 활용방식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논의를 관통하고 있는 韓·中·日 『論語』木簡의 摘錄과 변형문제를 고찰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海昏侯 『論語』木牘은 『論語』의 일부를 摘錄한 것으로 그 내용 및 구성을 파악해본 결과, 海昏侯 『論語』木牘-현행본의 차이가 정주본-현행본의 차이보다 크다. 海昏侯 『論語』木牘이 만약 「智道」篇이 발견된 海昏侯 『論語』簡을 참고했다면, 『論語』木牘의 내용도 齊論類일 가능성이 크다. 齊論으로 특정하지 않고 齊論類(혹은 齊論계통)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漢初부터 유전된 『論語』는 다양한 판본이 존재했으며, 武帝이후 일련의 조사 끝에 비슷한 판본을 보아 魯論·齊論으로 大別(혹은 유형화·범주화)했다고 추측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漢書』 「藝文志」에 언급된 특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판본이 당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판본을 魯論·齊論의 특징에 맞게 정형화시킨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魯論·齊論 등으로 분류하기 전의 판본 혹은 일부 조건에만 부합한 판본일지라도, 魯論類·齊論類 혹은 魯論계통·齊論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古論을 더하여 三論으로 파악한 것이다. 海昏侯 『論語』簡 및 木牘의 경우 齊論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齊論類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海昏侯 『論語』木牘의 서사자가 유하인 점을 감안할 때, 海昏侯 木牘의 내용을 통해 유하가 처한 상황 및 心思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서북지역에서 발견되는 『論語』木簡을 검토해 본 결과 前漢시기 동일 지역에서도 다양한 판본이 유전되었으며, 하나의 판본으로 통일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는 없었다. 즉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張侯論』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前漢 시기 『論語』가 변방 서북지역까지 널리 퍼졌지만, 정확한 『論語』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論語 교조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前漢시기 海昏侯 『論語』木牘처럼 『論語』全文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만큼, 각지에서 발견되는 『論語』簡들 중 일부는 애초부터 몇몇 내용만 摘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는 『論語』본문이 정형화된 시기에 작성되었고, 장대한 길이였다. 본고는 봉황동 『論語』木觚에 보이는 탈자현상과 「公治長」篇의 전반적인 내용에 근거해, 관료가 개인적인 지침서로 木觚를 활용하며 권위를 과시했다고 추측했다. 그래서 이 木觚들을 근거로 한반도내 『論語』木簡의 보편화를 논하기는 조심스럽다. 쌍북리 『論語』木觚의 경우 크기 및 구결방식으로 보아, 일부 내용을 옮겨적은 후 휴대하면서 학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論語』및 『論語』木簡의 보편화를 설명하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아울러 “道”와 “德” 등의 습자행위를 통해 『論語』등의 유가류 문헌이나 도가류 문헌에 반영된 추상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그 밖에 5세기 이후 『論語』텍스트 全文이 종이 등 다른 서사매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3건의 『論語』木觚는 애초부터 일부 내용을 摘錄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는 앞서 중국과 양상을 달리하는 『論語』木簡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하안본이 주로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종이 등 다른 서사매체에 적힌 『論語』의 일부를 木簡에 습서(또는 습자)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木簡에는 『論語』이외 다른 내용도 함께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관료집단과 불교집단의 『論語』수용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관료집단에서 『論語』의 수용은 일정부분 타율성이 전제되었고, 여기에는 「學而」篇과 「公治長」篇에 반영된 내용적 특징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교집단의 『論語』수용은 좀 더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즉 ‘孔子’라는 인물에 대한 숭배보다 『論語』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매개로 상하관계를 결속하고 그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집단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일 木簡에 기록된 서로 다른 활동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

끝으로 서사재료로서 『論語』木簡의 규격화와 『論語』텍스트의 상관관계를 언급해보자. 簡牘(혹은 木簡)시대→지목병용기→종이 시대로 이행되는 흐름은 곧 『論語』木簡의 규격화가 완화된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嶽麓秦簡을 보면 秦代 공문서로 쓰이는 簡牘의 길이나 너비 등을 규정하였다.⁹⁸⁾ 이는 국가에서 簡牘의 규격을 강제한 직접적인 사례이다. 물론 공문서에 해당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경전류의 簡牘 크기도 국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簡牘(혹은 竹木簡)이 주요 서사매체였던 만큼 경전류의 규격화에 대한 요구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論衡』의 내용⁹⁹⁾을 비롯하여, 漢代 대부분의 서적간이 1척을 표준으로 삼아 일정부분 簡牘의 규격화가 이루어졌다는 선행연구의 지적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¹⁰⁰⁾ 일반적으로 『論語』簡은 휴대용으로서 상대적으로 簡의 크기가 더 짧다고 하지만, 이 역시 당시 규격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論語』木觚는 일반적으로 쓰였던 『論語』簡과 형태를 달리하는 일종의 변형이다. 그러나 『論語』木觚도 ‘觚’의 규범화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본다.

지목병용기에는 종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簡牘시대만큼 木簡의 규범화 혹은 정형화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공문서로 쓰이는 木簡은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 이외 목적으로 사용된 木簡의 길이·폭 등에 대해서는 簡牘시대보다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봉황동·계양산성 『論語』木觚의 길이는 1m이상 장대한 길이로 보는데, 木觚의 면이 각각 4면과 5면으로 서로 다르다. 쌍북리 『論語』木觚는 4면으로 봉황동·계양산성 木觚보다 짧다. 여기서 木觚를 둘러싼 일정한 규범화를 찾기는 어렵다. 사실 한반도의 경우 『論語』木簡의 표본이 적어 경전류 木簡의 규범화 문제를 논하기 이르다. 현재로서는 簡牘시대 중국의 『論語』簡과 비교했을 때 규격화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다른 용도로 쓰인 木簡에 습자·습서용으로 『論語』구결이

98) 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辭書出版社, 2017, pp.107-108: “請: 自今以來, 諸縣官上對請書者, 牘厚毋下十分寸一, 二行牘厚毋下十五分寸一, 厚過程者, 毋得各過(120)其厚之半. 爲程, 牘牒各一. 不從令者, 賞一甲. 御史上議: 御牘] 尺二寸, 官券牒尺六寸. • 制曰: 更尺一寸牘(121)牒. • 卒令丙四(122)” 그 외 112~119簡에서도 상세한 규정이 보인다.

99) 『論衡』 卷28 「正說」, pp.1135-1136: “但[知]周以八寸爲尺, 不知論語所獨一尺之意…(생략) …以八寸爲尺, 紀之約省, 懷持之便也. 以其遺非經, 傳文紀識恐忘, 故但以八寸尺, 不二尺四寸也.”(黃暉 撰,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

100) 윤재석, 「韓國·中國·日本 출토 論語木簡의 비교 연구」, 『동양사학연구』 114, 2011, pp.22-24.

기록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를 경전류 木簡으로 분류할 수도 『論語』木簡의 규격화를 논하기도 곤란하다.

반면 『論語』 텍스트의 보급과 활용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은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前漢시기 중국내륙의 『論語』 활용과 5~6세기 이후 한반도·일본열도의 『論語』 활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시기를 막론하고 『論語』가 중요교재로 활용된 점은 공통적이지만, 前漢시기 중국내륙에서는 『論語』 텍스트 全文의 통일성을 강제하지 않았다. 이는 『論語』 내용의 정확한 숙지가 임용이나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 후 『論語』가 임용과 승진의 중요한 요소로 되고, 나아가 일상업무 중에서 습서해야 하는 단계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일본에서 발견된 『論語』木簡이 그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관료사회에서 『論語』의 보급 및 『論語』 텍스트의 熟知를 둘러싼 국가의 개입이 점차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큰 흐름을 놓고 보면, 前漢시기~8·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사 재료로서 『論語』木簡에 투영된 규격화는 완화되는 반면, 『論語』 텍스트의 보급 및 熟知에 대한 국가권력의 요구는 강화되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시기별·지역별·분야별로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흐름의 속도 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가 오히려 『論語』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木簡문화를 형성했을 것이다. 요컨대 『論語』는 중국내륙-한반도-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유학수용의 흐름을 추적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지만, 동시에 서사매체를 중심으로 특유의 기록문화를 읽어내는 단초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텍스트 자체와 서사 매체를 분리하여, 『論語』를 둘러싼 국가권력의 개입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김병준(서울대학교)

김종희, 「古代 『論語』 木簡의 摘錄과 變形」 토론문

김병준(서울대학교)

매우 의욕적인 글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삼국에서 출토된 논어 목간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쌓여가고 있는 즈음, 이 글은 삼국의 논어 목간의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제기한 문제 중에는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골라 보았습니다.

1. 이 글에서는 삼국 간의 차이점은 물론 공통된 성격으로서 <摘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은 학계의 좋은 논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어 목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목간은 전체 완본이 아니라 『논어』의 일부를 뽑아 적은 것인 만큼, 응당 왜 이 부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도 <公冶長>편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습디만, 이 글은 <공야장>편 중의 몇 구절이 아니라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공야장>편에서는 다양한 인간 유형을 엿볼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려해 두어야 할 좋은 견해라 생각합니다.

다만 편장의 전체적 주제를 파악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자가 설명한 <공야장>편의 내용은 『논어집주』에 나온 주희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편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黃侃이나 邢昺은 현인 군자의 덕목을 강조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각 편이 단편적인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지 자체에 대해 회의하는 연구자도 많습니다.

또 각 편 의 내용이 다른 편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자는 <학이>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자식, 형-아우, 군주-신하, 스승-제자와 같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특히 아랫사람에게 수신의 덕목을 강조했다고 보았지만, 과연 『논어』의 다른 편 의 내용이 이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자는 더 나아가 다양한 인간 유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사기구에서 이 편 의 내용을 참조했다고 하고, <학이>편을 통해 아랫사람에게 수신의 덕목을 강조함으로써 상하집단을 통합시키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훈후 논어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과도한 추정을 한 듯 싶습니다. 가령 자한편의 구절을 채록한 것을 두고 해훈후 유하가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 난 뒤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권계로서 참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오히려 남에게 자신의 지식을 모두 말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유하의 처신이라는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용야편을 채록한 것은 유하가 퇴위 이후 중용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상황을 아쉬워했기 때문, 혹은 중용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정하면 논어 모든 구절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록된 내용을 개인의 지위 혹은 그가 처한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 있지만, 이를 논증하려면 더 많은 방증자료가 갖추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봉황동 목간과 중국 정주본 목간, 그리고 현행본의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밀하게 살펴 그 차이

에 주목한 점도 앞으로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봉황동에서 ‘也’자가 빠진 것은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저본의 결락 가능성을 제시했고, 또 ‘之’자가 빠진 것에 주목해서 이러한 脫字 현상으로 보건대 봉황동 논어 목간이 교육용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학습용이라면 전문을 적어서 구절을 정확히 숙지 해야 하는데, 이러한 탈자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면 개인 학습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군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가 참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자는 당시의 정보는 也와 之 등의 허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당대 투르판 출토 정현주 논어만 해도 현행본 논어와는 也와 같은 허사의 차이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사를 포함한 전문이 현행본과 같은 형태로 완전히 정착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둘째,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자는 『논어』의 학습은 허사를 포함한 전문을 완전히 똑같이 숙지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학습을 하지만, 漢~唐시대 혹은 6-8세기 한반도와 일본에서 논어의 학습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당시 허사가 갖는 기능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구두로 암송하는 것이 우선하고 허사가 이를 보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구의 어법적 기능에 간여하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異同을 살필 때 통가자를 글자의 ‘차이’라고 보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통가자는 언제든지 서로 通假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해훈후 논어 목간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齊論語〉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서』 예문지에서 “齊論은 問玉편과 智道 2편이 더 많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智道’로 시작되는 구문을 포함하고 있는 해훈후 논어 목간을 齊論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해훈후 논어가 작성되었을 당시 아직 魯論, 齊論, 古論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박이 눈에 띕니다. 저자는 타협점으로 범주적 개념으로서 魯論類, 齊論類, 古論類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齊論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박 근거는 齊論類라는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비록 齊論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智道편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齊論類라고 하면 齊論으로 나아가는 형성과정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들 논어의 분류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問玉편과 智道 2편의 내용이 추가되어 魯論類와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가 규명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범주화는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篇第’ 즉 편장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류 기준이 된다고 본 것 같지만, 당시 논어가 20권 전체로 묶인 형태로 유통되었는지, 아니면 내편과 외편 각 10편씩 별도로 나뉘었는지, 아니면 개별 편별로 유통되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편장의 순서는 논어의 분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논어 ‘판본’의 정의를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장 순서의 차이, ‘孔子曰’과 ‘子曰’의 차이, 허사의 유무 등이 판본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천치한간 논어 목간 중에는 현행본에 보이지 않는 구절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광점초간 등 전국시대 간독에서 공자와 제자 사이의 일화를 담고 있는 많은 기록들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유가류의 문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오오미의 도래인과 문자문화의 수용 (近江の渡来人と文字文化の受容)

大橋信弥(成安造形大学)

오오미(近江)의 도래인과 문자문화의 수용

-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오오하시 노부야^{大橋信弥}(成安造形大学)

〈목차〉

- I. 머리말
 - II. 오오미 도래씨족과 도래인의 성격-“音義 목간”을 통해서
 - III. 낙사계의 출신과 ‘부여말갈’
 - IV. 맺음말
-

I. 머리말

오오미(近江)는 율령체제하에서 기내(畿内)에 포함되지 않고 동산도(東山道)의 일국이었지만 역사상 세 번 宮都가 만들어지는 등 기내에 준하는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오오미 각지에 세력을 가진 호족들은 야마토(大和)정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율령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군의 대령(大領)이나 소령(少領)에 대대로 임용되는 군령씨족(郡領氏族)이 되었다. 그리고 오오미에 거주하는 도래씨족, 도래인은 기내의 야마토(大和), 가와치(河内), 야마시로(山城)처럼 문헌자료로 확인되는 고대인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큰 세력을 가졌다. 또한 그 일족은 널리 각지에 거점을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오오미 각지에서는 목간을 비롯한 중요한 문자자료가 출토되었고 그 안에는 7세기대로 올라가는 율령 이전의 목간이 적지 않아 일본열도에서 어떻게 문자문화가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오오미 출토 문자자료에 한국 출토 목간이나 금석 자료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종래 여러 시각에서 언급되었다.¹⁾ 이 보고는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여 오오미에서 문자문화를 수용한 사람들(도래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겠다.

II. 오오미 도래씨족과 도래인의 성격 -“音義 목간”을 통해서

오오미에 거주하는 도래씨족과 도래인은 이 보고가 대상으로 하는 출토문자자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율령기 문헌자료에 의거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료가 어느 정도 과거의 사실을 전하는 것인지, 또 실제 연대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오오미에서는 고고학 자료가 풍부하기도 해서 도래인 집단의 거주와 그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연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문헌자료와 고고학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일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논고에서 발표하였으니²⁾ 여기서는 출토문자자료의 구체

1) 平川南, 2003,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三上喜孝, 2008, 『日本古代木簡の系譜-韓国木簡との比較検討を通して-』, 『목간과 문자』 창간호(뒤에 三上喜孝, 2013,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 吉川弘文館 에 수록); 田中史生, 2012, 『倭国史と韓国木簡』, 鈴木靖民편 『日本古代の王権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적인 검토에 앞서 그 개요를 언급하여 오오미 도래씨족과 도래인의 실태와 성격을 정리해 두고 싶다.

『坂上系圖』에 인용되는 『新撰姓氏錄』 일문에는 오진(應神) 천황 때 도래한 야마토노아야(倭漢) 씨의 시조 아치노오미(阿智王)가 닌토쿠(仁德) 천황 때 한반도 삼국에 이산된 동향의 아야히토(漢人)를 일본에 오게 하는 것을 제안하여 그 대부분이 뒤의 야마토국(大和國) 다케치군(高市郡)에 정착한 것, 뒤에 다케치군에 사람이 늘어나서 오오미(近江), 셋쓰(摂津) 등 여러 국에 나눠 살게 하였다고 하고 그것이 각지 아야히토노스구리(漢人村主)가 되었다고 하는 도래 전설이 보인다. 뒤의 사실을 전설화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오미에서는 각종 고대 문헌을 통해서 시가군(滋賀郡)을 본거지로 하는 많은 아야히토노스구리(漢人村主)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9세기 이전 문헌사료에 보이는 시가군 고대인명 40%를 차지한다. 大友村主·大友曰佐·大友漢人·穴太村主·穴太史·穴太野中史, 錦部村主·錦部曰佐, 大友丹波史·大友桑原史, 志賀史·登美史·槻本村主·三津首·上村主 등이 주요한 것이다.

이들 오오미 아야히토노스구리(漢人村主)는 오오미에 이주한 애초에는 이러한 많은 씨족에 나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가(志賀)에 거주하는 아야히토(漢人)로서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라고 불린 것 같다. 『日本書紀』 스이코(推古) 천황 16년(608) 9월 11일조에는隋의 사자 裴世清이 귀국할 때 오노노오미노이모코(小野臣妹子)를 대사(大使)로 하는 遣隋使가 파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때 학문승(學問僧) 8명이 동행했는데 그 속에는 “大化改新”에서 활약하는 다카무코노아야히토노구로마로(高向漢人玄理)나 미나미부치노아야히토노쇼안(南淵漢人請安) 그리고 오오미 출신으로 추정되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에온(慧(惠)隱)도 보인다. 이러한 것들로 스이코 때에는 오오미에 거주하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중에서 벌써 遣隋學問僧을 배출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의 유력자가 그 학식, 기술로 조정에 등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오쓰(大津) 북교(北郊)에서 도래씨족이 거주한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는 지금까지 많은 축적이 있다. 그 묘역인 산록에는 600기 이상(원래 1000기 이상 있었을 것이다) 후기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당시 일반적인 고분과 달리 천정이 돛형인 횡혈식석실(방형인 것도 적지 않다)을 주체로 하고 미니어처 요리도구 4점 세트나 은제 또는 동제 비녀 등 특이한 유물을 부장했다. 그 연대는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중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산기슭의 고분군에 대응하듯이 호숫가에 있는 집락에는 “大壁造”라고 하는 흙벽 방형으로 만든 특이한 건물이나 초석 건물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다고 생각되는 온돌 유구가 잇따라 발견되었고 그 연대는 고분보다 좀 늦은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고 자료는 도래인 집단이 일찍부터 정착하여 활동하였던 가와치(河内)나 야마토(大和)에서는 이미 5세기 전반부터 부분적으로 확인되었고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쯤에 그러한 도래인 집단의 일부가 이 땅에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추정된다.³⁾ 이 지역은 뒤에 오오미오오쓰노미야(近江大津宮)가 조영되었듯이 원래 야마토(大和)정권의 경제적, 군사적인 거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호상 교통을 이용한 오오미를 비롯하여 동국, 북국에서 도성으로 가는 물류 관리 거점이었고, 6세기 이후 활발해지는 에치젠(越前)을 거점으로 하는 고구려와의 대외교섭을 통괄했다고 보인다. (그림 1)

잘 알려져 있듯이 도래씨족은 중국·한국의 선진 문화·기술을 일본에 도래해서 그것을 구사하여 야마토정권에 등용되어 동시에 그 기구적 편성에 크게 공헌했는데 그중에서도 한자를 사용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만들고 외국어에 정통하여 대외교섭을 하는 등 정부 행정 부문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런 관점으로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역할을 생각하면 6세기 이후 소가(蘇我) 씨의 지시로 야마토노아야(倭漢) 씨가 그 부하의 아야히토(漢人)를 오오쓰(大津) 북쪽에 배치하여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분포 중심은 그 본거지인 시가군(滋賀郡) 남부인데 淺井郡·坂田郡·犬上

2) 大橋信弥, 2004, 「近江における渡来氏族の研究－志賀漢人を中心に－」, 『古代豪族と渡来人』, 吉川弘文館.
3) 大橋信弥, 2014, 「安羅伽耶と倭国の初期交流－倭漢氏の出身地をめぐって－」, 『한국민족문화』 51. 뒤에 大橋信弥, 2019, 『古代の地域支配と渡来人』, 吉川弘文館에 수록).

郡・愛知郡・神崎郡・野洲郡・栗太郡 그리고 蒲生郡 등 오오미 각지에 농밀하게 분포된 것이 알려져 있다. 그 거주지를 살펴보면 다 군 안에서 비와호(琵琶湖)에 인접한 지역에 거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거주지에는 항만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으로 비와호(琵琶湖) 수운의 요지인 시가군(滋賀郡) 志賀津에 본거지를 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가 오오미 각지의 주요한 항만 시설이 있는 곳에 진출하여 물류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주변에도 거점을 확대해갔던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

이상과 같이 오오쓰(大津) 북교에 이주, 정착하여 비와호(琵琶湖) 주변 각지에 진출한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은 야마토정권의 기구(官사)의 “관인”으로 등용되어 정부의 지시로 이차적으로 오오미에 이주하여 정부 사업을 담당한 것이다. 그 직무는 당연히 그들이 잘하는 문서·서류의 작성, 출납·재정 관리 같은 행정 업무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은 그들의 조국인 한반도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을 계승, 활용한 것이며 문서를 작성하는데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야마토정권에 참여한 많은 도래씨족이나 그 부하의 도래인 집단에서 공유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시가군(滋賀郡) 남부 오오쓰(大津) 북교에서는 지형적인 요인도 있어서 출토문자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 활동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그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오미오쓰노미야(近江大津宮) 남단 부근으로 추정되는 오오쓰시(大津市) 기타오오쓰(北大津)유적에서 출토된 “音義木簡”에 언급해야 할 것이다.

기타오오쓰(北大津)유적 출토 목간

이 목간은 인공적인 구(溝)에서 출토된 것이며 오오미 출토 고대 목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오오미 오오쓰노미야(近江大津宮) 관아(官衙)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⁴⁾ 발견된 애초부터 한자의 훈(새김), 동의어, 反切(음 표기)을 쓴 일종의 사전으로 생각되었는데 그 후의 판독으로 반절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자 훈을 만요가나(万葉假名)로 쓴 사전에서 특정한 원전을 읽을 때 베껴 쓴 목간이며 당시 관인 사이에서 한자 훈독을 공유화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뜻한다고 생각되어 있다.

이 목간은 중앙에서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곳에서 사용된 후에 폐기된 것으로 보고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목간을 작성하여 사용한 인물에 대해서는 오오쓰노미야(大津宮) 조영 이전부터 이곳에 파견되던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라고 추정되는 아야히토노스구리(漢人村主)로 생각된다. 천도에 따라 그러한 시설과 인재들은 오오쓰노미야(大津宮) 조직으로 급수되었을 것이다.

목간은 발견 애초부터 적외선 사진으로 일부 글자만이 판독되었고 “贊”이라고 크게 쓴 글자 밑에 “田須久”, “■” 밑에 “阿佐ム加ム移母”, “積” 밑에 “久皮之”(애초는 “久皮反”)라고 있듯이, 그리고 “采〈取〉” “■〈ツ久羅布〉” “披〈開〉”와 같이 그 글자의 훈을 1행이나 2행으로 썼다. 한자를 훈으로 읽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에 한자로 표기할 때나 원전을 읽을 때 사전에서 베껴 썼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것들로 万葉假名로 쓰인 훈은 이 시대 일본어 표기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되었다.⁵⁾ 여기에 제시한 것은 그 후에 진전된 최신 판독문에 따른 것이다.⁶⁾

새로 판독된 것이 17자인데 그 잔존 상황을 통해서 원래 목간 전면에 목서가 있었던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글자는 총 75자 이상이 되는데 새로 판독된 것이 “鑱〈汗ツ〉” “鎧〈与里比〉” “費〈阿多比〉” “洛〈口羅口〉” “檢” 등 이미 상정되었던 것과 “慕〈尼我布〉” “■〈參須羅不〉” 등이다. 이들은 최고의 万葉假名로 주목되었는데 이번 판독으로 ア・ウ・カ・ガ・ク・サ・ザ・シ・ス・タ・ツ・ネ・ハ・ヒ(甲)・フ・ム・メ(乙)・モ(乙)・ラ・ロ(乙)의 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용법이 후대에 계승되지 않았던 것도

4) 林紀昭·近藤滋, 1978, 「北大津遺跡出土の木簡」, 『滋賀大國文』16 ;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77, 『第3回木簡研究集會記錄』 ; 中西常雄, 1986, 「北大津遺跡出土の須惠器資料」, 『滋賀文化財だより』111.
5) 東野治之, 1994, 「最古の万葉假名文」, 『書の古代史』, 岩波書店.
6) 浜修·山本崇, 2011, 「滋賀·北大津遺跡」, 『木簡研究』33.

있어 아직 시행착오 하는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이 목간이 훈의 시행착오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상술했듯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도래인 집단인 시가노야야히토(志賀漢人)가 원래 야마토(大和)나 가와치(河内) 정부 중추에서 활동하고 5세기 말쯤에 이곳에 이주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정부 중추에서의 활동 속에서 공유된 행정적인 문서 작성에 사용된 지식이 이곳에서도 구체적으로 채용되어 활용된 것이 확인된다.

Ⅲ. 니시가와라(西河原) 유적군과 출토 목간의 성격과 도래인집단

출토 목간으로 도래인의 문자문화 수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와호(琵琶湖) 동쪽인 현재의 노스시(野洲市) 니시가와라(西河原)에 있는 니시가와라유적군이며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약 150년간 존속된 율령국가 성립기 유적군이다. 이 유적군을 구성하는 것이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을 비롯하여 유노베(湯ノ部)유적·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고소지(光相寺)유적·무슈(虫生)유적 등으로 거의 공백없이 인접하여 있어 동일 유적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출토된 목간은 총 95점에 이르러 7세기 후반의 덴무(天武)기(2기)에 해당하는 것이 10점,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3기) 大寶令 이전의 것이 19점, 令制下인 8세기 전반(4기)의 것이 60점(그중 57점이 삭설)이며 기타 4기 이후와 9세기 후반이 각 2점, 시기 미상이 2점이다. 유적의 盛期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에 집중된다.

1. 유적군의 개요

유적군의 중핵인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에서는 7세기 후반(2기)에는 유적 북쪽 부분에서 주위가 구로 둘러싸여 정연하게 배치된 대형 굴립주건물군이 형성된다.⁸⁾ 유적군 전체 중추 시설로 생각된다. 7세기 말부터 8세기 전반(3기)이 되어 그것을 메워 약간 남쪽에 비슷한 구획이 형성되는데 8세기 전반에는 갑자기 유적이 두절되어 생활 흔적이 사라진다. 그 대신에 인접하는 고소지(光相寺)유적에 이 단계 이후의 유구, 유물이 남아있다.⁹⁾ 그리고 이러한 유구에 동반하는 유물로는 목간, 목서토기 이외에 목제 제사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또한, 유적의 일각에서는 변형된 스에키(須惠器)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형태 등으로 야마토정권에 제품을 공급했던 군 북부에 분포하는 가가미야마(鏡山)가마터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선별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림 3)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에 인접하는 고소지(光相寺)유적에서는 4기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에 굴립주 건물, 구 등이 확인되어 목간 5점이 출토되었다. 유적 북반에서는 “石辺君” “石辺”이라고 목서되 토기가 7점, 남반에서는 “馬” 2점, “三宅” 5점이 출토되어 제사와 관련된 목제품, 풀무의 송풍구, 슬래그, 철제 방추차, 동제 안장 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여기에 유적군 중추가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남쪽 1.2km에 있는 유노베(湯ノ部)유적은 野洲川 범람으로 매몰된 후에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의 굴립주건물, 단야관련유구 등이 확인되었다.¹⁰⁾ 그리고 단야관련유구 서쪽 끝의 구에서 2기에 해당하는 牒文書 목간이 출토되었다. 목간은 폐기 상황으로 봐서 이곳에서 작성,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에서 사용된 후에 단야유구에서 장작으로 쓰기 위해 모은 것으로 추정

7) 犬飼隆, 2008(증정판2011), 「日本語史資料としての七世紀木簡」, 『木簡による日本語表記史』, 笠間書院.

8) 中主町教育委員会, 1990, 『中主町西河原森ノ内遺跡発掘調査報告書』 I・II ;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90, 『西河原森ノ内遺跡・第1・2次発掘調査概要』 ;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87, 『西河原森ノ内遺跡・第3次発掘調査報告書』.

9) 畑中英二, 2008 「考古学からみた西河原遺跡群」, 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第36回企画展図録『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 西河原遺跡群의 시기구분은 2기가 7세기 후반(安評家?), 3기가 7세기 말~8세기 초(野洲郡家?), 4기가 8세기 전반(野洲郡 馬道郷?), 5기가 8세기 후반이다.

10) 滋賀県教育委員会·財団法人滋賀県文化財保護協会, 1995, 『湯ノ部遺跡発掘調査報告書 I』.

된다.

유노베(湯ノ部)유적 북쪽 500m에 있는 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에서는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3기)의 대형 굴립주건물이 확인되었다. 건물의 기둥을 뺀 구멍에서는 후술하는 貧稻와 관련되는 1, 3~7호 목간이 출토되었다. 굴립주건물은 3×4칸(6.13×7.74m)으로 바닥면적은 약 45㎡에 이르는 규모가 큰 창고로 생각되어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의 倉院으로 추정된다.¹¹⁾ (그림 4)

·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남쪽 500m에 있는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에서는 3기에 소속되는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 굴립주건물터 6동 이상과 폭 3.2m 이상, 깊이 1.1m의 남북 방향 구 터가 확인되었다. 3점의 목간은 이 구 제4층에서 출토되었고 토기 이외에 琴柱, 齋串, 젓가락, 짐승의 이와 뼈, 土錘 등과 목서토기 6점이 같이 출토되었다.¹²⁾

이상과 같이 이들 유적군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이라는 율령국가 성립기에 성기가 있고 유구, 유물도 일반취락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적군 중추는 유구의 배치나 출토된 유물로 봐서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의 북반부이며 거기서는 가가미야마(鏡山)가마터군의 토기 선별장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고소지(光相寺)유적은 이에 준하는 유적군의 중추로 생각된다. 그리고 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유노베(湯ノ部)유적 주변에는 창고나 단야공방 등이 있어서 이곳에 지방의 공적인 시설이 점재한 것을 뜻한다.

2. 목간의 검토 -문자문화 수용의 양상-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출토 목간은 그 내용과 형태를 통해서 이른바 ①협의를 문서, ②장부, 전표 같은 記録簡, ③하찰, 부찰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작성자, 작성 장소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작성되어 들어온 것과 여기서 작성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문서에는 외부에서 이 시설로 들어온 것과 여기에 있던 시설에서 작성된 것이 있고 ②기록간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작성된 것, ③하찰, 부찰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작성되어 여기에 이동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으로 각 목간에 대해 검토하겠다.

모리노우치(森ノ内) 2호 <일본말 어순으로 표기된 문서목간>

이 목간은 “衣知評” “棕□(直?)”이라는 기재로 7세기 후반의 문서목간이다.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중심부로 생각된다. 북반부 대형 건물을 구획하는 구에서 출토된 것이며 그 내용은 近江國廳 또는 중앙정부 관인으로 추정되는 “棕□”(內藏直?)가 여기에 거주하는 우라베(卜部)(모)에게 지시한 문서이며 “제가 가져오려고 한 벼는 말을 얻지 못하여서 그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너 卜部가 舟人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 벼가 있는 곳은 衣知評 平留五十戶의 且波博士 댁이다”라고 하여 외부에서 작성되어 여기에 보내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목간은私信이 아니니 “棕□”가 만약 近江國廳의 “관인”이었다면 문서를 작성한 것은 “棕□” 스스로나 그 부하이며 “國符”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문서를 받은 卜部가 폐기한 것이나 여기에 있던 시설(군가 또는 그 출장소)이 보관한 후에 폐기된 것으로 생각된다.¹³⁾

그 내용으로는 비와호(琵琶湖) 수운을 이용한 물자 운반만이 아니라, 말을 이용한 육로 운송이 야스(野洲)와 에치(愛知) 사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벼가 있는 衣知評 平留五十戶의 且波博士 家(야케)는 당연히 개인 댁이 아니라 공적인 시설이며 아마 호동(湖東) 일대의 물류 거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且波博士(大友但波史) 씨도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일족이므로 뒤에서 자세히 보듯이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시설에서 활동하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과 연계하여 수륙

11) 畑中英二·大橋信弥, 2007, 「滋賀·西河原宮ノ内遺跡」, 『木簡研究』 29.

12) 中主町教育委員会, 1993, 「西河原遺跡」, 『平成3年度·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 辻広志, 1992, 「滋賀·西河原遺跡」, 『木簡研究』 14; 中主町教育委員会, 2001, 「西河原遺跡第10次発掘調査」, 『平成14年度 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

13) 森公章, 2009, 「木簡から見た郡務と国務」, 『地方木簡と郡家の機構』, 同成社.

교통을 활용하는 공적인 물류·교역과 깊이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목간은 야마토노아야(倭漢) 씨 일족인 椋(內藏)直 씨가 작성하여 卜部에게 보낸 것이며 이 시설 책임자로 보이는 卜部 부하로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등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생각되니 이러한 관계 배후에 야마토노아야(倭漢) 씨 일족의 전대 이래의 族制的인 관계가 계속 활용되었던 것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목간은 이곳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지만 야마토노아야(倭漢) 씨라는 유력한 도래씨족과 그 부하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자문화의 상황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이 목간이 지금까지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국어학, 국문학자까지 주목한 것은 7세기 후반이라는 이른 시기에 순수한 한문이 아닌 일본어 어순으로 표기된 문장 표현이 출현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간의 발견으로 이미 당시 정부 기관에서 일본어 표기 문서가 널리 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그 표기에 창고를 “椋”자로 표기하는 것이나 “伝之” “反来之” 같은 일본어 표기 문말 표현이 한국의 壬申誓記石(壬申年은 552년이나 612년으로 추정된다) 표기에 보이는 것, 또한 목간 뒷면 9자가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임신세기적에서 문말을 명시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지적되었고¹⁵⁾ 한반도 문자문화의 영향이 크다. 일본어 표기에서 이러한 한반도에서 자국어어를 한문으로 표기하는 시도가 학습, 수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중앙, 지방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는 도래인들과 각지에 파견된 도래씨족, 도래인 사이에 이러한 최신 문자문화 수용의 성과가 공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리노우치(森ノ内) 6호 <이 곳에 보낸 물품에 매달린 “國符?”>

유적군의 중심인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북반의 대형 건물을 구획하는 지구의 일각에서 출토된 3기의 문서이다. 하반부에만 글자가 남아있는데 글자 흔적은 상반에도 있다.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使人”으로 “民直安万呂”라는 인명이 있고 “從” “賜” 같은 글자가 있으니 사자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보낼 때 매달린 문서목간으로 추측된다. 중앙이나 近江國廳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民直安万呂는 모리노우치(森ノ内) 2호 목간에 보이는 “椋□”와 같은 야마토노아야(倭漢) 씨의 동족이며 같이 近江國廳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목간도 모리노우치(森ノ内) 2호처럼 “國符”적인 것이며 近江國廳에서 작성되어 이곳에 와서 일정 기간 보관된 후에 폐기되었을 것이다. 이 목간도 야마토노아야(倭漢) 씨와 같은 일족과 그 부하의 도래인 집단이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며 율령체제 도입 이전부터의 족제적 관계가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노베(湯ノ部) 1호 <模範文으로 작성, 사용된 특이한 “牒” 목간>

이 목간은 앞뒤 양면 이외에 측면에도 “丙子年十一月”라는 연기를 쓴 책 같은 특이한 문서목간이며 원래 실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범문으로 베껴 쓴 것을 측면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보관되었다고 추정된다. 유노베(湯ノ部)유적 단야유구와 관련되는 3기 구에서 출토되었는데 문서 자체는 연기에서 알 수 있듯이 2기 天武5년(676)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지점에서 작성,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야유구에서 연료로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중심부에서 작성되어 그 용도를 다한 뒤에 폐기되어 집적된 것으로 보인다. 목간의 형태는 두께가 20mm로 두껍고 뒷면 오른쪽이 좀 얇다. 나무가 나뭇결을 따라 구부러져 오른쪽 장변에서 부푼 좀 변형된 장방형이다. 뒷면에는 칼 흔적처럼 보이는 것이나 글자를 깎아낸 흔적이 있다. 폐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목간의 특징은 측면에 연기가 있다는 것인데 이점에 관해서는 앞뒤 양면만이 아니라 四角柱 사면에 글자를 쓴 것도 있는 한국 목간의 영향이 지적된다. 그리고 “牒”으로 시작하고 “謹牒也”로 끝나는 養老公式令 牒式에 따른 목간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6세기 후반의 사각주 사면에 목서한 경주 월성해자 출토 목간에 개인 상신문서로 첩 문서가 있어 한국목간의 영향이 지적된다.¹⁶⁾ 그리고 이 목간

14) 山尾幸久, 1990, 「森ノ内遺跡出土の木簡をめぐって」, 『木簡研究』12 ; 稲岡耕二, 1987, 「国語の表記史と森ノ内遺跡木簡」, 『木簡研究』9.

15) 犬飼隆, 2008, 「森ノ内遺跡出土手紙木簡の書記様態」, 『木簡による日本語表記史』, 笠間書院.

16) 李成市, 2005, 「朝鮮の文書行政・六世紀の新羅」, 『文字と古代日本2 文字による交流』, 吉川弘文館 ; 三

은 원래 실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범문으로 베꼈다가 책상에 보관된 것으로 보여 원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곳에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서와 모범문의 작성자는 다르고 시기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원문서는 이곳의 유력자인 玄逸이라는 사람이 近江國司 또는 野洲郡司로 上申한 것이며 이곳에서 발행된 것이다. 결실된 글자가 많아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蔭” “蔭人”이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蔭位制의 전신인 제도와 관련된 것이고 淨御原令 이전에 제정된 법령에 바탕을 두어 天武 4년 5월에 “蔭人”으로 인정된 玄逸이 다음해 2월이 되어도 그 御蔭을 받지 못한 것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御蔭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養官丁”이라는 기재로 仕丁 受給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문서 원문이 玄逸이 쓴 것인지 부하인 서기가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작성된 공문서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목간이 초기 율령기에서 문서 모범문으로 재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문서를 베껴 쓰고 모범문으로 작성하여 보관한 것은 이곳에 있던 시설이고, 실제로 문서 작성 업무에 종사한 것은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를 중심으로 한 도래인들이며 목간 형태나 문서 양식에 한반도의 영향이 있는 것도 수긍된다.

니시가와라(西河原) 1호 <野洲郡司가 馬道里長에게 보낸 “郡符” 목간>

이 목간은 유적 중심부로 보이는 굴립주 건물에 부속되는 남북 구에서 출토된 것이며 “里長”이라는 기재로 4기 8세기 초(大寶~靈龜 연간)의 것으로 생각된다. 短冊形인 郡符 목간이며 하반부가 강하게 꺾여져서 野洲郡司가 馬道里長에게 발급한 것이며 女丁의 差点(파견)을 명한 문서이다. 郡廳에서 작성되어 馬道里長에게 전달되어 거기서 폐기되었다고 하면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이 馬道里가 된다. 다만 郡符 목간은 많은 경우 수신자에게 전달된 후에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野洲郡家(安評家)인 것을 뜻한다고 하는 설도 유력하다. 그 경우에는 여기서 작성되어 수신자에게 보낸 후에 다시 여기에 돌아온 것이 된다.¹⁷⁾ 그런데 후술하듯이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이 馬道里이며 이 시기의 野洲郡家도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 후술하는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목간은 馬道郷 호주의 역명이며 그 거주자를 나열한 것이며 그 대부분이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이다. 또한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과 더불어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의 중심인 고소지(光相寺)유적에서는 4호 목간에 “馬道”, 2호 목간에 “大友部龍”이라는 인명이 있어 “馬” “石辺” “三宅” 등으로 목서된 토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창고군이 있는 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에서도 2호에 “三寸造廣山”, 6호에도 “石木主寸文通”이 있어 역명에 보이는 씨족명과 일치된다. 이 사람들은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의 거주자인 가능성이 크다. 특히 石木主寸文通은 “文作人”이라는 기재로 봐서 목간 작성자이며 이 유적군에 거주한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유적군을 馬道里(郷)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野洲郡家도 馬道里에 있었던 것이 된다.

이곳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호 목간으로 衣知評과 호상(湖上) 교통로가 있었다고 시사되어 모리노우치(森ノ内) 6호, 11호로 중앙이나 近江國廳 등과의 사자의 왕래가 상정되는 등 육로를 통한 교통로가 이곳을 통과하였고 수륙교통의 요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에 농밀하게 분포되는 馬道首는 그 씨족명으로 보면 이러한 驛路=馬道 관리 운용에 종사했을 것이다.¹⁸⁾ 이 문서는 郡司가 馬道里長에게 발급하고 일이 끝난 후에 馬道里에 있던 野洲郡家に 반납되어 폐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 작성에도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가 관여했을 것이다.

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授受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学歴史・地理・人類学論集』 7 ; 市大樹, 2008, 「慶州月城垓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奈良文化財研究所・大韓民国文化財研究所편 『日韓文化財論集 I』(뒤에 市大樹, 2010,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에 수록).

17) 平川南, 2003, 「郡符木簡」,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市大樹, 2008, 「西河原木簡群の世界」, 『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

18) 山尾幸久, 1997, 「古代近江の早馬道」, 上田正昭편 『古代の日本と渡来の文化』, 学生社.

모리노우치(森ノ内) 11호 <도성에서 온 “大夫”에게 제출된 “前白木簡”>

이 목간은 3기에 속하여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북반의 유적군 중심부에서 출토된 것이다. “□(牒?)白” “大寵命坐□”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前白木簡”으로 추정되는 上申文書이다. 이러한 서식에 관해서도 한국 목간의 영향이 지적되는데 이 문서에 보이는 “自京大夫”에 관해서는 京에서 온 “大夫”이며 이곳을 거쳤을 때 “官人”이 “大夫”에 제출한 것이며 이곳에서 작성된 공문서일 것이다. 원래 수신자 “大夫”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 쓴 후에 “大夫”가 이곳에 폐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前白木簡”은 도성 등에서도 출토된 사례가 있어 이곳에 중앙 사인이 들르는 정부 기관이 있었던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이곳의 시설을 운영한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등 도래인이며 문서 서식이나 표현에 관해서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 <野洲郡 馬道郷의 戸主 역명>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출토 목간의 대부분은 장부, 전표 같은 기록간이며 당연히 여기서 작성되어 사용된 후에 여기서 폐기된 것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이며 세금 부담과 관련되는 호주 역명 기록간이다.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북반부 대형건물을 구획하는 4기의 구에서 출토된 것이다. 短冊形 대형 목간이며 네 모퉁이를 다 잘라냈다. 앞뒤를 4단으로 나누어 “戸主”의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다 가바네를 표기했다. 割註로 나이와 課丁의 기술이 있는 것도 있고 세금 부담 등의 대장으로 사용된 가능성이 지적된다. 그리고 재판독으로 종래 A면으로 생각된 면이 B면이고 옛 B면이 A면이 되었다. 이로써 새 A면이 문서 제목으로 “□□郡馬道郷□□里”라는 거주 행정구획인 것을 알게 되었고 호주들의 거주지가 野洲郡 馬道郷인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에는 石辺君을 비롯하여 三宅連·登美史·馬道首·三寸造·大友主寸·大友·佐多直·石木主寸·郡主寸·黃文□□·□□臣 등의 거주가 확인되는데 이들 가운데 石辺玉足는 平城宮 南面東門 주변에서 출토된 목간에 “益珠郡馬道郷石辺玉足”가 보여 동일인물로 생각되어 여기에 보이는 역명 제목과 일치한다.¹⁹⁾ 상술했듯이 역명에 보이는 호주 중에 三宅連·石辺君·馬道首·三寸造·大友主寸·大友·石木主寸 같은 씨족명은 고소지(光相寺) 2, 4호나 묵서토기, 미야노우치(宮ノ内) 2, 6호 등에도 보여 여기가 馬道郷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역명에 보이는 인명 가운데 登美史·馬道首·大友主寸·佐多直·石木主寸·郡主寸 씨들은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이다. 상술했듯이 이러한 도래인 집단은 야마토노아야(倭漢) 씨의 부하로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에 중앙에서 오오쓰(大津) 북교에 있던 국가 기관에 파견되어 그 직무로 오오미 각지 수륙교통 요충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은 그 기능이나 집주 상황을 통해서 野洲郡家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가 활동하는 호동(湖東)지역의 중요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도래씨족, 도래인 집단과 같이 고국인 한반도의 문자문화를 빠르게 수용, 공유하여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뒤의 野洲郡 馬道郷) 시설에서 활동하고 그 주요한 업무로 공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모리노우치(森ノ内) 14호, 고소지(光相寺) 4호, 모리노우치(森ノ内) 7호, 모리노우치(森ノ内) 8호 <貸稻 利息에 관한 기록>

이 유적군에서 출토된 목간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貸稻” 즉 스이코(出舉)와 관련되는 기록간이다. 모리노우치(森ノ内) 14호, 7호, 8호와 고소지(光相寺) 4호는 스이코 기록 장부류로 생각된다.

2기의 모리노우치(森ノ内) 14호는 인명은 확인되지 않으나 “利直” “十束” “卅五束” 같은 표현으로 貸稻 利息과 관련된 기록류로 추측된다. 3기 고소지(光相寺) 4호는 뒷면에 “馬道”라고 하여 이곳에 살던 馬道首 씨로 보인다. “田物”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농작물에 관련되는 세금 같은 농민 부담에 관련되는 것이며 앞면 4자가 “利”로 읽을 수 있으면 이것도 貸稻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19) 国立奈良文化財研究所, 1981, 『平城宮発掘調査出土木簡概報(14)』.

같은 3기 모리노우치(森ノ内) 7호는 앞면에는 “刀良女”라는 여자 이름이 있고 앞면에 “馬評”이라는 행정 구획명과 “倭ア連加久支”라는 이것도 여자로 보이는 인명이 적혀 있다. 인명 밑에 “六十束” “百廿束” 같은 속수가 있어 貸稻 수치나 그 이식에 관한 기록일 것이다. 같은 3기의 모리노우치(森ノ内) 8호는 잔존 길이 32.8cm, 폭 3.7cm 대형 기록간으로 보인다. 목흔이 선명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首口稻”라고 하고 또 “□□首貸稻大束記”라고 있으니 □□首(아마 다른 문자자료로 馬道首로 추정됨)라는 인물의 貸稻에 관한 관리기록으로 보인다. 이미 부여 쌍북리유적 출토 무인년(618)의 연기가 있는 “佐官貸食記” 같은 한국목간 표기의 영향이 지적되어 있다.²⁰⁾

이들 목간은 출토된 곳도 유적의 중심지인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고소지(光相寺)유적이며 貸稻(公出舉)의 관리 기록으로 여기에 있던 시설에서 작성, 보관되어 뒤에 폐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그 작성을 시가노야야히토(志賀漢人) 등이 담당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실제로 貸稻 출납 같은 운용과 기록을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 출토 목간이다.

미야노우치(宮ノ内) 1호 미야노우치(宮ノ内) 3호·미야노우치(宮ノ内) 4호·미야노우치(宮ノ内) 5호·미야노우치(宮ノ内) 6호 <貸稻 出納에 사용된 “倉札”>

다 4기의 목간이다. 미야노우치(宮ノ内) 1호는 1985년도 시굴조사로 출토된 것인데 2005년 조사로 같은 굴립주건물의 기둥을 빼낸 구덩이에서 출토된 것이 확인되었다. 인위적으로 중앙부에서 꺾인 상태로 출토되었고 하단 중앙에 구멍이 뚫렸다. 庚子年은 文武4(700)년이다. 대부분을 판독할 수 없으나 하반에 “□□千五”이라고 해서 미야노우치(宮ノ内) 4호와 비슷한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되어²¹⁾ 貸稻에 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야노우치(宮ノ内) 3호에는 하단 약간 왼쪽에 구멍이 있다. 앞면의 壬寅年은 大寶2(702)년이며 뒷면에도 목흔은 있지만 희미해서 판독할 수 없다. 날짜 다음에 2행으로 인명이 있고 그 밑에 서명 같은 것도 있다. 받은 것을 확인한 것일까. 뒷면에 “口田二百斤”이라고 하니 貸稻에 관한 것일 것이다. “三寸造”는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 목간 역명에도 있는데 “勝鹿首”는 처음이다. 다음 4호 목간에 보이는 “宣都宣椽人”의 “宣都宣”도 ‘가쓰카’이며 가바네는 다르지만 씨명이 일치하여 주목된다.

미야노우치(宮ノ内) 4호도 인위적으로 중앙에서 꺾였다. 하단 오른쪽에 구멍을 뚫고 모두 辛卯年은 持統5(691)년이고 앞면에는 목서가 있다. “某日記”라는 기재양식은 8세기 초 이전의 표기법으로 추정된다. “稻千三百五十三半把”는 벼 135束 3把 5分인데 창고에 수납되는 양으로는 적으니 出舉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宣都宣椽人”에게 貸稻한 양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五十三半把”로 수량에 반이 나오므로 貸付가 아니라 반납에 관한 기록으로 생각된다. “椽人”의 사례로는 오오미에서는 다카시마시(高島市) 나가타(永田)유적에서 출토된 8세기 말부터 9세기 초 역명 목간에 “秦椽人酒公”이 있고 『正倉院文書』 天平勝寶3(751)년 7월27일부 「近江國甲可郡司解」에 甲賀郡 蔵部郷 戸主로 “椽人刀良賣”가 있다. 모두 창고 관리에 관여한 도래씨족으로 생각되어 “宣都宣椽人”도 도래인일 것이다.

미야노우치(宮ノ内) 5호는 하반이 결실되어 오른쪽에 파손이 있다. 판독되는 글자가 적어 그 내용은 “別俵”라는 표현이나 “春稻”로 수장된 稻에서 春稻로 제출하는 것을 내는 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뒷면 “百束” 다음 글자가 남은 자획으로 “貸”로 판독되면 이것도 出舉와 관련되게 된다.

미야노우치(宮ノ内) 6호는 상반이 결실되어 하단 오른쪽에 구멍을 뚫었다. 내용은 앞면에는 “口 刀自” 등 2명에게 “貸稻”한 것이 기록되고 뒷면에는 2명의 이름 밑에 “二人知”라고 하니 아마 이 2명이 “貸稻”의 보증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벼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미야노우치(宮ノ内) 3호에도 보이는 “斤”이며 벼 무게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文作人”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이 “貸稻”證

20)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挙制度試論」, 工藤元男·李成市 편 『古代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三上喜孝, 2013,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 吉川弘文館에 수록.

21)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87, 『県道荒見·上野·近江八幡線単独道路改良工事(木部·八夫工区)に伴う埋蔵文化財試掘調査報告書』.

文의 작성자일 것이다. 出擧의 구체적인 운용을 알 수 있는 기록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邱 戊戌銘場作碑에도 비문 작성자를 “文作人”이라고 한다. 무술년은 진지왕 3(578)년으로 추정되어²²⁾ 이러한 기재방식이 한반도에서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목간의 “文作人”인 石木主寸은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 호주 역명에 보이며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일원으로 馬道里 거주자로 보인다. 그리고 직무 내용으로 당연히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 시설에서 활동한 관인으로 추정되어 이러한 도래인 집단이 업무 집행을 맡아 목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목간 대부분은 短冊狀이고 폭이 4~4.5cm로 넓으며 길이도 상하단이 결실된 5, 6호와 완형인 1호, 4호의 4점은 60cm 정도나 되는 장대한 것이다. 짧은 3호도 반 정도의 30cm로 모두 규격성이 있는 것이다. 연기가 나타내는 大寶令 제정 전후에 대응되는 오래된 지방 목간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반이 결실된 5호를 제외해서 1·3·4·6호 하단에 구멍이 확인되어 끈으로 묶어서 보관했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4호에 “稻千三百五十三半把”, 5호에 “別俵二石舂稻” “□石□□百束□”, 6호에 “□刀自右二人貸稻” “稻二百□又□□稻冊□貸” 등 貸稻(出擧)와 쌀 수량에 관한 기술이 있어 앞에서 봤듯이 묶어서 사용했다고 생각되니 일련의 목간이 벼 貸借(출납)·보관에 관한 倉札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목간이 폐절된 대형 창고로 보이는 건물의 기둥을 빼낸 구덩이의 크기에 맞추어 반으로 꺾여 폐기된 것으로 이 창고에서 사용된 후 그 폐절에 따라 폐기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창고는 아마 조사 지점 주변에도 다수 있었다고 상정되어 군가 관리하에 있던 倉院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목간은 위에서 봤듯이 出擧 관리를 위해 작성된 “倉札”이며 이곳에서 창고 관리를 담당한 “관인”이 기재, 관리한 것은 확실하겠다. 사실 “文作人”인 石木主寸文通은 위에서 봤듯이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이며 이곳 시설에 근무하는 도래인이었다. 따라서 이 유적군이 이러한 도래씨족, 도래인 집단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에 그 성기가 있고 유구, 유물에서 일반취락과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중심부는 구로 구획된 대형 건물과 출토된 유물로 봐서 모리노우치(森ノ内)유적 북반에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는 야마토정권에 제품을 제공하던 가가미야마(鏡山)가마터군의 토기 선별장도 병설되었다. 고소지(光相寺)유적은 이에 준하는 유적군 중심부로 추정되어 미야노우치(宮ノ内)유적·유노베(湯ノ部)유적 주변은 창고군이나 단야 공방·목제품 공방 같은 생산 공방이 점재했다. 이들은 이 유적군이 郡(評)家の 전신인 울령국가 성립기의 지방행정기관임을 뜻할 것이다.

출토된 목간의 내용으로도 이곳에 중앙 또는 “近江國廳”과 문서를 주고받거나 사자가 왕래하는 행정기관이 있었고 “馬道”라는 지명이나 馬道首 씨의 거주로 육상교통(초기 역로) 거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곳과 에치(愛知)를 잇는 항로의 존재로 항만 시설이나 비와호(琵琶湖) 수상교통을 이용한 물류 교역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郡符 목간이 출토된 것은 이 시설이 초기 野洲郡家(安評家)인 것을 뜻하고 호주 역명 목간 등을 통해서 이곳 거주자 대부분이 오오쓰(大津) 북교에 거점이 있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일족임도 밝혀졌다. 그리고 미야노우치(宮ノ内) 6호에 “文作人”으로 나타난 石木主寸文通를 통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 일족이 여기에 있던 시설에서 문서 작성을 비롯한 행정 실무를 실제로 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IV. 맺음말

이상 기타오오쓰(北大津)유적·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군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오오미(近江) 도래인과 문자문화 수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오오미에서 덴지(天智)·덴무(天武)조에 올라가는 목간이 비교적

22) 橋本繁, 2018, 「朝鮮半島古代の石碑文化」, 小倉慈司·三上喜孝 편 『古代日本と朝鮮の石碑文化』, 朝倉書店.

많이 출토되는 것과 이 지역에 일찍부터 도래인 집단이 집주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과 깊이 관련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오미에서의 문자문화 수용은 중앙에서 이주해온 도래인 집단에 의한 것이며 이주한 연대로 봐서 6세기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출토문자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지역은 극히 일부이며 앞으로의 조사·연구의 진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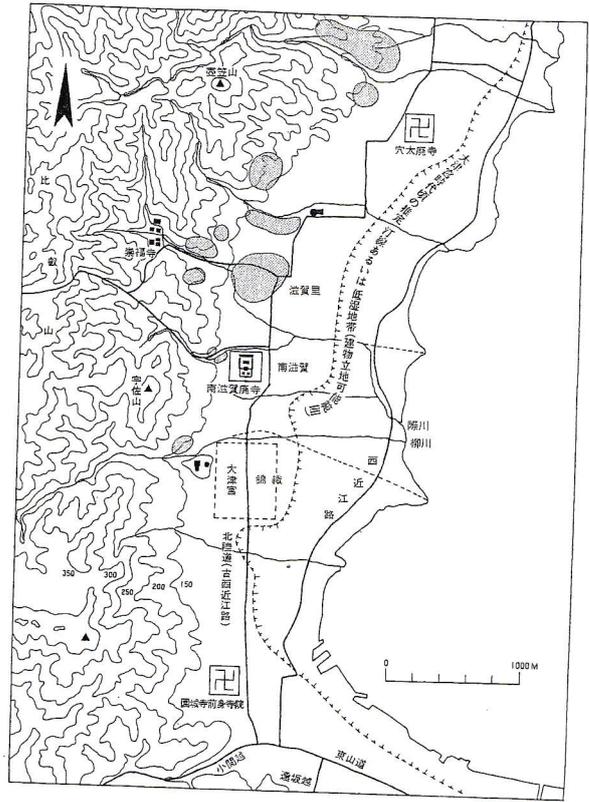
그리고 이들 목간에는 외부에서 가져왔고 여기서 폐기된 것도, 여기서 작성되어 사용된 후에 여기서 폐기된 것도 있는데 모두 한국 목간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중앙, 지방을 막론하여 정부 행정 사무, 문서 행정에 실제로 관여한 것은 야마토노아야(倭漢) 씨나 하타(秦) 씨 같은 도래씨족과 그 밑의 도래인집단이며 거기에서는 한반도의 최신 문자문화가 빠르게 수용되어 공유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오오미의 출토문자자료 상황은 일본의 초기 율령체제 형성에서 일찍이 일본열도로 이주해 와서 활동한 도래인이 큰 역할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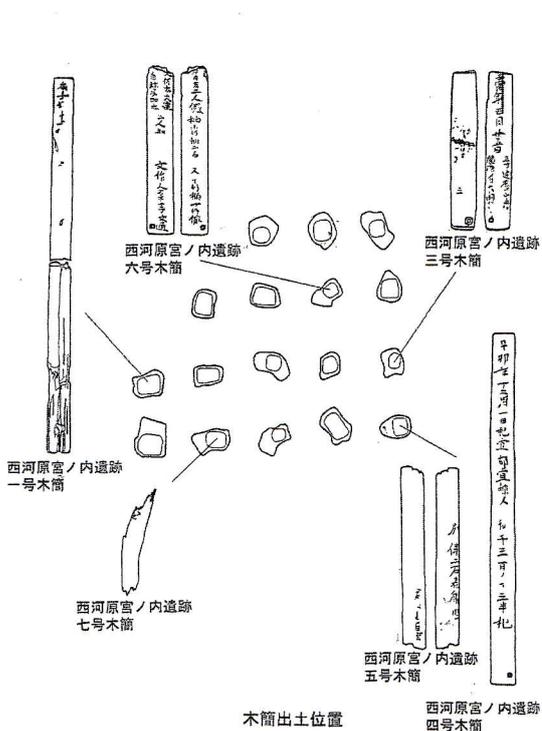
- 中主町教育委員会, 1990, 『中主町西河原森ノ内遺跡発掘調査報告書』I・II.
- 中主町教育委員会, 1993, 「西河原遺跡」, 『平成3年度 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
- 中主町教育委員会, 2001, 「西河原遺跡第10次発掘調査」, 『平成14年度 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
-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90, 『西河原森ノ内遺跡・第1・2次発掘調査概要』.
-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87, 『西河原森ノ内遺跡・第3次発掘調査報告書』.
- 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 1987, 『県道荒見・上野・近江八幡線単独道路改良工事(木部・八夫工区)に伴う埋蔵文化財試掘調査報告書』.
- 国立奈良文化財研究所, 1981, 『平城宮発掘調査出土木簡概報(14)』.
-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1977, 『第3回木簡研究集会記録』.
- 滋賀県教育委員会・財団法人滋賀県文化財保護協会, 1995, 『湯ノ部遺跡発掘調査報告書I』.
- 平川南, 2003, 『古代地方木簡の研究』, 吉川弘文館
- 市大樹, 2010,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 犬飼隆, 2008(증정판2011), 『木簡による日本語表記史』, 笠間書院.
- 三上喜孝, 2013, 『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 吉川弘文館.
- 森公章, 2009, 『地方木簡と郡家の機構』, 同成社.
- 大橋信弥, 2019, 『古代の地域支配と渡来人』, 吉川弘文館.
- 浜修・山本崇, 2011, 「滋賀・北大津遺跡」, 『木簡研究』33.
- 橋本繁, 2018, 「朝鮮半島古代の石碑文化」, 小倉慈司・三上喜孝 편 『古代日本と朝鮮の石碑文化』, 朝倉書店.
- 畑中英二, 2008 「考古学からみた西河原遺跡群」, 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第36回企画展図録『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
- 畑中英二・大橋信弥, 2007, 「滋賀・西河原宮ノ内遺跡」, 『木簡研究』29.
- 林紀昭・近藤滋, 1978, 「北大津遺跡出土の木簡」, 『滋賀大國文』16.
- 東野治之, 1994, 「最古の万葉假名文」, 『書の古代史』, 岩波書店.
- 市大樹, 2008, 「慶州月城塚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奈良文化財研究所・大韓民国文化財研究所 편 『日韓文化財論集I』
- 市大樹, 2008, 「西河原木簡群の世界」, 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第36回企画展図録『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
- 稲岡耕二, 1987, 「国語の表記史と森ノ内遺跡木簡」, 『木簡研究』9.
- 李成市, 2005, 「朝鮮の文書行政・六世紀の新羅」, 『文字と古代日本2 文字による交流』, 吉川弘文館.
- 三上喜孝, 2006, 「文書様式『牒』の授受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学歴史・地理・人類学論集』7.
- 三上喜孝, 2008, 「日本古代木簡の系譜—韓国木簡との比較検討を通して—」, 『목간과 문자』 창간호.
- 三上喜孝, 2009, 「古代東アジア出挙制度試論」, 工藤元男・李成市 편 『古代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雄山閣.
- 中西常雄, 1986, 「北大津遺跡出土の須恵器資料」, 『滋賀文化財だより』111.
- 大橋信弥, 2014, 「安羅伽耶と倭国の初期交流—倭漢氏の出身地をめぐる—」, 『한국민족문화』51.
- 田中史生, 2012, 「倭国史と韓国木簡」, 鈴木靖民 편 『日本古代の王権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辻広志, 1992, 「滋賀・西河原遺跡」, 『木簡研究』14.
- 山尾幸久, 1990, 「森ノ内遺跡出土の木簡をめぐる—」, 『木簡研究』12.
- 山尾幸久, 1997, 「古代近江の早馬道」, 上田正昭 편 『古代の日本と渡来の文化』, 学生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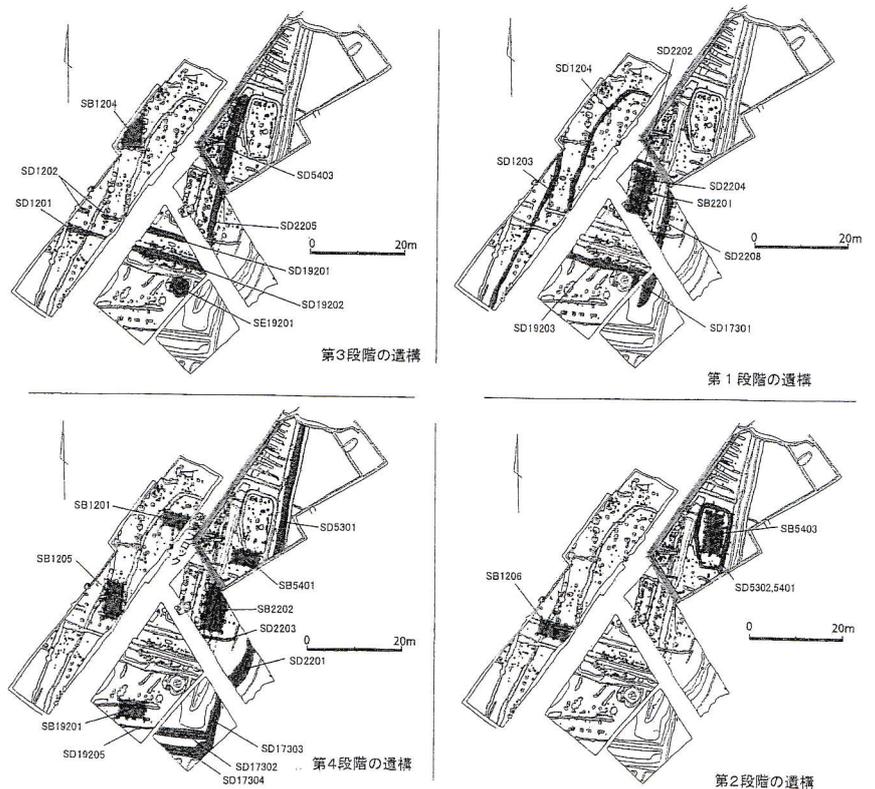
第2図 近江の渡来氏族分布図



第1図 大津北郊の遺跡位置図



第4図 宮ノ内遺跡木簡出土地点



第3図 森ノ内遺跡北半部遺構変遷図

引用木簡釈文②

森ノ内一四号

□□ 廿 □□ 利直十束

又中直五十又五十^{〔直カ〕}

□卅 □利直卅 □見卅五束

(121) × 22 × 2 081

光相寺四号

□田物 □□^{〔利カ〕}

□馬道 □□

(120) × 29 × 5 019

森ノ内七号

□百廿束馬評 □每倭^{〔甘カ〕}

ア連加久支廿束

刀良女六十束

(186) × 46 × 7 019

森ノ内八号

□□ □□ □申 □□ □首 □稻 □□ □首貨稻大卅束記

328 × 37 × 9 011

宮ノ内一号

庚子年十二月 □□^{〔月カ〕} □□^{〔記カ〕} 千五

662 × 41 × 10 011

宮ノ内三号

壬寅年正月廿五日 三寸造廣山 □□^{〔八十九カ〕} 勝鹿首大國

□田二百斤 □□ 272 × 44 × 7 011

宮ノ内四号

辛卯年十二月一日記宣都宣椽人 □稻千三百五十三半把。

595 × 41 × 10 011

宮ノ内五号

□□ 別俵二石春稻 □□^{〔貸カ〕} □石 □百束 (307) × (39) × 7 081

宮ノ内六号

□刀自右二人貸稻 □^{〔十斤カ〕} 稻二百 □^{〔斤カ〕} 又 □^{〔斤カ〕} 稻卅 □^{〔斤カ〕} 貸 □人佐太大連 文作人石木主寸文通。 □首弥皮加之 二人知 (289) × 45 × 5 019

近江の渡来人と文字文化の受容

－西河原遺跡群出土木簡を中心に－

大橋信弥(成安造形大学)

〈目次〉

はじめに

1. 近江の渡来氏族と渡来人の性格－「音義木簡」をめぐる－
2. 西河原遺跡群と出土木簡の性格と渡来人集団

おわりに

はじめに

近江は、律令体制下では、畿内に含まれず、東山道の一国であったが、歴史上三つの宮都が営まれるなど、畿内に準ずる地域であった。このため近江各地に勢力をもつ豪族たちは、大和政権に参画するものが多く、律令時代においてはその大半が郡の大領・少領に任じられる譜代の郡領氏族となっている。そして近江に居住する渡来氏族・渡来人は、大和・河内・山城など畿内と同様に、文献史料で確認される古代人名の三〇%以上を占めるなど、大きな勢力をもっていた。しかもその一族たちは、広く各地に拠点を持っており、ネットワークで結ばれていた。そうしたことも関連して、近江各地では木簡をはじめとする重要な文字資料の出土が確認され、その中には七世紀代に遡る令前の木簡も少なくなく、日本列島における文字文化受容の様相を具体的に窺うことができる。

そして、近江出土文字資料に、韓国出土の木簡や金石資料の影響が強くみられることについては、これまでに様々な視角から論究がなされており¹⁾、この報告では、こうした研究を参照し、近江における文字文化の受容を担った人々（渡来人）に焦点を当て、その具体的な動向をみていくことにしたい。

1. 近江の渡来氏族と渡来人の性格－「音義木簡」をめぐる－

近江に居住する渡来氏族と渡来人は、小論が対象とする出土文字資料を除けば、大半が律令期の文献資料によっている。したがって、そうした史料が、どれほどの過去の史実を伝えるものか、また、実年代としてはどこまで遡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問題があった。しかしながら、近江においては、考古学のデータに恵まれることもあって、渡来人集団の居住と、その活動が他地域に比べ、年代も含め、具体的に検証可能であり、文献資料と考古学のデータを突き合わせることにより、一定の理解が得られる環境にある。ただ、その詳細については、これまで、繰り返し述べているので²⁾、ここでは出土文字資料の具体的な検討の前に、その概要を述べ、近江の渡来氏族と渡来人の実態と性格を整理しておきたい。

『坂上系図』に引用される『新撰姓氏録』の逸文には、応神朝に渡来した倭漢氏の始祖阿智王が、仁徳天皇のころ、朝鮮三国に離散していた同郷の漢人を来日させることを提言し、その大半が後の大和国高市郡に定着したこと、やがて高市郡が手狭になったので近江・摂津などの諸国に分置したとあり、それが各地の漢人村主のおこりであるとする渡来伝説がみえる。後の史実を伝説化したものであろう。そ

して実際、近江国では、各種の古代の文献によって、滋賀郡を本拠とする多くの漢人村主の存在が確認される。九世紀以前の文献史料に見える、滋賀郡の古代人名の約四〇パーセントを占めている。大友村主・大友曰佐・大友漢人・穴太村主・穴太史・穴太野中史、錦部村主・錦部曰佐、大友丹波史・大友桑原史、志賀史・登美史・槻本村主・三津首・上村主などが主要なものである。

これら近江の漢人村主は近江へ移住した当初は、このような多くの氏族に分かれていたのではなく、志賀に居住する漢人として、志賀漢人と呼ばれたらしい。『日本書紀』推古十六年(六〇八)九月十一日条には、隋の使者裴世清が帰国する際、小野臣妹子を大使とする遣隋使が派遣されたことがみえる。その時八人の学問僧が同行しているが、その中には、「大化改新」で活躍する高向漢人玄理や南淵漢人請安のほか、近江出身とみられる志賀漢人慧(恵)隱の名もみえる。このことから、推古朝ごろには、近江に居住する志賀漢人の中から、早くも遣隋学問僧を出す状況が生れていたことが判明する。志賀漢人一族の有力者が、その学識・技術をもって、朝廷に登用されていることが知られる。

こうした大津北郊における、渡来氏族の居住を示す考古データは、これまで多くの蓄積がある。その墓域である山麓には、六〇〇基以上の(もともと一〇〇〇基以上あったとみられる)後期古墳群が分布しており、その多くは、当時の一般的な古墳と異なり、天井がドーム形を呈する横穴式石室(方形プランをとるものも少なくない)を主体とし、ミニチュア炊飯具の四点セットや、銀ないし銅製の叙子(かんざし)など特異な遺物を副葬している。その年代は六世紀前半から七世紀中葉であった。そして、こうした山麓の古墳群に対応するように、湖辺に広がる集落では、「大壁造り」呼ばれる土壁造りの、方形プランを取る特異な建物や礎石建物、それに付属すると見られるオンドル状の遺構が相次いで発見され、その年代は、古墳にはやや遅れ六世紀後半から七世紀前半とみられる。

こうした考古データは、渡来人集団が早くから定着し活動していた、河内や大和においては、すでに五世紀前半ごろから部分的に確認されており、五世紀末から六世紀の初頭ごろに、そうした渡来人集団の一部が、この地に集中移住し、活発な活動を始めたことが推定される³⁾。この地は、後に近江大津宮が造営されるように、もともと大和政権の経済的・軍事的な拠点があったとみられる。それは、湖上交通を利用した、近江を始め、東国・北国から都への物流の管理拠点であり、また、六世紀以降、活発化する越前を拠点とする高句麗との対外交渉の統括にあったとみられる。(第1図)

いうまでもなく渡来氏族は、中国・朝鮮の先進文化・技術をわが国にもたらし、それを駆使して大和政権に登用され、同時にその機構的編成に大きく貢献をしたのであるが、なかでも漢字をあやつり、文書を作成し、帳簿をつけ、外国語に精通して、対外交渉にあたるなど、政府の行政部門を実質的に担っていた。そうした視点で、志賀漢人の役割を考えるなら、六世紀以降、蘇我氏の指示により、倭漢氏がその配下の漢人を大津北郊に配置し、その政策を押し進めようと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

志賀漢人の分布の中心は、あくまでその本拠である滋賀郡南部であるが、浅井郡・坂田郡・犬上郡・愛知郡・神崎郡・野洲郡・栗太郡そして蒲生郡など、近江各地に濃密な分布が知られるのである。またその居住地をみると、いずれも郡内で琵琶湖に隣接した地域に拠点をもっている。そして、その居地は港湾施設をともなっている場合が多い。これらの点から琵琶湖の水運のカナメである滋賀郡の志賀津に本拠をおく志賀漢人が、近江各地の主要な港湾施設のある地に進出し、物流管理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その周辺にも拠点を拡大していった様相が推測されてくる。(第2図)

以上のように、大津北郊に移住・定着し、琵琶湖周辺の各地に進出した志賀漢人一族は、大和政権の機構(官司)の「官人」として登用され、政府の指示で、二次的に近江に移住し、政府の事業を担っていたのである。その職務は、当然、彼らが得意とする、文書・書類の作成、出納・財政の管理などの行政業務であったとみられるが、彼らのもっていた、そうした知識や技術の多くは、彼らの故国である韓半島における経験や知識を継承・活用したもので、文書を作成する上で、日本語を漢字で表記するため、様々な工夫をすすめ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それは、大和政権の一翼を担っていた、多くの渡来氏族やその配下の渡来人集団の間で共有されていたものといえよう。ただ、志賀漢人が集中的に居住していた、滋賀郡南部の大津北郊では、地形的な要因もあって、出土文字資料の発見に恵まれず、その

活動を追跡するのはきわめて困難であった。ただその一端を示すものとして、近江大津宮の南端付近と推定される大津市北大津遺跡から出土した「音義木簡」にふれておく必要がある。

北大津遺跡出土木簡

この木簡は、人工的な溝から出土したもので、近江出土の古代木簡で最も古い、近江大津宮の官衙地域に関わるものとみられる⁴⁾。発見当初から、漢字の訓（読み）・同義語・反切（音の表記）を簡条書きした、一種の辞書とみられていたが、その後の釈読により、反切は認めら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り、漢字の訓を万葉仮名で注記した辞書から、特定の原典を読む際に書き出した木簡で、当時の官人の間で、漢字の訓読を共有化する試みがなされていたことを示すとみられている。

この木簡は、中央からもたらされた可能性はあるものの、この地で使用された後、廃棄されたとみて、ほぼ誤らないであろう。そうした場合、この木簡を作成し使用した人物については、大津宮造営以前から、この地に派遣されていた志賀漢人と総称される漢人村主と考えられる。遷都に伴いそうした施設と人材は、大津宮の組織に吸収されたのであろう。

木簡は、発見当初から、赤外線写真により一部の文字が読み取れただけであり、「賛」と大きく書いた文字の下に「田須久」、「■」の下に、「阿佐ム加ム移母」、「積」の下に「久皮之」（当初は「久皮反」）とあるように、また、「采〈取〉」「■〈ツ久羅布〉」「披〈開〉」のように、その文字の訓を、一行か二行で書いている。それまで、漢字の訓読みが一般化されていないとされていた時期に、漢字で表記する時や、原典を読む際に、辞書から抜き書きして、手元に置いた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こうしたことから万葉仮名で書かれた和訓は、この時代の日本語表記のあり方を示す貴重な資料として注目されていた⁵⁾。ここに掲出したのは、その後すすめられた最新の釈文によって⁶⁾。

新たに釈読されたのは一七文字であるが、その残存状況から、もともと木簡全面に墨書があった可能性が強まった。これまで確認されたのは、合わせて七五文字以上となるが、新たに釈読できたのは、「鑠〈汗ツ〉」「鎧〈与里比〉」「費〈阿多比〉」「洛〈□羅□〉」「檢」など、すでに想定されていたものと、「慕〈尼我布〉」「■〈参須羅不〉」などである。これらは、最古の万葉仮名として、注目されていたが、今回の釈読により、ア・ウ・カ・ガ・ク・サ・ザ・シ・ス・タ・ツ・ネ・ハ・ヒ（甲）・フ・ム・メ（乙）・モ（乙）・ラ・ロ（乙）の和訓が確認された。また、その用法が、その後引き継がれなかったものもあり、いまだ、試行的な段階であったことが窺える⁷⁾。

この木簡が和訓の試行的な段階を示しているのは、先に見たように、この地に居住する渡来人集団、志賀漢人が、もともと大和や河内の政府中枢において活動し、五世紀末ごろこの地に移住したことと不可分の関係にあるといえよう。すなわち、すでに政府中枢での活動の中で、共有されていた行政的な文書作成にあたっての工夫や知識が、この地でも具体的に採用され、生か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るのである。

2. 西河原遺跡群と出土木簡の性格と渡来人集団

出土木簡により、渡来人による文字文化の受容が具体的に確認できるのが、琵琶湖の東、現在の野洲市（旧中主町）西河原に所在する西河原遺跡群で、七世紀から九世紀にかけて約一五〇年間存続した律令国家成立期の遺跡群である。この遺跡群を構成するのは、森ノ内遺跡をはじめ、湯ノ部遺跡・宮ノ内遺跡・西河原遺跡・光相寺遺跡・虫生遺跡などで、ほぼ空白なく隣接しており、同一遺跡群と認識できる。出土木簡は総数九五点に及び、七世紀後半の天武朝期（2期）に属するのが一〇点、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頭（3期）の大寶令以前のもの一九点、令制下の八世紀前半（4期）のものが六〇点（うち五七点が削りくず）で、ほかに4期以降と九世紀後半のものが各二点、時期不詳のものが二点ある。遺跡の盛期である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前半に集中している。

1) 遺跡群の概要

遺跡群の中核をなす森ノ内遺跡では、七世紀後半（2期）のころは、遺跡の北半部分において、周囲に溝をめぐるせて、整然とした配置をとる、大型の掘立柱建物群が形成されている⁸⁾。遺跡群全体の中核施設と考えられている。七世紀末から八世紀前半（3期）になると、それを埋め立てて、やや南側に同様の区画が形成されるが、八世紀の前半のある時期には、突然遺跡は途絶し、生活の痕跡はなくなっている。代わって、隣接する光相寺遺跡に、この段階以降の遺構・遺物は移っている⁹⁾。そしてこうした遺構に伴う遺物としては、木簡・墨書土器のほか、木製の祭祀に関わる遺物が多数出土している。なお遺跡の一角からは、歪みや変形のある須恵器が、大量に出土しており、その形態などから、大和政権へ製品を供給していた、郡北部に分布する鏡山古窯跡群のものともみられ、この地には、製品を出荷する前に選別する施設があったと推定されている。（第3図）

森ノ内遺跡に隣接する光相寺遺跡では、4期の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初頭に掘立柱建物・溝跡などが確認され、五点の木簡が出土した。遺跡の北半からは、「石辺君」「石辺」と墨書した土器が七点、南半からは「馬」二点、「三宅」五点が出土しており、祭祀に関わる木製品、フイゴの羽口、スラッグ、鉄製紡錘車、銅製鞍金具などが出土した。この地に遺跡群の中核が移動したとみられている。

森ノ内遺跡の南一・二kmに所在する湯ノ部遺跡は、野洲川の氾濫により埋没したあと、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前半の掘立柱建物・鍛冶関連遺構などが検出されている¹⁰⁾。そして、鍛冶関連遺構の西を限る溝から、2期に属する牒文書の木簡が出土している。木簡は廃棄状況からこの地点で作成・使用されたのではなく、周辺の施設で使用された後、鍛冶遺構で薪とするため集められたとみられる。

湯ノ部遺跡の北五〇〇mに位置する宮ノ内遺跡では、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頭（3期）の大型の総柱掘立柱建物を検出している。建物の柱抜き取り穴からは、後述するように貸稲に関わる一、三～七号の木簡が出土した。掘立柱建物は、総柱の三×四間（六・一三×七・七四m）で、床面積は約四五m²を測り、規模の大きい倉庫とみられ、西河原遺跡群の倉院の一画であると考えられる¹¹⁾。（第4図）

森ノ内遺跡の南五〇〇mに所在する西河原遺跡では、3期に属する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頭の掘立柱建物跡六棟以上と、幅三・二m以上、深さ一・一mの南北方向の溝跡が検出されている。三点の木簡はこの溝の第四層より出土し、土器のほか琴柱、斎串、箸、獣歯、獣骨、土錘などと、墨書土器六点がともに出土した¹²⁾。

以上のように、これらの遺跡群は、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前半という、律令国家成立期に盛期があり、遺構・遺物とも、一般集落とは明らかに異なる様相を示している。遺跡群の中核は、遺構の配置や出土遺物からみて、森ノ内遺跡の北半部であり、そこでは、鏡山古窯跡群の土器選別場も併設されていたらしい。光相寺遺跡は、これに準ずる遺跡群の中核とみられる。また、宮ノ内遺跡・湯ノ部遺跡あたりは、倉庫群や鍛冶工房などが広がっており、この地に地方の公的な施設が点在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2) 木簡の検討－文字文化受容の様相－

西河原遺跡群出土の木簡は、その内容・形態から、いわゆる①狭義の文書、②帳簿・伝票などの記録簡、③荷札・付札類に分類できる。そして、作成者・作成場所の違いから、外部で作成されこの地にもたらされたものと、この地で作成されたものに分類できる。①の文書には、外部からこの施設にもたらされたものと、この地にあった施設で作成されたものがあり、②の記録簡は、基本的にこの地で作成されたもの、③の荷札・付札は、基本的に外部で作成されこの地にもたらされたものとなる。そういった視点で、個々の木簡の成り立ちを見ていきたい。

森ノ内二号〈やまと言葉の語順で表記された文書木簡〉

この木簡は、「衣知評」「棕¹³⁾□」という記載から七世紀後半の文書木簡である。森ノ内遺跡の中心部

とみられる、北半部の大型建物を区画する溝から出土したもので、その内容は、近江国庁か中央政府の官人とみられる「棕□」（内蔵直か）が、この地に居住するト部（某）に指示した文書で、「私が持ってこようとした稲は、馬が得られなかったので、そのまま帰ってきた。そこでおまエト部が、舟人を率いて行ってくれ、その稲の在る所は衣知評平留五十戸の旦波博士の家である」とあり、外部で作成され、この地にもたらされ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ころであろう。木簡は私信ではないから、「棕□」が、仮に近江国庁の「官人」であるなら、文書を作成したのは、「棕□」自身かその配下で、「国符」的な機能をもつものといえよう。おそらく文書を受け取ったト部が、廃棄したのか、この地にあった施設（郡家かその出先機関か）で保管された後廃棄されたと考えられる¹³⁾。

その内容からは、琵琶湖の水運を利用した物資の運搬だけでなく、馬を利用した陸路による運送が、野洲と愛知の間でなされていたことが窺える。稲の所在する衣知評平留五十戸の旦波博士の家（ヤケ）は、当然個人の居宅ではなく、公的な施設で、おそらく湖東一帯の物流の拠点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みられる。旦波博士（大友但波史）氏も、志賀漢人の一族であるから、後に詳しく見るように、西河原遺跡群の施設で活動する志賀漢人の一族と連携して、水陸交通を活用する、公的な物流・交易と深くかかわっていたとみられる。

そして、この木簡は、倭漢氏の一族である棕（内蔵）直氏が作成して、ト部宛に送ったものであり、この施設の責任者とみられるト部の配下として、志賀漢人たちが実務に当た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から、こうした関係の背後に、倭漢氏一族における前代以来の族制的な関係が、引き続き活用されていたことが窺える。したがって、この木簡は、この地で作成されたものではないが、倭漢氏という有力な渡来氏族とその配下の間で、共有される文字文化のあり方を示唆しているともいえる。

すなわち、この木簡が、これまで、歴史学者だけでなく、国語学・国文学者に注目されたのは、七世紀後半という早い時期に、純粋な漢文ではなく、やまと言葉の語順で表記された和文表現が出現していることであった。そしてこの木簡の発見により、すでに当時の政府機関において、和文表記の文書が、広く運用さ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のである¹⁴⁾。また、その表記に、クラを「棕」字で表記することや、「伝之」「反来之」などの和文表記の文末表現が、韓国の「壬申誓記石」（壬申年は五五二年か六一二年とされる）の表記に見えること、また、木簡の裏面の九字目が空白に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も、「壬申誓記石」において、文末を明示するために採用され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ており¹⁵⁾、韓半島の文字文化の影響が強くみられる。和文表記にあたって、こうした韓半島における、自国語を漢文で表記する試みが、学習・受容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おり、中央・地方の政府機関において活動する渡来人たちと、各地に派遣された渡来氏族・渡来人の間に、こうした最新の文字文化の受容の成果が共有さ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森ノ内六号〈この地に届ける物品に付された「国符？」〉

遺跡群の中核である、森ノ内遺跡北半の大型建物を区画する地区の一角から出土した3期の文書である。下半にしか文字は残存しないが、墨痕の痕跡は上方にもある。全体の内容は不明であるが、「使人」として「民直安万呂」なる人名があり、「従」「賜」などの文字が見えるから、使者に何らかの物品を持たせ、届ける際に付された文書木簡とみられる。中央か近江国庁で作成されたものであろう。民直安万呂は、森ノ内二号木簡に見える「棕□」と同じく、倭漢氏の同族で、同様に近江国庁で公務に当たっていた可能性がある。この木簡も、森ノ内二号と同様に、「国符」的なものであり、近江国庁で作成され、この地にもたらされ、一定期間保管された後、廃棄されたのであろう。この木簡の場合も、倭漢氏の同族とその配下の渡来人集団が作成に関与しているとみられ、律令体制導入以前からの族制的関係が活用されていることが窺える。

湯ノ部一号……〈模範文として作成・使用された特異な「牒」木簡〉

この木簡は、表裏二面のほか、側面にも「丙子年十一月」の年紀を記すブック型の特異な文書木簡

で、本来、実用として使われたものではなく、模範文として写し取られ、背文字で分類して保管されたとみられる。湯ノ部遺跡の鍛冶遺構に関連する3期に属する溝から出土したが、文書そのものは、年紀の通り、2期の天武五年（六七六）のものと推定される。出土地点で作成・使用されたものではなく、鍛冶遺構の燃料として、西河原遺跡群の中核部で作成され、その用途が失われた後に廃棄され、集積されたとみられる。木簡の形態は、厚さ二〇mmと分厚く、裏面の右辺はやや薄くなっている。木取りは木目に添って湾曲し、右長辺から膨らむやや変形した長方形である。表面には刀子傷と思える細い筋や文字を削り取った跡が見える。廃棄されたことを窺わせる。

この木簡の特徴は側面に年紀を記すことであるが、このことについては、表裏二面だけでなく、四角柱の四面に文字を書くこともある韓国木簡の影響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牒」で始まり「謹牒也」で終わる養老公式令の牒式にのっとった木簡であるが、この点についても、六世紀後半の四角柱の四側面に墨書した、韓国慶州の月城塚字出土木簡に、個人の上申文書として、牒の文書があり、韓国木簡の影響が指摘されている¹⁶⁾。そして、この木簡は、本来、実用として使われたものではなく、模範文として写し取られ、机上に並べ保管されたとみられ、原文書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作成された地に残されたといえる。したがって、原文書と模範文の作成者は別で、時期も異な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

原文書はこの地の有力者玄逸という人物が、近江国司ないし野洲郡司に上申したもので、この地で発行されたものである。欠字が多く内容の詳細は明らかでないが、「蔭」「蔭人」という表現からいわゆる「蔭位制」の前身となる制度に関わるもので、浄御原令以前に制定された法令に基づき、天武四年の五月に「蔭人」に認定された玄逸が、翌年の二月になってもその御蔭を被むっていないことを訴えたものとみられる。御蔭のなかみはよく解らないが、「養官丁」という記載から仕丁の受給に関する規定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文書の原文が、玄逸により書かれたものか、配下の書記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かはわからないが、この地において、作成された公文書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あろう。そして、この木簡が初期律令期における文書の模範文として再利用されたとするなら、かかる文書を写し取り、模範文として作成し、保管していたのは、この地にあった施設で、実際に文書作成業務に当たっていた、志賀漢人を中心とする渡来人たちであり、木簡の形態や、文書の様式に韓半島の影響がみられるのも、首肯されよう。

西河原一号〈野洲郡司から馬道里長あてに出された「郡符」木簡〉

この木簡は、遺跡の中心部とみられる掘立柱建物に付属する南北溝から出土したもので、「里長」という記載から4期の八世紀初頭（大宝～靈龜年間）のものとみられる。短冊形をした郡符木簡で、下半が強く折り取られており、野洲郡司から馬道里長宛てに発給されたものであり、女丁の差点を命じた文書である。郡庁で作成され宛先の馬道里長に届けられ、その地で廃棄されたとするなら、西河原遺跡が馬道里となる。ただ、郡符木簡は、多くの場合、宛先に届いた際、廃棄されるのではなく、伝達の証として、郡司のもとに戻されるのが一般的であるから、この地が、野洲郡家（安評家）であることを示すとする見方も有力である。その場合は、この地で作成され、宛先からこの地に戻されたことになる¹⁷⁾。しかしながら、私は、後述するように西河原遺跡群が、馬道里であり、この時期の野洲郡家も、この地にあったと考えている。

すなわち、後にみる森ノ内一号木簡は、馬道郷の戸主の歴名であり、その居住者を書き上げたものであり、その多くが志賀漢人の一族である。さらに森ノ内遺跡と並ぶ、西河原遺跡群の中核である光相寺遺跡では、四号木簡に「馬道」、二号木簡に「大友部龍」という人名が見え、「馬」「石辺」「三宅」などと墨書された土器が多数出土している。また、倉庫群のある宮ノ内遺跡でも、二号に「三寸造廣山」、六号にも「石木主寸文通」が見え、歴名に見える氏族名と一致する。これらの人々は、西河原遺跡群の居住者である可能性が高い。特に、石木主寸文通は、「文作人」という記載からみて、木簡の作成者であり、この遺跡群に居住していたことは確実であろう。こうしたことから、この遺跡群を、馬道里（郷）としても、大きな問題はないと考える。その場合、野洲郡家も、馬道里に所在していたことに

なる。

この地は、先に見たように、二号木簡により、衣知評との湖上交通路の存在が示唆され、森ノ内六号・一一号により、中央や近江国庁などとの、使者の往来が想定されるなど、陸路による交通路が、この地を通過しており、水陸交通の要衝であったとみられる。この地に濃密に分布する馬道首は、そのウジ名からみて、こうした駅路＝馬道の管理運営に携わっていたのであろう¹⁸⁾。この文書は、郡司から馬道里長宛てに発給され、使命を終えた後、馬道里にあった野洲郡家に戻され、廃棄されたのであろう。したがってこの文書の作成にも志賀漢人の関与が窺える。

森ノ内一一号〈京から来た「大夫」に提出された「前白木簡」〉

この木簡は、3期に所属し、森ノ内遺跡北半の遺跡群中枢から出土したものである。「^{〔圖〕}白」「大寵命坐□」という表現から、いわゆる「前白木簡」とみられる、上申文書である。こうした書式についても、韓国木簡の影響が指摘されているが、この文書に見える「自京大夫」については、京から来た「大夫」であり、この地に立ち寄った際に、この地の「官人」が「大夫」に提出したもので、この地で作成された公文書であろう。本来、宛先の「大夫」の手元に残されるべきものであろうが、使命を終えたため、「大夫」の手で、この地で廃棄されたと解される。「前白木簡」は、宮都などでも出土例があり、この地に中央の使人が立ち寄る政府機関のあっ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そしてこの文書を作成したのは、この地の施設を運営していた志賀漢人などの渡来人で、文書の書式や表現について、政府機関と共有す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

森ノ内一号〈野洲郡馬道郷の戸主歴名〉

西河原遺跡群出土の木簡の多数を占めるのは、帳簿・伝票などの記録簡で、当然この地で作成され、使用後この地で廃棄されたものである。その代表的なものが森ノ内一号で、税負担に関わる戸主歴名の記録簡である。森ノ内遺跡の北半部の大型建物を区画する4期の溝から出土したものである。短冊形の大型の木簡で、四隅とも切り落としている。表裏とも四段にわたって「戸主」の名を列挙しており、すべてカバネを表記している。割注に年齢と課丁の記述のあるものもみられ、税負担などの台帳として、使用された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そして再積読により、従来A面とされていたのがB面で、旧B面がA面となった。これにより新A面の第一段が文書のタイトルで、「□□郡馬道郷□□里」という、居住行政区画名であることが判明し、戸主たちの居住地が野洲郡馬道郷であることが明確になった。

ここには、石辺君をはじめ、三宅連・登美史・馬道首・三寸造・大友主寸・大友・佐多直・石木主寸・郡主寸・黄文□□・□□臣らの居住が確認されるが、このうち石辺玉足は、平城宮南面東門周辺出土の木簡に「益珠郡馬道郷石辺玉足」が見え、同一人物と考えられ、ここに見える歴名のタイトルと一致する¹⁹⁾。先に見たように、歴名に見える戸主のうち、三宅連・石辺君・馬道首・三寸造・大友主寸・大友・石木主寸などの氏族名は、光相寺二号・四号や墨書土器、宮ノ内二号・六号などに見え、この地が馬道郷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そしてこれら歴名に見える人名のうち、登美史・馬道首・大友主寸・佐多直・石木主寸・郡主寸の諸氏が、志賀漢人の一族である。先にもみたように、こうした渡来人集団は、倭漢氏の配下として、五世紀末から六世紀前半に、中央から大津北郊にあった国の出先機関に派遣され、その職務により、近江各地の水陸交通の要衝に配置されたとみられる。したがって、西河原遺跡群は、その機能や集住のあり方からみて、野洲郡家が設置される以前から、志賀漢人の活動する、湖東地域の重要拠点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といえよう。彼らは、中央で活動する渡来氏族・渡来人集団とともに、故国である韓半島における文字文化を、素早く受容し共有し、西河原遺跡群（後の野洲郡馬道郷）の施設において活動し、その主要な業務として公文書の作成に当た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森ノ内一四号・光相寺四号・森ノ内七号・森ノ内八号〈貸稲の利息に関わる記録〉

この遺跡群出土木簡で、多数を占めるのが「貸稲」＝出挙の関わる記録簡である。森ノ内一四号・七号・八号と光相寺四号は、出挙の記録帳簿類でと考えられる。

2期の森ノ内一四号は、人名は見えないが、「利直」「十束」「卅五束」などの表現から、貸稲の利息に関わる記録類と推測される。3期の光相寺四号は、裏面に「馬道」とあり、この地の居住者馬道首氏とみられる。「田物」については、よく判らないが、農作物に関わる税など、農民の負担に関わるもので、表面の四字目が、「利」と読めるなら、これも貸稲に係る記録と言えよう。同じく3期の森ノ内七号は、表面には「刀良女」という女性の名が見え、表面に「馬評」なる行政区画名と「倭ア連加久支」という、これも女性とみられる人名が記されている。人名の下に「六十束」「百廿束」といった稲束数が見えており、貸稲の数値やその利息に関わる記録であろう。同じく3期の森ノ内八号は、残存長三二・八cm、幅三・七cmの大型の記録簡とみられる。墨痕が不鮮明で内容は明らかでないが、「□□□首□稲」とあり、また「□□首貸稲大□束記」とあるから、□□首（おそらく他の文字資料から馬道首とみられる）なる人物への、貸稲に関わる管理記録とみられる。すでに、韓国扶余の双北里遺跡出土の、戊寅年（六一八）の年紀をもつ「佐官貸食記」など、韓国木簡の表記の影響が指摘されている²⁰。これら一連の木簡は、出土場所も、遺跡の中核である森ノ内遺跡・光相寺遺跡であり、貸稲（公出挙）の管理記録として、この地にあった施設で作成・保管され、後に廃棄されたと考えられる。当然その作成に志賀漢人たちが当たったと考えられるが、実際に貸稲の出納などの運営と記録にあたった人物が特定できるのが、宮ノ内遺跡出土の木簡である。

宮ノ内一号・宮ノ内三号・宮ノ内四号・宮ノ内五号・宮ノ内六号〈貸稲の出納に使われた「倉札」〉

すべて4期に属する木簡である。宮ノ内一号は昭和六〇年度の試掘調査で出土したものであるが、平成一七年の調査により、同じ掘立柱建物の柱抜き取り穴から出土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人為的に中央部で折られた状態で出土し、下端中央に円孔が穿たれている。庚子年は文武四（七〇〇）年。大半が読めないが、下半に「□□千五」とあり、宮ノ内四号と同様の記載があったとみられ²¹、貸稲に関わるものと考えられる。

宮ノ内三号には、下端やや左よりに円孔が穿たれている。表面の壬寅年は大宝二（七〇二）年で、裏面にも墨痕はあるが、薄くて読めない。日付の下に二行書きの人名があり、その下にサイン状のものがみえる。受け取りの確認のようなものか。裏面に「□田二百斤」とあるから、貸稲に関わるものであろう。「三寸造」は森ノ内一号木簡の歴名の中にもみえるが、「勝鹿首」は初見である。つぎの四号木簡に見える「宣都宣椽人」の「宣都宣」もカツカで、カバネは異なるが、ウジ名は一致し注目される。宮ノ内四号も人為的に中央で二つに折られている。下端右よりに円孔が穿たれ、冒頭の辛卯年は持統五（六九一）年で、片面のみに墨書がある。「某日記」という記載様式は、八世紀初頭以前の表記法とされる。「稲千三百五十三半把」は、稲一三五束三把五分であるが、倉庫に収納される量としては少ないから、出挙に関わるものであろう。「宣都宣椽人」への貸稲の量を記録したものと解される。また、「五十三半把」と数量が半端であることから、貸付ではなく返納に関わる記録と考えられる。「椽人」の例としては、近江では、高島市永田遺跡出土の、八世紀末から九世紀初頭の歴名木簡に、「秦椽人酒公」がみえ、『正倉院文書』の天平勝宝三年（七五一）七月二十七日付の「近江国甲可郡司解」に、甲賀郡葦部郷の戸主に「椽人刀良売」がみえる。いずれも葦の管理に関わった渡来氏族とみられ、「宣都宣椽人」も渡来人であろう。

宮ノ内五号は、下半が折損し、右辺に割れがある。読める文字が少なく、その内容は、「別俵」という表現や、「春稲」とあるから、収蔵する稲から春稲として提出するものを、取り出すなどの行為と関わりとみられる。裏面の「百束」の次の欠字が、残画から「貸」と読めるなら、これも出挙にも関わることになる。

宮ノ内六号は上半が欠損し、下端右寄りに円孔が穿たれている。内容は表面には「□・刀自」ら二人

に「貸稻」したことが記され、裏面には二人の名が列記され、その下に「二人知」とあるから、おそらくこの二人が「貸稻」の保証人と考えられる。また稲の数量の単位を表わす文字は、宮ノ内三号にもみえる「斤」で、稲の重量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文作人」については、文字通りこの「貸稻」の証文の作成者であろう。出挙の具体的な運営を語る記録簡といえよう。なお韓国の「大邱戊戌銘塙作碑」にも、碑文の作者を「文作人」とする記載が見える。「戊戌年」は新羅眞智王三年（五七八）と推定されており²²⁾、こうした記載方法が朝鮮半島から受容さ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なお、この木簡の「文作人」である石木主寸は、森ノ内一号の戸主歴名にみえており、志賀漢人の一員で、馬道里の居住者とみられる。そして職務内容から、当然西河原遺跡群の施設で活動していた「官人」とみられ、こうした渡来人集団が、業務の執行に当たり、木簡を作成していたことを、具体的に裏付けるものであろう。

以上のように、木簡の大半は短冊状で、四～四・五cmの幅の広いもので、長さも上・下半が欠失する五号・六号と完形の一号・四号の四点は、六〇cm前後を測る長大なものとなる。短い三号も半分の三〇cm弱と、すべて規格性をもつものである。年紀の示す大宝令制定前後の時期に対応する、古い地方木簡の特徴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また、過半を欠失する五号を除き、一・三・四・六号の下端に隅丸方形の穿孔が確認でき、紐を通し束ねて保管されていたことを推測させる。

また四号に「稻千三百五十三半把」、五号に「別俵二石春稻」「□石□□百束□」、六号に「□刀自右二人貸稻」「稻二百□又□□稻冊□貸」など、貸稻（出挙）と米の数量に関わる記述があって、右に見たように束ねて使用されていたとみられるから、一連の木簡が稲の貸借（出納）・保管などに関わる倉札であることをうかがわせる。そしてこれらの木簡が、廃絶した大型の倉庫とみられる建物の柱根抜き取り穴の大きさに合わせ、半折して投棄されていたことから、この倉庫で使用された後、その廃絶に伴い投棄された可能性が高いといえよう。こうした倉庫は、おそらく調査地点の周辺にも多数存在したと想定され、郡家の管理下にあった倉院と考えられる。

こうした木簡は、右にみたように、出挙の管理のための作成された「倉札」で、この地で倉庫管理にあっていた「官人」が記載・管理した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事実「文作人」とある石木主寸文通は、右にみたように志賀漢人の一族で、この地の施設に勤務する渡来人であった。したがって、この遺跡群がこうした渡来氏族・渡来人集団により、実質運営されてい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

西河原遺跡群は、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前半にその盛期があり、遺構・遺物から一般集落とは明らかに異なる様相を示している。その中枢は、溝で区画された大型の建物と出土遺物からみて、森ノ内遺跡に北半にあったとみられる。そこでは、大和政権に製品を提供していた鏡山古窯跡群の、土器選別場も併設されていた。光相寺遺跡は、これに準ずる遺跡群の中枢とみられ、宮ノ内遺跡・湯ノ部遺跡の周辺は、倉庫群や鍛冶工房・木製品工房など生産工房が点在していた。これらはこの遺跡群が郡（評）家の前身である律令国家成立期の地方行政機関であることを示すものであろう。

出土した木簡の内容からも、この地に、中央ないし「近江国庁」と、文書のやり取りをし、使者が往来する行政機関があり、「馬道」という地名や、馬道首氏の居住から、陸上交通（初期の駅路）の拠点があったことが窺え、また、この地と愛知を結ぶ航路の存在から、港湾施設や琵琶湖の水上交通を利用した、物流・交易のネットワークの存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郡符木簡の出土は、この施設が、初期の野洲郡家（安評家）であることを示しており、戸主の歴名木簡などにより、この地の居住者の多くが、天津北郊に拠点をもつ志賀漢人の一族であ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そして、宮ノ内六号に「文作人」とみえる石木主寸文通のことからは、この地に居住する志賀漢人一族が、この地にあった施設で、文書の作成などの行政実務を実際に担っていたことを裏付けた。

おわりに

以上、北大津遺跡・西河原遺跡群出土木簡を中心に、近江の渡来人と文字文化の受容について、雑

駁な検討を加えた。近江において、天智・天武朝に遡る木簡が、比較的多く出土することと、この地に早くから渡来人集団が集住し、活動していたことと深く関わる事が改めて確認できた。ただ、近江における文字文化の受容は、中央から移住した渡来人集団が担っており、移住した年代からみて六世紀に遡る可能性はあるものの、今のところ出土文字資料の発見はない。ただこれまで調査がなされたのは、ごく一部であって、今後の調査・研究の進展が期待される。

なおこうした木簡には、外部からもたらされ、この地で廃棄されたものも、この地で作成され、使用後この地で廃棄されたものがあるが、そのいずれにも、韓国木簡の影響が強くみられ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このことは、当時の中央・地方に関わらず、政府の行政事務、文書行政に実際携わっていたのは、倭漢氏・秦氏などの渡来氏族と、その配下の渡来人集団であり、そこにおいては、最新の韓半島における文字文化が、素早く受容され、共有されていたことが窺える。このような近江における出土文字資料のあり方は、わが国の初期律令体制の形成にあたって、はやくから日本列島に移住し、活動した渡来人の大きな役割を具体的に示すものといえよう。

- 1) 平川南『古代地方木簡の研究』（吉川弘文館・二〇〇三）、三上喜孝「日本古代木簡の系譜－韓国木簡との比較検討を通して－」（『木簡と文字』創刊号・韓国木簡学会・二〇〇八、後に『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吉川弘文館・二〇一三に所収）、田中史生「倭国史と韓国木簡」（鈴木靖民編『日本古代の王権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二〇一二）
- 2) 大橋信弥「近江における渡来氏族の研究－志賀漢人を中心に－」（『古代豪族と渡来人』・吉川弘文館・二〇〇四）
- 3) 大橋信弥「安羅伽耶と倭国の初期交流－倭漢氏の出身地をめぐって－」（『韓国民族文化』第51集・二〇一四、後に『古代の地域支配と渡来人』・吉川弘文館・二〇一九に収録）
- 4) 林紀昭・近藤滋「北大津遺跡出土の木簡」（『滋賀大國文』16・一九七八）、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第三回木簡研究集会記録』（一九七七）、中西常雄「北大津遺跡出土の須恵器資料」（『滋賀文化財だより』111・一九八六）
- 5) 東野治之「最古の万葉仮名文」（『書の古代史』・岩波書店・一九九四）
- 6) 浜修・山本崇「滋賀・北大津遺跡」（『木簡研究』第三十三号・二〇一一）
- 7) 犬養隆「日本語史資料としての七世紀木簡」（『木簡による日本語表記史』・笠間書院・二〇〇八・増訂版・二〇一一）
- 8) 『中主町西河原森ノ内遺跡発掘調査報告書』I・II（中主町教育委員会・一九九〇）、『西河原森ノ内遺跡・第1・2次発掘調査概要』（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一九八七）、『西河原森ノ内遺跡・第3次発掘調査報告書』（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一九八七）
- 9) 畑中英二「考古学から見た西河原遺跡群」（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第36回企画展図録『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二〇〇八）、西河原遺跡群の時期区分は、2期が七世紀後半（安評家？）、3期が七世紀末～八世紀初頭（野洲郡家？）、4期が八世紀前半（野洲郡馬道郷？）、5期が八世紀後半となる。
- 10) 『湯ノ部遺跡発掘調査報告書I』（滋賀県教育委員会・財団法人滋賀県文化財保護協会・一九九五）
- 11) 畑中英二・大橋信弥「滋賀・西河原宮ノ内遺跡」（『木簡研究』二十九号・二〇〇七）
- 12) 『西河原遺跡』（『平成3年度・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中主町教育委員会・一九九三）辻広志「滋賀・西河原遺跡」（『木簡研究』十四号・一九九二）、『西河原遺跡第10次発掘調査』（『平成14年度・中主町内遺跡発掘調査年報』・中主町教育委員会・二〇〇一）
- 13) 森公章「木簡から見た郡務と国務」（『地方木簡と郡家の機構』・同成社・二〇〇九）
- 14) 山尾幸久「森ノ内遺跡出土の木簡をめぐって」（『木簡研究』十二号・一九九〇）、稲岡耕二「国語の表記史と森ノ内遺跡木簡」（『木簡研究』九号・一九八七）
- 15) 犬養隆「森ノ内遺跡出土手紙木簡の書記様態」（『木簡による日本語表記史』・笠間書院・二〇〇八・増訂版・二〇一一）
- 16) 李成市「朝鮮の文書行政・六世紀の新羅」（『文字と古代日本2・文字による交流』・吉川弘文館・二〇〇五）、三上喜孝「文書様式『牒』の授受をめぐる一考察」（『山形大学歴史・地理・人類学論集』7・二〇〇六）、市大樹「慶州月城塚出土の四面墨書木簡」（奈良文化財研究所・大韓民国文化財研究所編『日韓文化財論集I』・奈良文化財研究所学報77冊・二〇〇八、後に『飛鳥藤原木簡の研究』・塙書房・二〇一〇に収録）
- 17) 平川南「郡符木簡」（『古代地方木簡の研究』・吉川弘文館・二〇〇三）、市大樹「西河原木簡群の世界」（『古代地方木簡の世紀－文字資料から見た古代の近江－』・前掲）
- 18) 山尾幸久「古代近江の早馬道」（上田正昭編『古代の日本と渡来の文化』・学生社・一九九七）
- 19) 『平城宮発掘調査出土木簡概報（十四）』（国立奈良文化財研究所・一九八一）
- 20) 三上喜孝「古代東アジア出挙制度試論」（工藤元男・李成市編『古代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雄山閣・二〇〇九、後に『日本古代の文字と地方社会』吉川弘文館・二〇一三に所収）
- 21) 『県道荒見・上野・近江八幡線単独道路改良工事（木部・八夫工区）に伴う埋蔵文化財試掘調査報告書』（中主町教育委員会・中主町埋蔵文化財調査会・一九八七）
- 22) 橋本繁「朝鮮半島古代の石碑文化」（小倉慈司・三上喜孝編『古代日本と朝鮮の石碑文化』・朝倉書店・二〇一八）

토론문

김영심(한성백제박물관)

大橋信弥, 「近江の渡來人と文字文化の受容 -西河原遺跡群出土木簡を中心に」에 대한 토론문

김영심(한성백제박물관)

오오하시 노부야(大橋信弥) 선생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오미(近江)의 도래인과 문자문화의 수용 문제를 야스시(野洲市) 니시가와라(西河原)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셔서 평소 도래인(이주민) 문제 및 목간 등의 문자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는 문서·서류의 작성, 출납·재정의 관리 등 행정 업무 능력을 가진 도래씨족으로서 公文書에 해당하는 西河原유적 목간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자의 所任을 다하고자 합니다.

I. 오오미(近江)의 도래씨족과 도래인의 실태 및 성격

1. 야마토노아야(倭漢) 씨의 시조와 관련하여

倭漢氏(東漢氏)의 시조에 관한 설명을 할 때 『坂上系圖』에 인용된 『新撰姓氏錄』의 逸文을 인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 기록이 아치노오미(阿智王)이 한반도에 흩어져 있던 漢人들을 일본에 오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기록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서인지 궁금합니다. 『日本書紀』 응신기 20년조에는 야마토노아야노아타이(倭漢直)의 조상으로 아치노오미(阿知使主)가 나오고, 이를 응신기 15년조의 阿直伎(岐)나 『續日本紀』 환무기 연력9년(785)에 나오는 阿智王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발표자는 이들 사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倭漢氏를 구성한 도래인 집단의 중추는 安羅加耶로부터의 이주자로 보고 있기 때문인지요? 4세기말부터 5세기까지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의 대부분은 가야남동부·가야남서부·전남 서부의 영산강유역에서 출자했고, 백제로부터의 이주민의 직접적인 도래는 6세기 이래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는데,¹⁾ 이렇게 보는 시각은 현재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2. 시가노아야히토(志賀漢人)의 활동과 소가(蘇我) 씨

발표에 따르면, 志賀漢人은 원래 야마토(大和)나 가와치(河内)의 정부 중추에서 활동하던 도래인 집단의 일부가 5세기말~6세기 초경 대화정권의 官司의 관인으로 등용되어, 정부의 지시에 의해 大津北郊에 이주해서 琵琶湖의 수운 교통의 이점을 이용하여 주변 각지에 진출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해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세기 이후 蘇我氏의 지시에 의해 倭漢氏가 그 배하의 漢人을 大津北郊에 배치해서 그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는데, 蘇我氏를 정부와 동일시해도 되는지요? 倭漢氏의 일부가 志賀漢人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정권의 유력씨족인 蘇我氏가 개재되어 있고, 蘇我氏는 도래계 씨족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키운 면도 있다고 보는데, 야마토조정과 蘇我氏, 도래씨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大橋信弥, 2014 「安羅加耶と倭國の初期交流」 『한국민족문화』 51, 259-260쪽

II. 니시가와라(西河原) 유적 목간에 대한 이해

1. 西河原遺跡群의 시기구분

西河原유적을 7세기부터 9세기까지 150년간 존속한 울령국가 성립기의 유적군으로 보고, 2기를 7세기 후반, 3기를 7세기 말~8세기초, 4기를 8세기 전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木簡의 연대는 대체로 2~4기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에 해당하지만, 1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기가 더 올라가는 목간이 출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2. 모리노우치(森ノ内) 2호 목간

1) 지방의 공적인 시설이 자리잡고 있던 西河原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해 주고 있어서, 郡의 관청 터로 추정되는 나주 복암리에서 출토된 7세기 초(610년)의 백제 목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森ノ内 2호 목간은 7세기 후반 목간으로 “衣知評 平留五十戶”가 기재되어 비록 國이나 郡은 나타나지 않지만, 西河原 서하원 1호 목간의 “郡司符馬道里”나 森ノ内 1호 목간의 “□□郡馬道鄉□□里□” 등의 표기에서 지방행정단위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701년 大寶令에 의한 일본 고대국가의 지방행정구분은 쿠니(國)-코호리(郡)-사토(里)인데, 그 연원이 國-評-五十戶라는 중층구조에 있었다는 것도 西河原유적 및 아스카(飛鳥)·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출토된 목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전의 저서에서 ‘近江의 울령유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²⁾ 西河原유적 출토 목간도 公的인 시설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近江令-淨御原令-大寶令에 이르는 天智, 天武, 持統년간의 울령 제정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近江이 畿内に 준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인가요?

2) 한자의 용법

‘椋’이라는 글자는 일본과 한국의 문자 자료에서 ‘창고(倉)’를 의미하는 한자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椋은 중국에서는 창고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본의 國字로 생각해왔으나, 한국에서도 창고를 의미하는 ‘椋’자가 사용된 문자자료가 다수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해진 글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덕흥리 벽화고분(409) 묘주의 묘지명(巨食塩鼓食一椋), 신라의 경주 황남동유적 목간(下椋, 仲椋)과 경주 月池 출토 벼루(椋司)에 이어 백제의 부여 능산리 목간(三月仲椋上丑)과 부여 쌍북리 목간(外椋部)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7세기부터 8세기 초에 걸쳐 ‘椋’자가 사용되고, 8세기 이후의 지방 관아의 목간에서는 ‘椋’자 대신 ‘倉’ 등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³⁾

畠(はたけ)라는 글자 또한 일본의 國字로 주목되었으나, 나주 복암리 목간에서 ‘畠’자가 확인됨에 따라 백제에서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글자를 특정 지역의 특수한 한자로 보거나 특이한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종결형 어미 ‘-之’의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자는 일본어 어순으로 표기된 문장이라든가 ‘傳之’ ‘反之’ 같은 문말 표현의 용법이 신라의 <壬申誓記石>의 표기에도 보이므로 한반도 문자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고구려의 금석문 자료(광개토태왕비, 충주고구려비)나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백제 목간자료(4호 목간)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결형 어미 ‘-之’가 한반도의 변체 한문 혹은 초기 이두적 용법이 아니라, 진한시대 공문서에서 종결형 어미 ‘也’보다 훨씬

2) 大橋信弥, 2004 『古代豪族と渡來人』, 吉川弘文館

3) 三上喜孝, 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 『목간과 문자』 창간호, 193-196쪽

편 많이 사용되고 율령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⁴⁾ 종결형 어미 ‘-지’의 용법이 한반도에서 특별히 사용된 용법이고, 그것을 일본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한자문화(문서행정)의 공통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언급한 것인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유노베(湯ノ部) 1호 목간

‘牒’ 목간으로서 한국의 ‘사면목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면목간의 측면 한 곳에는 ‘丙子年’으로 시작되는 문구가 있는데, 다른 한 측면은 본래 문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인지, 판독이 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陰位制’의 전신이 되는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호소한 上申文書에 해당하는데, 일본 목간에 上申文書가 많이 보이는지요? 모범문으로 베꼈다가 책상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牒 목간이 작성되어 상급관청에 상신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니시가와라(西河原) 1호 목간과 모리노우치(森ノ内) 1호 목간

西河原 1호 목간은 野洲郡司가 馬道里長에게 발급하여 女丁의 差占(파견)을 명한 郡符木簡이고, 森ノ内 1호 목간은 세금 부담과 관련하여 ‘□□郡馬道郷□□里’에 거주하는 호주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한 목간입니다. 西河原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 중에 ‘馬道里’ ‘馬道郷’ ‘馬道’(光相寺 4호) 등 ‘馬道’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곳이 野洲郡의 郡治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 貸稻(出舉, 스이코)에 관련된 기록간

貸稻(出舉) 관리와 관련된 기록에는 貸稻의 수량이나 그 利息을 기록한 목간이 있고, 貸稻 출납에 사용된 倉札이 있습니다. 미야노우치(宮ノ内) 4호 목간은 宣都宣椽人에게 貸稻한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佐官貸食記>(618년) 목간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줘서 얼마를 상환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정리 문건이 아닐까 합니다. 宮ノ内 4호 목간을 椽人, 즉 창고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貸稻한 양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佐官貸食記> 또한 ‘좌관이 대식한 기록’이 아니라 ‘좌관에게 대식한 기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椽人和 마찬가지로 佐官도 貸稻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宮ノ内 4, 5, 6호의 일련의 목간은 借·보관에 관한 倉札로 出舉 관리를 위해 이곳에서 창고 관리를 담당한 관인이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면, (宣都宣)椽人是 貸稻의 주체(빌리는 사람)이자 貸稻의 관리를 담당한 관인이 되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出舉制와 관련된 목간에서 貸稻의 주체는 대체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김병준, 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73-77쪽

